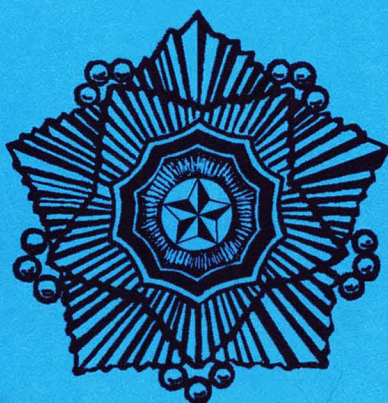




광명성절기념
특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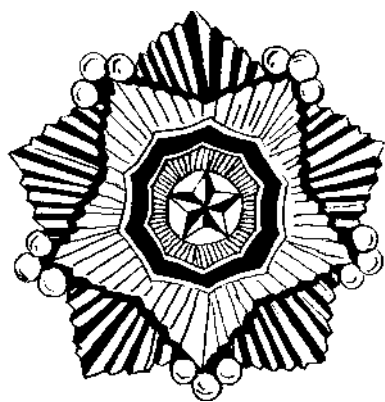


2

주체101(2012)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1(2012)년 제2호

(루계 제772호)

특간호

《김정일동지는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능통한 인류력사가 낳은 위인들중의 위인입니다.》

김 일 성

----- 차 례 -----

-----[광명성절]----- 어버이장군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기념특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	(4)
태양의 미소는 영원하다(시)	김 영 택(4)
장군님은 공격전의 경장(시)	박 천 걸(5)
백두경장의 구경소리(시)	리 동 수(5)
백두의 정기(시)	김 용 엽(6)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7)
장군의 눈물은 뜨겁다(시)	김 효 봉(8)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시)	차 영 도(9)
위대한 어버이의 리상(정론)	백 성 근(10)
그리움의 고향집(시)	홍 성 두(7)
위대한 어버이의 동상을 모시지 못한 사연(혁명일화)	(15)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시)	한 원 희(16)
서리꽃(시)	리 광 규(14)
단편소설 사진에 깃든 이야기	석 남 진(17)
주체문학의 대장	(25)
매혹과 흠모, 추억의 노래(수기 묶음)	(29)

◇ 론 설 , 평 론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시대 문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박 춘 택(25)
정일봉과 더불어 길이 빛날 영원불멸의 태양찬가(평론)	리 광 립(31)
김일성민족의 100년사와 더불어 빛나는 총서 《불멸의 향도》는	
수령형상문학발전의 새로운 전환	최 언 경(35)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공동사설에서—

~~~~~광명성절~~~~~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하여 총공격 앞으로! ~~~~~기념특집~~~~~

### 영원한 그리움의 불길 (시 묶음)

함  
남  
의  
불  
길  
특  
집

|                   |           |
|-------------------|-----------|
| 불길처녀 .....        | 주 명 옥(43) |
| 꽃이 되어 열매되어 .....  | 최 정 용(43) |
| 비료여 비료여 .....     | 서 진 명(44) |
| 그리움의 불 .....      | 최 명 길(45) |
| 그 가을을 안고합니다 ..... | 리 미 옥(46) |
| 불 꽃(수필) .....     | 김 혜 인(46) |

수

|                   |           |
|-------------------|-----------|
|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 ..... | 최 남 순(33) |
|-------------------|-----------|

필

|                     |           |
|---------------------|-----------|
| 영원히 녹지 않을 눈송이 ..... | 최 용 호(41) |
|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   | 김 명 천(67) |

### ◇ 평 론 ◇

|                                   |           |
|-----------------------------------|-----------|
| 조선의 힘에 대한 시대의 찬가 .....            | 주 옥(61)   |
| 민심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높이 솟은 선군의 산악 ..... | 김 순 립(63) |
| <b>단편</b> 인간의 향기 .....            | 김 혜 영(48) |
| <b>소설</b> 희천저녀 .....              | 임 순 영(69) |
| 선군의 해빛(시) .....                   | 김 춘 호(40) |
| 탄전의 대보름달(시) .....                 | 박 상 민(66) |
| 건설장의 까치소리(시) .....                | 리 진 목(68) |
| 2012년의 별이다(시) .....               | 리 진 협(80) |

표지2면: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노래)

3면: 《모두다 올해공동사설과업관철에로!》(선전화)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간절한 요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엄숙히 공표한다.

1.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다.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건립할것이다.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한다.
4. 전국각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래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영생탑을 건립할것이다.

주체101(2012)년 1월 12일  
평양

## 래양의 미소는 영원하다

김영택

인민이 사는 곳 그 어디나  
우리 어버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  
생활의 어느 순간에나  
인민은 장군님미소를 안고서 산다

보아라  
어버이장군님  
영원한 래양의 미소가 눈부신 이 땅에  
해빛도 그 미소로 빛을 뿌리고  
불어오는 봄바람도  
그 미소를 안고 파스하다

하늘은 예대로 푸르고  
들끓는 생활이 달음쳐가는 거리에  
아이들은 장군님노래를 부르며 학교로 오간다  
사람들은 밝은 미래 더 좋은 앞날을 확신하며  
4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달려간다

장군님 선군으로 지켜주고 다져주신  
우리의 이 조국 이 제도  
장군님 헌신의 한평생으로 열어주신  
우리의 천만년 미래 그 한끝까지  
찬란히도 빛뿌리는 축복의 밝은 그 미소

시련 많았던 고난의 나날에도  
그 미소를 따라 웃으며  
폭풍을 헤친 인민이었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배심 든든히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그 미소를 따라 전진해온 조국이었다

가슴찡는 12월의 그 나날

그 미소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 흘리고  
그 미소 우러르며 억척의 맹세를 다진 우리  
가시는 곳마다 찾으시는 곳마다  
그 미소로 인민의 행복 꽃피워주시고  
떠나시면서도 아, 떠나시면서도  
인민의 만복 축복해주시는 그 미소 사무쳐와  
끝없이 쏟아지던 눈물의 소나기...

장군님 지켜주신 이 제도  
장군님 열어주신 천만년 미래우에  
우리 삶의 억센 기둥  
백두산혈통으로 이어지는  
수령복 장군복 안겨주신  
어버이의 불멸의 업적이어

래양의 미소 축복의 미소속에  
내가 살고 인민이 산다  
따뜻한 그 미소 밝은 해살로 비껴가는 곳  
천리방선 병사들의 총검은 서리발친다  
만수대지구건설장 살림집마다엔  
완공의 창문이 번쩍이고  
공장마다 일터마다 만부하의 동음 드높다  
전야에선 봄날의 아지랑이 피어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혁명의 붉은기 더욱 높이 추켜든 내 조국에  
승리의 축복으로 넘쳐흐르는 래양의 미소여  
장군님 강성부흥구상 현실로 펼쳐지는 이 땅에서  
대대손손 무궁토록 복락을 누리갈 인민앞에  
래양의 빛말로 그 미소 영원하다  
아, 래양의 그 미소 눈부시다!



# 장군님은 공격전의 령장

박 천 결

천고의 밀림을 흔들며  
만리광야로 내닫는 눈보라 눈보라  
나는 생각하노라 백두의 이 산정에서  
순간도 멈춤을 모르는 저 눈보라처럼  
백두의 기상을 안으시고  
언제나 공격전의 앞장에 계시었던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우리 장군님 위대한 탄생의 축복은  
화려한 꽃다발이었던가  
그이 태어나 처음으로 들으신것은  
하늘땅을 흔드는 백두의 호협한 눈보라소리  
산발을 울리는 항일전의 총소리  
그이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비껴든것은  
천군만마마냥 내닫는 눈보라의 장쾌한 기상  
백두의 산악마냥 거연한 빨찌산장군들의 모습

고요히 내려쌓인 흰눈우에가 아니라  
강산을 열구고 온녋을 떠미는 눈보라속에  
생의 첫 자욱을 찍으신 그이  
그날에 호흡하신 백두의 숨결을 백두의 기상을  
장장 70성상 심장의 박동으로 새겨안으시고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그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이의 한생은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어머님의 군마에 함께 오르시여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받아  
피어린 항일의 전구들을 달리실 때  
그이는 벌써 년대와 세기를 넘어  
백두의 기상 빨찌산의 공격정신을  
만대에 뽐치셨거니  
그이는 백두산이 낳은 공격전의 장군이시였다

폭풍을 안은 자욱자욱  
백두산의 번개를 치고  
정일봉의 우뢰소리 울리며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노도쳐왔다  
역풍을 순풍으로 길들이고  
화를 복으로 안아오신 그이의 한생이여

우리를 당할자 세상에 없다는  
백두의 담력과 기상으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건드리려는자들  
백두산의 무계로 짓누르시며  
백두산장군의 기개 선군의 위용을 펼치신 그이  
세기적인 기적을 이 땅우에 펼쳐가시며  
락원예로의 길을 열어오신 장군님

강성국가의 령마루에로 질풍같이 내닫는  
우리의 가슴가슴에 장엄한 대진군대오에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도  
강행군렬차의 기적소리로 울려주신  
우리 장군님  
한평생 안고오신 백두의 공격정신을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셨나니

조국과 민족앞에  
또 한분의 백두령장 **김정은**동지를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강성국가의 령마루에 거연히 서시여  
최후승리의 그날에도  
천만군민을 총공격전예로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 그이는 공격전의 위대한 령장이시다

## 백두령장의 구령소리

리 동 수

이 나라 천만산악을 뒤흔들며  
수천수만의 가슴을 울리며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이는 구령을 내리셨다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이며 앞으로!

심장과 심장에 울려오는  
그 구령소리에  
강철포신들이 머리를 추켜든다  
그이 가리키시는 항로를 따라

우리의 매들은 출격의 활주로를 날르고  
군함들은 출항의 고동소리 높이 울린다

공장과 전야마다에 메아리쳐가는  
그 구령소리에  
주체철쇠물가가가 사뭇쳐 끓고  
주체숨 주체비료가 쏟아진다  
석탄산이 높이 솟아오른다  
논밭들은 봄날의 아지랑이 뿔어올린다

결사의 맹세로 만장약된

피끓는 천만의 심장들이  
소리쳐 화답한다  
영원토록 변함없을 각오로 불탄다

조국이어 앞으로!  
이는 분명  
백두산발을 뒤흔들던  
빨찌산 김대장의 호령소리  
원썬들을 전몰케 하며  
전선의 산발들마다에 메아리치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의 불호령

백두의 기상 백두의 담력이 넘치는 구령소리에  
이 나라 병사들이 억세게 틀어잡은 총검마다에  
서리발은 푸르게 번뜩이고  
천만산악은 철의 성새로 솟아오르나니  
일터마다에서는 기적이 창조되고  
전야는 계절을 앞당겨 소리쳐 봄을 부르나니

선군의 한길로 조선을 이끄시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이를 따라  
함남의 불길은 더 거세차게 타오르고

내 조국은 강성번영할 래일  
강성국가의 령마루에로 기세차게  
폭풍쳐 달려간다

천만군민이 한마음으로 우러러따르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이는  
크나큰 인민의 공지!  
무한한 조선의 힘!

조국이어 앞으로!  
쩌렁쩌렁 강산에 울리는  
백두령장의 부름에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의 대오가 일떠섰다  
주체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백두산마루에 솟아오르는  
태양의 열기로  
내 조국에 뜨거운 숨결을 부어주시는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그이따라 조선이 일떠섰다  
강성국가승리를 향하여 질풍 노도쳐간다!

## 백두의 정기

김 용 엽

천만산악 한품에 그러안고  
사시절 백설을 휘뿌리며  
구름우에 치솟은  
오, 백두산 백두산 혁명의 성산이어

하늘끝에 올라선듯  
내 지금 네 령봉에 우뚝 서서  
가슴벅차도록 한껏 들이키노라  
이 산정에 가득 차넘치는  
한없이 정갈하고 청신한 네 정기를

어디서 내뿜는것이나  
순간에  
이 가슴 하늘처럼 환히 열리고  
이 정신 번개처럼 번쩍 트이고  
이 심장 격랑처럼 뿜튀우는 네 정기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숭엄한 저 메부리들인가  
잔잔하다가도 되성치며 격랑을 일으키는  
변화무쌍한 저 천지런가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호호탕탕  
부석을 날리는 용맹스러운 눈바람인가

조용히 눈을 감아도  
눈속에 피어웃는 만병초향기에 실려  
온몸에 끝없이 흘러드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네 기운

한번 호흡하면  
백두의 기상이 나래치고  
또 한번 호흡하면  
백두의 담력이 용솟음치는듯

호흡할수록 이 가슴속에 억세게 솟구쳐올라라  
선군의 기치 위대한 향도의 발걸음 따라  
끝까지 혁명할 불변의 신념  
네 산악처럼 네 산악처럼

오, 정기여 백두의 정기여  
너는 정녕 백두광야를 주름잡으며  
조국과 인민 혁명을 호흡하시던  
이 성산의 주인 위대한 백두령장들  
그분들의 그 불같은 숨결이 흐르는  
영원할 조선의 정기가 아니라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새벽에 백두밀영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은 우리 일가로 볼 때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대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숙은 총포성이 울부짖는 가렬한 전장에서 조선의 남자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래를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해주었습니다.》

《**김정일**의 유년시절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집안어른들한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나의 전우들한테서 받았습니다. **김정일**은 내 사랑보다도 빨찌산대원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김정일**이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닐수 있는것은 선천적인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우며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기때문입니다.》

《**김정일**동무를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는것은 항일혁명의 산아라는 뜻이며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품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떼고 그 품에서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른 조선의 아들입니다.》

《**김정일**동무를 민족의 령도자로 키운것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투사들이 그를 향도성으로 내세워주었으며 백두산의 정기가 그의 기개로 되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한것은 **김정일**동무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나서자란 민족의 령수이기때문입니다. 그는 만민의 지지와 총애를 받는 인민의 령도자입니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어나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 속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령도자가 된 **김정일**동무의 위업은 앞으로도 필승불패할것입니다.》

## 그리움의 고향집

홍 성 두

그리워

우리 삶 꽃피난 운명의 고향집

2월이 오니 더욱 그리워

이 나라의 천만아들딸

한달음에 찾아가 안기는

백두밀영고향집

장군님 그 품이 하늘이라면

그 하늘이 열린 곳

장군님 그 사랑이 해빛이라면

그 해빛의 시작점

내 삶의 순간순간

기쁠 때도 그리워

힘들 때도 그리워

이 가슴에 가득히 차넘치는 그리움

고향집을 찾으면 풀릴줄 알았더니

아니였구나 와보니 더욱 그리워...

아, 조선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린다

불러 목메이던 그날의 환희

소중히도 새겨안은 밀림의 구호나무며

장군님의 체온스민 쪽무이포탄이며 조선지

도...

한가슴에 안아보는 고향집의 모든것

추억으로만 그리운것 아니거니

성스런 이 프락을 나서시여

조국과 인민위해 기나긴 수십성상

백두의 려장 한생토록 아니 푸시고

백두산눈보라를 한생토록 맞으시며

전선길 천만리를 헤쳐오신

장군님 그리움에 목메이는 마음이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더해만 가는 그리움

유정한 소백수도

장군님 그리움에 젖어 흐르고

하늘가의 정일봉도

장군님 그리움에 키를 솟구는듯

아아

그리움을 안고왔다가

그리움을 더해 안고가는

고향집 고향집 백두밀영고향집

이 나라 천만아들딸 그리움의 가슴속에

그리움의 절정으로 솟아

그리움의 세계속에 뜨거이 안아주는

영원한 영원한 그리움의 고향집이어!



# 장군의 눈물은 뜨겁다

김 호 봉

흥겨운 CNC노래가 장내를 울릴 때  
누구나 어깨들썩 웃음절로 지을 때  
나는 보았노라 단 한분  
우리 장군님의 눈곱 뜨겁게 젖고있음을

어제도 그러하시고 오늘도 그러하시여라  
그 노래 들으시면  
자신을 다잡지 못하시는 그이  
장군님 말씀하시여라  
...CNC는 나의 사랑이요  
CNC는 나의 심장과 연결되어있소

아, 우리 장군의 마음에  
그렇게 자리잡고있었구나 CNC는

어이 다 알라 알수 있으랴  
피를 나눈 전사의 이름처럼  
생사를 같이한 전우의 이름처럼  
뜨겁게 CNC를 부르시는 그 심중  
그 눈물에 어린 하많은 추억  
파란만장 사연, 시련의 무게를

숨죽은 공장과 불꺼진 마을들을 두고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을 두고  
가슴속에 푹푹 피가 맺혀 떨어지는  
그 아픔을 절감한 장군님 심장만이  
그 모진 진통을 다 이겨낸 장군님 심장만이  
안아올수 있고 추억할수 있는 무게여라

수령님을 잃은 비애의 하늘아래  
황포한 자연의 재난까지 휩쓸던 이 땅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제재와 압살의 포위환  
앞에서  
그이는 분연히 일떠서시였거니  
그 처절한 역경의 풍랑속에서  
순경의 돌파구를 여시려  
장군은 빙설 6천여리 강계길로 오르시였다  
푹푹이 모은 돈 땀젖은 손에 쥐시고  
...

오, 영원히 잊을수 없는 고난의 행군  
그때의 그 많지 않은 돈  
그 돈은 강반석어머님 샅빨래와  
샷바느질로 한푼두푼 모아  
백두산에 오르시는 수령님 손에 쥐여주셨던  
그 20원파도 같이  
사랑과 정이 어리고 애국의 열이 스민  
작으나 귀한 돈이었다  
작으나 큰 돈이었다  
바로 그 돈을 밑천으로 CNC가 태어났다

CNC, 그것은 아무런 형체도  
누구의 방조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최첨단을 장하게 돌파하며  
장군님 태동시키신 선군의 실체  
장군님 사생결단의 의지의 전쟁속에 마련하신  
조선의 실체

정녕 CNC는  
내 나라 내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우뚝 세우고  
사랑하는 인민을 제일 잘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뜻과 신념 리상과 념원 불굴의 정  
신력이  
하나의 태줄로 이어진 위대한 생명체이여라!

아, 흐느끼며 오열을 터뜨리시는  
장군의 그 모습을 내 우러르노라  
장부의 눈물은 피보다 더 진하고  
불보다 더 뜨겁다 하였거니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는  
절세의 영웅남아 빨치산장군  
그 심장에서 솟구쳐 흘러나오는  
그 고결한 눈물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내 감격에 목메이노라  
내 얼마나 위대한분을  
가까이 모시고사는

행운아인가 복받은 인생인가

돌이켜보면 이국땅 류랑살이가 서러워  
많이도 울어본 소년

내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어린 마음에도 강기를 세웠던 소년

하여 어려서부터 나에게  
눈물은 노래가 아니였어라  
히나 내 오늘 장군의 눈물앞에서  
누리를 향해 심장의 노래를 한껏 터치노니

세상에 우리 장군님같은

사랑의 아버지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대성인이  
또 어데 있으랴

애국애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으로  
선군조선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승리  
세계를 향해 휘황한 미래를 펼치시는  
위대한 인간 **김정일**동지이시여!

CNC노래와 더불어 격정을 터뜨리시는  
오, 장군의 눈물은 뜨겁다  
우리 장군의 눈물은 뜨겁다

##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 차 영 도

생각도 깊어라  
이 나라 사람들이 심장속 깊은 곳에  
칼날같은 맹세를 버려안고 나선  
신념의 한길!

이 길에서 풀뿌리를 씹으면서도  
때로는 가슴천정에서  
피가 떨어지는 아픔을 삼키면서도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길!

불속에서 전디는 강철이 없었지만  
그 불보다 몇갑절 더한 고통을  
이겨야 했던 이 길에서  
우리 신념만은 단 한번도 꺾지 않은  
**김정일**장군의 인민이거니

가장 어렵던 그날에 그이의 눈가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본 인민!  
사랑하는 인민을 미여지는 가슴에 품안고  
장군님 밤깊은 철령을 넘으실 때  
아, 이 세상 한끝까지 길이 따를  
운명의 태양을 본 인민!

이 땅에 열백번 다시 태어난대도

판길은 갈수 없는 그 인민이 오늘  
백두의 혈통 만대에 이어갈 그 의기  
이 땅 삼천리에 뻗었으니  
보라! 그 의로운 인민이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이 나라의 **김일성**광장을 보라!

아, 천지를 진감하는  
그 만세의 환호속에서 꽃바다속에서  
그처럼 그림고 뵈고싶은 장군님을 우러러  
두발 동동 구르는 이 나라 사람들의 두볼에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라!

그 방울방울의 눈물에서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장군님께 향한 마음 백옥같이 변치 않을  
이 나라 인민의 의지를 보라! 맹세를 보라!

이 의지 이 맹세로 조선은  
변이 나는 이 땅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리니  
우리는 오직 장군님을 따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 위대한 아버지의 리상

백성근

2월의 하늘가에 《그리움은 끝이 없네》의 노래 소리가 뜨겁게 메아리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을 맞는 이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 못 잇을 그리움의 노래 강산을 진감한다. 그리움 안고 둘러보니 바라보기만 해도 감탄의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흥분으로 심장이 쿵쿵 뛴다. 되는 강성부흥의 흐뭇한 현실이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세찬 걱정의 파도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백두의 2월이 있어 만복이 꽃피나는 오늘이 왔다.

우리가 것처럼 바라고바라던 행복, 것처럼 소원하고 그려보던 모든것이 알찬 열매로 맺어지는 이 시각 천만군민은 삼가 웃기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수수천년 갈망하던 인민의 소망을 풀어주시분, 인민이 념원하는것이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가 인민앞에 가져다놓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투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장장 70평생 인민을 위한 헌신과 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걸고 걸으신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

그이를 우러러 우리 인민은 아버지라는 부름말을 즐겨 썼고 지금도 즐겨 쓰고있다.

정녕 그렇게 밖에는 달리 부를수 없는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상에 매혹되어 마음속 충동의 붓을 든이 천이런가, 만이런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어휘들과 표현들을 고르고 골라도 다 엮을수 없는 위인칭송의 노래, 수천수만권의 책으로도 다 전하지 못할 위인흠모의 서사시에 그이의 위인상을 더 밝게 부각시키는 미숙한 한도막의 글이라도 더 보태고싶어 우리도 그리움의 2월에 거룩한 절세의 위인이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를 숭엄히 우러르며 매혹의 붓을 달리고달린다.

## 1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 인민에게 영광을 드리우고싶은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 정 일**

절세의 위인이 터친 이 뜨거운 심중의 고백을 다시한번 증명해보이는 력사의 자리에 지금 우리

가 서있다.

눈뿌리 아아하게 줄지어서서 하얗게 사과꽃을 피운 일망무제한 파수의 바다에 들어서시여 향기롭고 달콤한 사과알들이 주렁질 환희의 가을을 그려보시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에 넘쳐흐르는 기쁨, 미소, 만족함...

사람들이여!

그옥한 사과향기가 온 구내를 진동하는 대동강 파일종합가공공장의 현관홀에 모셔진 태양의 모습, 사과꽃바다속에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태양의 영상을 단순히 대형미술작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라.

그것은 삼석지구에 펼쳐진 행복의 무릉도원의 실재한 모습이며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리상이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뜨겁게 전하는 력사의 진실한 기록이다.

옛날에 기묘한 돌 셋이 솟아 그 이름도 삼석이 라 불리우던 땅!

그 땅이 이제는 돌보다 사과가 더 많은 고장으로 이름나게 된 희한한 현실앞에서 감탄하던 때가 불과 1~2년전이다. 그 땅에 그후 련이어 펼쳐진 경이적인 현실을 우리 다시금 찬찬히 둘러보자.

대규모의 파일생산기지의 면적이 대대적으로 능력확장되고 키낮은사과나무들이 수백만그루나 뿌리내릴수 있게 판 전호식구멍이의 총 연장길이는 무려 몇천리에 달한다. 그 주변에 생겨난 파일보관고와 파일말린편공장도 몇쟁이지만 수십정보의 땅에서 막대한 량의 사과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다는 파일나무원종장은 또 얼마나 놀라운가.

대동강돼지공장, 파일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그물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대동강그물공장, 연간 수만마리의 자라를 키울수 있는 대동강자라공장, 연간 수천t의 파일을 가공처리할수 있는 대동강파일종합가공공장, 파수바다속에 아담하게 들어앉아 경치좋은 곳의 휴양소를 방불케 하는 몇쟁이마을들, 그 마을들에 오봇이 자리잡은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

파수와 축산, 축산과 파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실현된것도 가슴후련하지만 이제는 세계를 깜짝 놀래우던 파수의 바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뚝우뚝 장쾌하게 솟아오른 희한한 이 고장을 파수의 대도시라고 불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반영은 정말로 가슴을 찡하게 울려준다.

그보다 이 장쾌한 사회주의무릉도원을 바라보시며 나도 이사짐을 싸가지고 여기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어찌하여 우리모두의 가슴을 더 세차게 울려주는것인가.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얼마나 즐거우셨으면 우리 장군님께서 그렇듯 대만족을 표시하시었으랴.

하기에 볼수록 황홀한 지상천국이며 사회주의리상촌, 리상향이라고, 21세기의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돌아본 외국의 과수업기술자는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과수업이 최대로 발전했다는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크고 훌륭한 과수원은 없다. 아시아의 등대와 같은 대규모과수농장을 돌아보니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얼마나 인민을 위하시는분인가 하는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분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친 조선에서만 이런 현대적인 과수농장을 일떠세울수 있다...

이것은 결코 그 한사람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국토가 넓고 재부를 자랑하는 나라들에서도 접어들지 못한 일, 과수업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창한 위업을 바로 사회주의조선에서 실현했다는 세계의 경탄의 목소리이다.

이런 사회주의무릉도원에서 따들인 풍성한 열매를 그저 맛보는것도 인민에게는 커다란 기쁨이런만 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더 훌륭하고 질 좋은 과일 가공식품들과 고급화장품들까지 생산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사랑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사과식초, 사과단물, 사과즙, 사과단졸임, 사과향수, 사과샴프...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쏟아지는 이 제품들을 단순히 사과를 가공할 때 나오는 보통의 식료품과 화장품으로만 보아서는 아니될것이다.

이 하나하나의 제품들은 사과를 마음껏 먹어보는것이 소원이었던 인민에게 과일의 향긋한 맛만이 아닌 이 세상 최상최대의 행복을 천만가지로 안겨주시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달리는 야전렬차에 계셨던 위대한 아버지의 리상이 꽃피운 귀중한 결정체이다.

그이의 숭고한 지향과 인민에 대한 사랑, 불보다 뜨거운 열정과 초인간적인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산물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들치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 행복중에서도 가장 높고 훌륭한 행복에 대한 지향이 바로 리상이다.

그 리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그 인간이 바라는 행복의 높이를 알수 있고 그 인간의 사상정신세계의 높이를 알수 있다.

평범한 한 인간의 리상을 초월하여 전체 인민의 리상을 한몸에 체현하신분!

그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것, 인민이 누리는 모든 복락을 세계에서 제일 문명하고 훌륭한 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이것이 바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리상이였다.

그 리상의 한 측면이 바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사과바다이고 사과가 가공되어 줄줄이 쏟아지는 갖가지 사과가공품들이며 그것을 받아안고 감격속에 울고웃는 인민의 모습이다.

이제 머지않아 그것이 복청과 덕성, 고산을 비롯하여 풍요한 과원들이 솟아난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퍼져갈것이니 이 나라의 평범한 인민들이여, 그대들에게 행복의 최절정, 만복의 최절정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인간 **김정일**동지께 삼가 큰절을 드리라. 불멸의 그 업적을 자자손손 길이길이 전해가라.

## 2

예로부터 희망이 없이는 못산다고 했다.

희망중에서도 가장 크고 훌륭한 희망이 리상이다.

또 그 리상으로 가는 길은 능력으로 닦으라고 했다.

말은 쉽지만 리상실현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한 인간, 한 가정의 리상을 실현하자고 해도 무수한 곡절을 겪을진대 민족의 리상, 나라의 리상을 실현하자니 얼마나 많은 시련의 고비를 넘어야 했고 얼마나 많은 난관의 칼벼랑을 극복해야 했던가.

헤아릴수없이 많은 그 극한점들을, 피와 땀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만 넘을수 있는 그 한계점들을, 드물지 않는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다 발휘해야 통과할수 있는 간고한 로정을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따라 웃으면서 헤쳐왔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리상실현의 맨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고 창조와 건설의 비범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시였다.

배불리 먹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았던 하던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려 우리 수령님 걸으시던 인민을 위한 길을 지금껏 우리 장군님께서 걸으시였다.

과수의 새시대를 탄생케 하는 력사적인 길을 걸으시기에 앞서 그이께서는 우리 식 가공업의 새시

대를 열어놓는 길도 걸으시었고 두벌농사, 세벌농사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농장길도 걸으시었다.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이 쏟아져나오게 하는 온 나라의 대경사를 이룩한 길에도 자력갱생의 척후병이 되시어 걸으신 그이의 거룩한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우리는 남의 기술, 남의 특허를 살수 없으며 남의 발사체로 위성을 올리지 않는다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두차례나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는 역사적인 시각에 그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위성발사의 전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조선의 기계공업이 가장 어려운 나날에 과학기술적진보의 몇단계를 성큼성큼 뛰어넘으며 CNC공작기계공업의 앞선 자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된 최첨단돌파의 로정에도 그이의 발자취가 찍혀져있으며 CNC기술의 최첨단을 개척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도 바로 그이께서 지펴주셨다.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지 못한다면 인민의 리상이 한갓 꿈으로만 남아있게 된다.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기어이 우리 수령님의 념원이 현실로 활짝 꽃피나게 해야 한다. 어떤 험난한 길이라도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는 길이라면 주저없이, 완강하게, 끝까지 가야 한다.

이런 결심을 품으셨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절연히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었다.

인민의 리상을 모든 측면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완벽하게 실현하는것도 그이의 리상이었고 인민의 리상이 펼쳐진 사회주의 내 나라를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게, 인민의 리상이 꽃피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신물질적재부를 가장 철저하게 지켜가는것도 그이의 리상이었다.

우리 인민은 다는 모른다.

원쑤들도 벌벌 떨게 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우시느라 우리의 장군님께서 사색의 낮과 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다는 알지 못한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도강행군의 길, 그 많은 험난한 고비들을 어떻게 헤쳐오셨는지 우리 다는 모른다.

진정 그이는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고 지키기 위한 리상실현의 길을 자신의 비범한 자질과 특출한 실력으로 헤쳐오신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영웅이시다.

그래서 더더욱 눈물이 앞을 가린다.

평양제1백화점의 머리빈침매대에 서신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렀을 때, 량강도숨장화를 뜻이 신고 눈썹인 산판에 오를 벌목공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던 우리 장군님의 심중을 생각했을 때, 16년만에 쏟아져나오는 비날론을 향해 마중가시었던 그이의 걸음을 생각했을 때, 물고기들이 펄펄 뛰는 양어장에서 나에게로

모여드는 이 물고기들이 다 우리 인민들에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시었던 그이의 음성을 되새겨볼적에...

우리 인민이 먹고 입을것, 쓸것이라면 그 질에 대하여 늘 강조하시었던 그이, 사소한 부족점에 대하여서도 언제나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었던 그이,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 지어 억대의 자금도 아깝지 않게 베풀어주시었던 그이!

정녕 그이의 따사로온 손길이 없었더라면,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없었더라면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보통문거리고기상점에서 갖가지 제품들이 들어있는 식료품구역을 사들고 나울적에,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웃고떠들며 행복의 무아경속에 잠겨있을 때, 만수대지구의 호화로운 살림집에서 수도의 아름다운 야경을 부감할적에, 옥류관의 요리전문식당에 앉아 희귀한 요리들을 대접받을적에 그 모든것이 우리 장군님의 천만고생과 바꾼것임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겨안으시라.

묘향산과 금강산, 칠보산과 구월산 등 이 나라 명산들에서 탐승의 즐거운 나날을 보낼적에,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나온 우리의 고급화장품들로 곱게 단장하고 념변과 박천의 견직공장의 아름다운 천들로 좋은 옷을 지어입고 룡림의 호수에서 뱃트를 타며 즐거운 저녁을 보낼적에 그 시각에도 인민을 위한 초강도강행군길에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셨다는것을 항상 명심하시라.

그리고 소리높이 자랑하시라!

철령과 오성산, 1211고지와 대덕산의 아슬아슬한 령길을 뚫아오르던 최고사령부 야전차의 발동소리에서, 강계와 희천의 눈보라길을 쉬임없이 오가시며 최첨단돌파의 나래를 달아주시려 귀중한 조언을 주시던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에서 하나둘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었고 그 리상을 지킬수 있는 보루들이 축성되었음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시라!

행복의 뿌리, 인민이 향유하는 온갖 복락의 뿌리가 되신분이 우리의 **김정일**동지이시다.

행복의 아지가 창공을 향해 치솟구며 무성해질수록 뿌리는 지심깊이 뻗어나가며 성장의 자양분을 끊임없이 빨아올린다.

아, 정녕 그 뿌리로 한생을 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조국을 이끌고 인민을 이끌던 그이의 힘찬 발걸음소리를 우리 다시는... 우리 다시는 들을수 없단 말인가.

### 3

우리는 그이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벌써 들었다. 그이의 힘찬 발걸음소리를 새해의 첫날부터 또

다시 들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  
훈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고 인민군장병들  
을 축하!

신문에 실린 혁명활동보도의 글줄은 짧았다. 허  
나 그 여운의 진폭은 무한대였다.

세계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일제히 대서특필!  
특히 길지 않은, 10분남짓하게 텔레비존으로 방  
영된 기록영화의 화폭에 울리는 노래는 그대로  
백두령장의 발걸음소리였고 조선이 어느 길로 나  
가는가를 선언한 력사의 장엄한 퇴성이었다.

량옆에 선 지휘관들의 팔을 끌어잡는 그이의 소  
탈성에 대하여 세계가 눈여겨보았고 신통히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군부대시찰을  
방불케 한다고 세계의 출판보도매체가 먼저 보도  
하였다.

우리모두 팔을 끼고 어깨걸고 뜻과 정을 하나로  
굳게 이어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주저없  
이 오직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에서 일심동체가  
되자는 그이의 깊은 뜻을 깨달았을 때 적들은 공포  
에 전율하였고 우리는 승리의 래일을 확신하였다.

모든것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성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현지시찰의 길  
에서 그곳 부대지휘관들을 상대로 길지 않은 대화  
를 나누시였건만 이 나라 천만군민은 그이의 이 숭  
고한 뜻을 들었고 적들도 이 철의 의지를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환희에 들끓었고 적들은 무서  
워 전전공공하였다.

우리는 일심단결이라는 세계최강의 무기의 위력  
을 다시한번 파시하였고 적들은 당장이라도 박살  
당할것 같아 가슴을 조였다.

그 무기의 위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고져 지  
난해 12월로 력사의 시계바늘을 우리 잠시 돌린다.

쿵쿵- 지축을 울리며 세계를 들었다놓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소리에 앞서 충정에  
불타고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그이의 뜨거  
운 심장의 박동소리를 피눈물나는 지난해 12월  
에 먼저 느꼈다는것을 우리는 온 세계앞에 숨김없  
이 전한다.

이 나라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고 못짐승들과 못  
새들도 하늘이 낸 위인을 못 잊어 구슬프게 울던  
뼈아픈 상실의 그때, 온 나라 천만군민이 상제가  
되어 땅을 치며 호곡하던 그때 이 나라의 상주이  
신 **김정은**동지께서 일편단심 위대한 장군님만을  
따르던 인민을 위해 펼치신 사랑의 전설을 회고하  
는 이 마음도 눈물에 젖는다. 걱정으로 눌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억만금에도  
비할수 없는 사랑의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하루빨  
리 공급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군군인들과 특별  
열차를 동원하여 평양까지 집중수송하도록 하여주  
신 그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늦게야 알았다.

국제경기에서 공화국기발을 창공높이 날린 공로  
있는 체육인도 아니고 조국앞에 이렇다할 공로를  
세운적 없는 4.25체육단의 평범한 여성송구감독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으로 세계 각국에서  
추모의 꽃과 화환들이 실려오던 비행기를 타고 영  
결식을 하루 앞둔 날 외국으로 병치료를 떠났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뒤늦게 알았다.

어버이장군님의 령전을 지켜가시는 속에서도 한  
평범한 전사를 위해 돌려주신 하늘같은 사랑이 너  
무도 파격적이어서 우리는 한동안 굳어졌었다.

허나 의료보장대책, 더운물보장대책을 철저히  
따라세우고 각급 당조직들에서 책상에 앉아서만  
추운 겨울밤 인민들 걱정을 하지 말고 일별, 시간  
별 교대로 현장에 나가 인민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필은 우리 그  
날로 알았다.

추운 겨울밤 추위속에서 인민들이 떨고있다는것  
을 아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  
장할데 대한 그이의 친필에서 우리 정녕 무엇을  
느꼈던가.

그이께서 보내주신 수만개의 발열불임피와 발  
열신발깁개, 많은 량의 사랑가루를 우리는 파  
연 야외조의식장에서 어떤 감정으로 받아안았  
던가.

사랑을 느꼈다. 저 하늘의 해빛처럼 순간에 와  
닿는 따뜻한 정을 느꼈다.

그 사랑, 그 정을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시  
는것으로 무겁게, 정중히 받아안았다.

오,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심장을 뚫이시  
는 인민의 어버이이시여!

영결식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주 떠나  
가신것이 아니라 우리곁으로 더 가까이 오셨듯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은 우리 매 가정에,  
우리 매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와닿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이어나가신다는것을  
우리는 피눈물의 애도기간에 두눈으로 똑똑히 보  
았고 심장으로 열렬히 체험했으며 온몸으로 사무  
치게 감수했다.

우리는 피눈물나는 애도의 나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리상이 어떤것인가를 슬픔의 눈물속  
에서, 사랑과 정의 세계에서 더 잘 알게 되었다.



# 서 리 꽃

리 광 규

산에 들에 피는 꽃들은  
하얀 눈속에 잠들고  
따뜻한 봄철은 앞에 있건만  
서리꽃 네 어이 이 한겨울에 피어  
이 마음 사로잡느냐  
이 마음속에 한떨기  
그리움의 꽃을 활짝 피워주느냐

2월의 눈계절이  
네 삶의 요람이었더냐  
화려한 꽃들이 삶을 즐기는  
화창한 봄을 두고  
어이하여 너는  
이 한겨울에 피어  
그리도 황홀히 빛을 뿌리는것이나

하늘에 피어 진주의 보라인가  
대지에 수놓아 은구슬인가  
찬서리 눈보라를 이기는  
강의한 의지 아니고서야  
어이 네가 필수 있으랴

순간을 피여도  
백날을 피여도  
변함없는 한모습  
저 하늘의 은하수를 기울여  
이 땅우에 휘뿌려놓은  
인민들의 깨끗한 마음의 꽃인가

70년전 2월의 그날  
항일의 투사들 기쁨에 넘쳐

백두광명성탄생의 환희를  
2월의 하늘가에 터쳐올릴 때  
백두의 축복인양 더욱 활짝 피어웃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인 서리꽃이어

그 누가 서리꽃에  
뿌리 없다 하였던가  
화창한 봄날의 꽃들이  
어머니대지의 즙을 빨며  
화려한 꽃으로 피어 웃을 때

너는 그 꽃을 피워준  
신군태양 우러러  
한겨울에도  
봄을 먼저 숨쉬는  
그 녀에 뿌리내린 꽃

항일의 설한풍속에서  
조국의 첫 기슭에 피어난 서리꽃  
항일대전의 불바람 마시며  
고이 간직한 혁명절개 지켜 변함없는  
백두의 꽃이어

오, 백두의 서리꽃  
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담아 피어난  
너로 하여  
내 조국의 2월은  
가장 환희롭고 영광넘친 봄계절  
영원한 봄계절이어라

진정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리상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리상이라는것을 운명적인 그 나날에 시시각각 절감한 우리들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더욱 가까와졌고 그이의 심장의 박동이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심장의 박동이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절세의 위인의 심장의 박동에 우리 박동 맞추고 **김정은**장군의 팔을 끼고 어깨걸고 주저없이 용감하게 달려나가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한 강성부흥의 시간표를 쉬임없이 짜나가신다.

그 시간표가 신속정확히 실행되도록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고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천만고생과 바꾼 소중한 오늘을 위해, 그이의 리상, 인민의 리상이 더 활짝 꽃피날 우리의 아름다운 태일을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그이의 심장의 박동소리 들으며 힘을 얻었고 그이의 힘찬 발걸음소리 들으며 용기백배해진 우리의 기세 충천하다.

우리의 앞날도 밝고 창창하다.

영원히 **김정은**동지따라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의 씩씩한 발걸음으로 온 세계를 앞서나가자!

## 위대한 아버지의 동상을 모시지 못한 사연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의 곡성을 터뜨리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하고 목놓아 찾고불렀다.

우리 인민은 어찌하여 아버지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을 받아안고 세세년년 복락을 누리면서도 그이의 동상 하나 잘 모시지 못하였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지 못한 불효하기 그지없는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가슴치는 통탄이 아버지장군님의 태양상이 모셔진 **김일성**광장과 평양체육관, 4.25문화회관,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들에서, 각 도소재지들마다에서 비애의 바다를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우리 정령 다 알고있었던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것을 그토록 반대하시며 일군들을 질책하신 피눈물나는 력사의 그 사연을...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는것은 주체88(1999)년에 이르러 더는 미룰수 없는 전체 조선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요구로 제기되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건결히 수호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만년대계의 기념비로 높이 칭송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도덕적의무의 발현이였다.

몇해후에 맞게 되는 아버지장군님의 탄생 6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세울것을 간절히 바라는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편지가 당중앙위원회에 수많은 쌓여졌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게 되었으니 이체는 여한이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동상건립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전세계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과 자주와 평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도 자기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은 제의서들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

만수대창작사에서는 삼지연지구에 모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초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당중앙위원회에 올리였다.

그때마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그 자그마한 요소도 불허하시였으며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것을 절대로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이 나의 의도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일하는것 같지 않다고 준절하게 질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안타까운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에게는 지금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생각밖에 없는데 무엇때문에 내가 바라지도 않는 동상을 세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전사로서 수령님의 필생의 뜻을 이어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야 할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다고, 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다 실천하자면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 조국통일문제를 비롯하여 아직 중대한 과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생일 60돐이라고 하여 나의 동상을 세운다면 내 립장이 어떻게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의사를 단호히 일축해버리시였다.

인민의 소원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겸허한분이시였으면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그렇게도 굳이 사양하시였으랴. 명당자리마다에는 인민의 극장, 인민의 궁전, 인민의 살림집을 보란듯이 일떠세워주시고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에 이바지한 투사들과 시대의 영웅들, 애국렬사들의 동상을 세우도록 하시고 청년들을 위한 기념탑을 세워주신 장군님이시였다.

정녕 우리 장군님은 사상과 품모, 도덕의리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 닮으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이시였다.

이런 사실들을 대국상의 나날에야 비로소 알게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인민을 위해서는 한생을 깡그리 다 바치시면서도 인민들로부터 그 어떤 명예도 칭호도 바라지 않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겸허하고 인민적이며 인류력사에 두번다시 없을 위인중의 위인,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이시였다는것을 비통하게 절감하였다.

늘 크나큰 사업부담을 안고계시면서도 끝없이 덧쌓여지는 일감을 미루시고 언제한번 편히 쉬여보신적 없는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이 나라 인민은 절통함을 금치 못해하며 슬픔에 몸부림쳤던 것이다.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삼천리강산에 강성부흥의

#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한 원 희

한없이 숭엄한 광명성절 이 아침  
백두의 맑은 정기 고요히 피어나는  
고향집뜨락가에  
내 삼가 옷깃을 여미고 들어선다

그지없이 경건해지는 마음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위업을 칭송하신  
아버이수령님의 송시비문을 더듬으니  
가슴가득 눈시울 뜨거이 어려온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림고그리운  
우리 장군님의 영상이여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선뎡인가고  
**김정일**동지 우리러 터치는 환호성이  
온 세상 천지를 뒤흔든다 하신  
그날의 그 송시 소중히 안으니  
고향집 하늘가득 어려온다  
세월이 간대도 잊을수 없는  
우리 장군님 태양의 미소가

수령님 송시를 지으시던 그날부터  
년대와 년대를 지나  
세기와 세기를 넘어 맞는  
우리 장군님의 뜻깊은 탄생일  
장군님을 잃은 오늘  
아버이수령님 지으신 그날의 송시가  
더더욱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누나  
장군님 불멸의 업적이 위대한 한생이  
사무치게 어려와

어이 그리도 장군님 뵈고싶은가  
년대와 년대를 넘어넘어  
고난과 시련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찬란한 미래에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던  
우리의 장군님

아버이수령님 물려주신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안으시고  
폭풍만리 걸으시는 그 자욱마다에  
눈부신 기적을 쌓아올리신

나라를 일떠세우는것은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최대의 숙원이였다.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부강조국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데 한몫 다 바쳐나가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전체 조선민족의 심장 속에 자자구구 깨우쳐주시며 우리 장군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고계신다.

무적필승의 선군령장

우리 장군님 아니셨다면  
우리 어찌 사나운 제국주의무리를 짓부셔버리며  
백전백승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랴  
자기 힘으로 자기식으로 기적을 창조하며  
최첨단과학기술로 세계를 내다보며  
아버이수령님념원을 꽃피울수 있었으랴

쏟아져내리는 주체철쇠물  
흰구름처럼 내려쌓이는 비날론숨  
일망무제 아득히 펼쳐진 간석지 새땅  
산악같이 일떠선 발전소언제들  
이 땅에 굽이치는 창조와 천지개벽들은  
우리 장군님 헌신으로 이룩하신것 아니었던가

세상만사를 꿰뚫으시고  
백년천년 앞날을 내다보신 그이  
심장을 다 바치신 그 위대한 생애에 받들려  
우리의 강성국가는 세계우에 솟아오르리라  
솟아올라 위훈의 상상봉에 솟아올라  
**김일성**민족의 영광스러운 100년사를  
온 세상에 자랑높이 펼치려니

그이는 영원한 승리의 기치  
그이는 인민의 만복을 주렁지우는  
은혜로운 태양  
우리러받들고 따르고따를수록  
영원토록 우리러받들고 따르고싶은  
우리의 태양

2월의 이 아침  
내 삼가 인민의 소원을 다 담아  
다함없는 영생기원의 큰절을 드리노라  
우리의 영원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불멸의 업적  
바치신 위대한 생애  
아버이수령님 송시와 더불어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길이 빛나리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강성부흥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기어이 통일된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펼쳐나가자!

# 사진에 깃든 이야기



석 남 진

## 1

군중의 열광적인 환호로 들끓던 함흥대극장앞 광장은 점차 뒤로 멀어지고 승용차는 도로를 타고 남쪽방향으로 천천히 내달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창가에 흰 꽃잎처럼 흩날리는 물기 많은 봄눈을 바라보시며 그 어떤 아쉬운 심정에 잠겨계시었다.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의 준공을 경축하기 위해 광장에 모여 와 꽃다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던 함흥시민들과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싶으시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더 할바를 못한것처럼 느껴지기도 하 시었다.

무엇때문일까? 좁전에 들은 말들이 되새겨지 시었다.

장군님께서 군중대회가 끝난 다음 함흥대극장에서 대회에 참가하였던 당과 국가의 간부들,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잠깐 자리를 같이하시였었다. 여러가지 말들이 오고갔는데 그중에는 어제 진행된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과 관련한 표창식을 두고 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한 소리도 있었다. 단번에 74명이나 되는 혁신자들이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사실을 두고 온 함흥시가 끓고있다는것이였다.

어찌 함흥시뿐이겠는가.

2.8비날론련합기업소 지배인은 오늘 아침 서해안의 한 도시에서 기업소로 전화가 걸려온 이야기를 하였다.

딸네 집에 나들이를 가있던 한 어머니가 오늘 아침 표창식에 대한 방송보도를 듣다가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사람들속에서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깜짝 놀랐다고 한다. 혹시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아닐가 하는 의혹이 생겼다. 그래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 아들은 군중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함흥시내로 떠난 뒤여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지배인은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늦게 떠나다보니 그 전화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이 컴퓨터운영원 조영근동무인데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댔다는 말을 듣고는 <어머니가 그럴수 있습니다, 나도 자신이 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뭐.> 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점차 속도를 내어 달 리었다.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거리를 지나고 다리를 건넜다. 홍남방향으로 뻗은 도로를 타고 달리느라니 저앞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 굴뚝들이 보이고 눈썹이 날리는 속에 카바이드전기로의 화광이 언뜻거리어었다. 척 보기에다 비날론공장의 거센 숨결이 느껴진다.

(숨이 죽었던 비날론공장이 다시 현대적으로 일떠선것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닌가. 그러니 그 표창식이 어찌 평범할수 있겠는가.)

문득 서해안의 먼곳에서 전화를 걸어왔다는 그 녀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시었다.

(조영근의 어머니라고 했지.)

장군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리었다. 그는 장군님께서도 잘 아시는 녀인이였다.

... 1960년대 중엽의 어느날이였다. 당시 비날론 공장에서는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었다.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현지도도가 있는 때로부터 약 두달후에 노동자, 기술자들을 고무하고 힘을 주시려고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장군님께서 공장 기사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구내길을 걸으시였다.

알데히드직장(당시)을 거쳐 합성직장에 이르는 장군님께서는 합성탑을 돌아보시느라니 수령님과 함께 이곳을 찾아오시였던 몇년전의 일이 떠오르시였다. 당시 합성생산공정이 말썽을 일으켜 일꾼들은 직장을 찾으신 수령님앞에 머리를 쳐들지 못하였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였던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고있소, 그러니 수월치 않을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것이며 기어코 이길것이요라고 하시며 일꾼들을 고무하여주시였다.

그 말씀이 옳았다. 합성탑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있지 않는가.

장군님을 안내하던 기사장이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후 기술자들이 기술공정을 대담하게 개조하여 현대화를 실현한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잘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아시면 기뻐하실겁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2층의 로천계단에 나서시였다.

이때 치마저고리차림에 애기를 업은 한 젊은 여인을 만나게 되시였다. 여인은 공장기사장을 비롯한 여러명의 일꾼들을 보자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옆으로 비켜섰다. 장군님을 처음 뵈게 된 여인은 단지 중앙에서 내려온 간부로만 짐작하고있었다.

《어떻게 얘기여머니가 공장에 나왔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시고 물으시였다.

자그마하고 아리잠직하게 생긴 여인은 얼굴을 붉히면서 머뭇거리였다. 옆에서 직장장이 나서서 말씀드리였다.

《이 아주머니는 합성직장 공정기사인 조명호동무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직장장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아주머니, 어서 무슨 일인지 말씀올리시오.》

그제서야 여인은 저즈기 부끄럼을 타며 약간 드러나보이는 앞이로 잘근잘근 깨물던 입술을 벌리였다.

《실은 오늘이 우리 애 돌생일입니다. 돌사진을 찍어야겠는데 며칠전부터 애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돌생일인데 아버지가 없다? 그거 야단났구만.》

장군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애이름이 뭐니까? 조영근이... 영근이 아버지가 아버지구실을 잘못하는것 같군요. 아들의 돌잔치를 하는데도 공장에 붙어있단 말입니까?》

《그 동무가 보통열성이 아닙니다. 이번에 기술공정을 개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

를 한 동무입니다.》

《아, 그 합성생산공정을 현대화한것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큰일을 한 동무구만, 한번 만나봅시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애타게 기다린다고 전달하면 달려나오겠지요.》

잠시후에 조영근의 아버지가 급히 달려나왔다. 얼굴색이 해별에 탄것처럼 감스레한 곱살하게 생긴 사람이였다.

《영근이 아버지입니까?》

장군님께서 소탈하게 웃으시며 물으시자 조명호는 송구한 어조로 그렇다고 대답올리였다.

《아들이 돌잔치를 하는데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자고 모두 떨쳐나섰는데... 제 가정일만 생각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붉히며 혼자말처럼 아뢰이는 조명호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알릴듯 말듯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이번에 공정기사동무가 기술혁신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조명호가 자기의 지난날에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조명호는 화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리승기박사가 분원장으로 있는 과학원 화학분원에 배치받았다. 당시 화학분원은 조국의 서북단에 자리잡고있었다. 그는 리승기박사가 지도하는 연구실의 조수로 일하면서 비날론중간공장에서 생산실습도 받았다.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속에 대규모의 비날론공장이 조업하면서 연구집단은 함흥으로 옮겨왔고 많은 기술자들이 새로 일떠선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명호는 합성직장에 배치되어 일하면서 공장대학에서 공부하고 기사가 되었다.

《그러니 비날론공업의 발전속에서 기사로 성장한셈이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견한 눈길로 조명호를 바라보시였다.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있는 비날론, 이 비날론의 공업화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부대를 낳았다. 장군님께서서는 비날론공장이 조업한 후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파정에 조명호와 같은 젊은 기술자들이 공장관리운영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음을 여러차례 목격하신바가 있었다.

한 과학자의 발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였으며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연구사업조건을 다 보장해주도록 하신 수령님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가슴을 뜨겁게 한다. 그

준엄한 년대로부터 세월은 얼마나 멀리 흘러왔는가. 오늘은 젊은 기술자들이 비날론공업을 떠메고 전진해나가고있다.

《앞으로 우리의 비날론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믿음과 기대가 어린 말씀을 하신 장군님께서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하시였다.

《그러나 생활은 생활입니다. 혁명은 하루이틀에 끝나지 않으며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공장에서 침식을 하며 일을 하는것이 좋은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발전시켜 단위당시간내에 일을 많이 하고 퇴근후에는 문화사업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귀한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첫돌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 집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아이가 울어대기 시작하였다.

《저것 보시오. 애가 빨리 집에 가자고 울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아이를 추스르며 달래는 녀인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시여 녀인의 등에 업힌 애기를 들어다보시였다. 땀에 젖어 이마전에 착 달라붙은 하들하들한 머리칼이며 티없이 깨끗해보이는 새까만 두눈, 오흘한 코며 하 벌린 앙증한 입, 애가 참으로 귀여웠다.

그이께서는 애의 젖살이 보뚱보뚱 오른 발그레한 뺨을 살그머니 손가락으로 도닥이면서 열리시였다.

《울지 말아, 이제 아버지가 너의 돌생일을 축하해주러 집으로 간단다.》

장군님의 말씀과 애무에서 신비한 그 무엇을 느꼈는지 애는 놀랍게도 울음을 툇 그치였다.

《이것 보시오. 이 애가 내 말을 다 알아듣는구만. 응? 허허허... 얼마나 영특한 애요?》

그이께서는 통을 하시며 소탈하게 웃으시였다.

애와 애의 부모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지시였다.

그이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속에서 사진기를 들고 있는 일군을 부르시여 승용차를 타고 함께 가서 돌사진을 찍어주고 오라고 하시였다.

《사진이란 변함없이 생동하게 살아있는 추억이라고 할수 있을거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념해야 할 일이 생기면 흔히 사진을 찍는거지. 이 애가 후날에 커서 돌생일사진을 즐기 볼수 있게 잘 찍어주시오.》

그이께서는 승용차에 오르면서 송구스러워하는 녀인의 등에서 언제 울었단가싶게 해죽이 웃고 있는 애의 볼을 다시한번 쓸어주시였다.

《영근아, 좋은 세월에 무럭무럭 크거라.》...

(사람의 인연이란 참...)

차창가에는 물기많은 봄눈이 쌀쌀한 바람에 홀날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 옆좌석에 앉아있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인 신영하에게 물으시였다.

《비날론공장 혁신자들을 위한 행사준비는 다 되었소?》

《예.》

신영하는 장군님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씀올리였다.

《오후에는 무도회를 하고 중앙과 도의 예술인들이 준비한 경축공연을 관람하게 되며 저녁에는 신흥관과 마전호텔에 갈라져가서 환영연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1961년도 비날론공장의 준공을 경축하는 군중대회가 있는 그날에도 경축연회가 있었지. 그때는 섬유직장 하조장에서 연회를 차렸댔소.》

장군님께서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몸소 연회에 참가하시여 건설자들을 위해 축하를 드시였소. 그날 수령님께선 만시름을 잊으신듯 밝게 웃으시였소. 수령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오.》

장군님의 목소리는 어느새인가 갈려있었다. 수령님께서 오늘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면서 눈곱이 젖어드는것이였다.

《내가 오늘 저녁 경축연회에 참가한다면 수령님 생각에 자신을 건잡지 못할것만 같소. 동무야 내 심정을 알겠지?》

《알고있습니다.》

신영하는 축축해지는 두눈을 스며버리였다.

장군님께 있어서 비날론은 곧 수령님의 비날론이였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16년만에 비날론이 다시 쏟아지는것이 그리도 기쁘신것이였고 그래서 한달전 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떠나면서 수령님께서 계시는 금수산 기념궁전에 가져가려고 비날론섬유를 승용차에 싣게 하신것이 아니었던가.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의 준공을 앞두고 2.8비날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에게 특별감사를 보내주시고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하여 높은 급의 국가수훈을 안겨주도록 하신것도, 함흥시군중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아침 함경북도를 떠나 수백리길을 달려오시여 수령님께서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에 참가하시였던 그날처럼 주석단에 서시여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신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니었던가.

《아무래도 동무가 여기 떨어져야 할것 같소.》

장군님께서 신영하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



었다.

《마지막까지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봐주고 오시오.》

《알겠습니다.》

신영하가 차에서 내리고 승용차는 살같이 내달리었다.

## 2

이날 오후 장군님께서서는 함경남도의 농촌들을 돌아보시면서 도안의 농사준비정형들을 료해하시였다.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하였다. 비날론공장이 힘차게 돌아가니 경공업부문은 점차 활기를 띠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들이 잘살게 될 날은 결코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신심을 더욱더 굳게 가지시며 간이역에 세워져있는 렬차로 돌아오시였다.

저녁녘 장군님께서서는 렬차안에서 문건들을 보기 시작하시였다.

온 나라 곳곳에서 세차게 일어나는 대고조의 열풍이 문건의 글줄들에서 확확 내뿜기는듯싶으시였다.

문건들중에는 어느 한 나라 통신이 보도한 내용도 들어있었다.

《…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였음을 자랑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제는 비록스법철생산체계의 완성으로 세계야금계를 뒤흔들어놓더니 오늘은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다시 일떠세우고 비날론폭포를 쏟아놓아 세상을 다시한번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들이 놀라는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 인민의 지혜와 정신력을 그들이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이윽고 다른 문건을 손에 드시었는데 그것은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어제 진행된 표창식에 대한 반영자료였다.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사람들의 감격은 하늘에 닿을만큼 높았다. 영웅들은 누구나 더 큰 위훈을 세워 당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있었다. 조영근이라는 이름이 그이의 눈에 띄이였다.

(1960년대 중엽에 돌을 맞던 그 애가 오늘날엔 영웅이 되였군.)

장군님의 입가에는 감회깊은 미소가 어리였다. …한달전에 있던 일이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현대화된 비날론생산공정의 시운전을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만사를 뒤로 미루시고 기업소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날론생산지구사판을 보

아주시면서 지배인으로부터 해설을 들으시였다.

《… 이렇게 12개 공정을 새롭게 건설하거나 개진하여 비날론생산공정을 전부 살릴데 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하게 되였습니다.》

지배인이 보고를 끝내자 장군님께서서는 만족의 웃음을 지으시였다.

《수고했소. 끝내 해냈단 말이지. 지난해초에 내가 명령을 줄 때는 아마 아팠을거요. 특히나 기사장동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겠지. 그러나 난 동무들이 결심하고 달라붙는다면 능히 해낼수 있으리라고 믿었댔소.》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개진된 공정들의 모습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을 보아주시고 제품견본진렬대도 돌아보시고나서 밖으로 나오시였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압살책동의 후파로 덮여섰던 비날론생산공정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사실은 장군님의 심중에 크나큰 감회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공장에 수십여차례나 찾아오시였던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장군님께서서는 눈에 띄는 모든 직장건물이며 구내도로에서 뜨겁게 안아보고계시였다.

합성생산공정이며 중합생산공정이며… 그 모든것이 이전의 그 위치에 자리잡고있었다.

장군님께서 비날론공업을 현대화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고 찾아오시였던 몇년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낡은 건물들뿐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건물도 새로 지은것처럼 미끈해보이였고 건물밖으로 솟아올라 은빛을 발산하는 합성탑이며 정류탑들 그리고 붉은색, 노란색, 풀색으로 도색을 한 저장탱크며 배관들은 생신하고 경쾌한감을 주었다.

《공장이 몰라보게 달라졌소. 멋있단 말이요. 사람으로 말하면 미남자가 되었다고 할수 있소.》

장군님께서 치하의 말씀을 하시자 지배인이 성수가 나서 싱글거리였다.

《공장을 돌아본 사람들이 여기 중합직장이나 합성직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고있습니다. 어떤 사진기자는 예술사진을 만든다고 몇번이나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이젠 온 세상에 대고 비날론공장자랑을 해도 될거요.》

사진에 대한 말을 듣느라니 언제인가 합성직장에서 돌을 맞는 얘기를 엮은 녀인과 그의 남편을 만났던 일이 불쑥 떠오르시였다.

(내가 사진사를 보내 돌사진을 찍어주게 했었지. 후날 그 애의 돌사진을 본 생각이 난다.)

장군님의 세계에서 볼 때 그것은 현지지도의 길에서 있는 많은 일화들중 하나의 세부에 불과한것이였다. 그때로부터 40여년… 더우기 수령님께서

서거하시고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오늘까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준엄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이 겹겹마다 제기되어 60년대 중엽 합성직장에서 조영근의 부모를 만났던 그 추억은 자연히 희미해지게 되었는데 이날에 어제일처럼 또렷이 되살아오르면서 가슴이 후터워지는 것이었다.

장군님께서 합성직장에 들어서시여 이번에 개진된 초산비닐합성공정과 정류공정을 돌아보시었다.

운전조작실에 들리니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마주앉아있었다.

지난날에는 자동화계기판들이 벽 한면을 가득히 채우고있었고 운전공들이 그 계기판들을 감시하면서 생산공정을 돌렸었다.

이제는 모든 생산공정이 컴퓨터화되었다. 이것은 화학공업의 현대화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60년대 중엽 여기서 그 애기 아버지가 합성생산공정의 기술혁신을 해서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공정기사도 오늘의 컴퓨터화에 대해서는 당시엔 상상도 하지 못했을것이다.

(그 공정기사가 살아있다면 아마 70고개를 넘겼을것이다. 그 애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잠시후 장군님께서 합성직장을 나서시여 그걸의 중합직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탑과 판, 저장탱크들로 이루어진 설비들의 동음속에 시급한 초산냄새와 중합물냄새가 풍겨오는 건물안에 들어서시여 2층의 어느 한 운전조작실을 돌아보시었다.

《여기가 검화공정조작실입니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여기서도 모든 공정들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지배인의 설명을 들으시며 조작실에 놓여진 컴퓨터화면을 들여다보시었다. 세명의 운전공들이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지배인이 그중의 한명을 장군님앞에 내세웠다.

《이 동무가 기업소 자동화와 컴퓨터운영원인데 이번에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컴퓨터운영원은 나이가 마흔남짓해보이고 준수한 얼굴이 유난히 총명해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한번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었다.

《큰일을 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누구에게라없이 치하의 말씀을 하시고나서 물으시었다.

《그런데 컴퓨터전문가가 왜 운전조작실에 와있습니까?》

《최첨단을 돌파하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중합직장에 설치한 컴퓨터화의 수준을 한계단 더 올릴 작상을 하였는데 그 실현을 위해 현

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자만을 모르고 내달리는셈이구만.》

장군님께서 잠시 그를 미답게 바라보시었다. 그의 동그스름한 얼굴에 어쭙어하는 미소가 약간 어리었다. 무엇이 안타까운듯 두손을 마주잡고 비튼다. 몸둘바를 몰라하는듯 한 그의 모양이 친근하게 안겨오시었다. 어쨌든 저 동작이 언제인가 본것처럼 느껴지시었다.

《화학생산공정의 현대화는 첨단기술이며 하나의 발견이나 같습니다. 이걸 기업소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해냈다는것은 대단합니다.》

지배인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올리었다.

《우리 기업소 컴퓨터기술자들은 대체로 공장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동무도 공장대학졸업생입니다.》

《공장대학졸업생이라... 60년대 중엽에 합성직장에서 만났던 공정기사도 공장대학졸업생이었지.》 하고 혼자말씀처럼 뇌이신 장군님께서 계속하시었다.

《문제는 어떻게 마음먹고 공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거요.》

장군님께서 문득 자기와 마주서있는 컴퓨터운영원의 두눈에 눈물이 어리였음을 발견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의아함을 느끼시면서 물으시었다.

《그때 동무는 언제 공장대학을 다니었소?》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7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2001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때는 비날론생산공정이 몇어버렸던 때였지.》

장군님께서 어쨌든 생각이 깊어지시여 대견하게 컴퓨터운영원을 바라보시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동무는 신심을 잃지 않고 공부를 했구만.》

《아버지는 저에게 힘들어도 대학공부를 해야 한다고, 비날론공장은 장군님께서 계시여 반드시 돌아가니 현대적인 기술로 비날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선이 확고한 사람이구만. 아버지도 비날론공장 종업원이었소?》

《예, 아버지는...》

컴퓨터운영원은 머리를 숙이었다. 이윽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두볼로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아버지는 합성직장 책임기사였습니다. 60년대에는 공정기사였습니다. 1967년에 어머니는 돌을 맞는 저를 업고 아버지를 찾아 직장에 나왔다가...》

장군님께서 찌릿한 감정이 온몸으로 줄달음침을 느끼면서 오른손으로 운영원의 어깨를 가볍게 치시었다.

《그러니 동무였구만. 그때 돌생일을 맞던 애기가 이렇게 컸단 말이지. 이름이 뭐든가?》

《조영근이라고 합니다.》

그가 숨이 찬 어조로 말씀드리었다.

《그래. 맞아, 조영근이라고 했겠지. 아버지가 집에 앉아계시오?》

《고난의 행군시기 공장에서 순직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조영근의 아버지의 젊은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솟구치는 걱정을 애써 누르고 계시었다.

희생도 있었고 가슴저미는 슬픔과 아픔도 많았던 그 고난의 행군의 나날들이 떠오르시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 주위의 일군들에게로 눈길을 돌리시며 40여년전 합성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시었다.

그러시고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있는 조영근에게 다정히 물으시었다.

《그래 어머니는 계시오?》

《어머니는 정정하십니다. 어머니는 장군님을 만나뵈왔던 그날의 영광을 잊지 못해 늘 이야기하곤 합니다.》

영근은 자기가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던 일을 숨김없이 말씀드리었다.

영근은 3년전까지만 해도 공장생활에 안착이 되지 못해 우울해있었다.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여 사회동원을 많이 다니는데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 몇명이 공장을 떠나가버렸다.

《어머니, 정말 손땀이 풀려요. 공장이 멋어선지도 이젠 10년이 넘었어요. 다들 전망이 없다고 해요. 나도 다른데 가볼가요? 내가 이래봐도 컴퓨터분야에서는 공장적으로도 짝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난 어떤 기업소에 가도 당당히 한몫 할 수 있어요.》

영근은 너무 속이 상해 어머니에게 엇드레질을 해보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몹시도 노여워하곤 하였다.

《아무리 속이 탄다고 해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떠나가도 너만은 비날론공장을 지켜야 해. 장군님께서 네 돌사진을 찍어주게 하신 일을, 네 불을 쏘어주시며 앞날을 축복해주시 그 사실을 잊었던 말이지! 장군님께서 그때 네가 어서 커서 나라의 기둥감이 되기를 바라셨단다.》

네 아버지도 일터에서 순직하면서 대를 이어 비날론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지 않았느냐.》

영근은 눈물이 그렁하여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요. 정말이지 내가 어떻게 공장을 쉽게 떠날수가 있겠어요.》

《장군님께서 꼭 비날론공장을 되살려주실거다.

네 아버지도 늘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로부터 며칠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숨이 죽은 비날론중간체공정들을 복구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공장복구에서 걸리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었다.

온 공장 사람들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어머니는 밥을 싸가지고 현장으로 저를 찾아와서 힘을 주곤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장군님께서 새 기술을 내놓은것을 보시면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저더러 컴퓨터기술로 비날론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고무해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장군님을 만나뵈온것을 안다면 어머니는 감격하여 울것입니다.》

장군님께서 조영근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나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어머니에게 내 인사를 전해주시오. 내가 아들을 잘 키웠다고 하더라도 하시오.》

그러시고는 큰 목소리로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동무들은 비날론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면서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강의한 민족인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수령의 업적을 고수하는가를 비날론의 폭포로 보여주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조영근에게 눈길을 돌리시었다.

《비날론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이 정말 마음에 드요. 일 잘하는 동무들에게 뭘해준 다?》

《장군님, 전 집에 장군님의 사랑이 깃든 돌사진을 걸어놓고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막 힘이 납니다.》

흥분한 조영근의 동문서답격의 대답에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영근동무의 돌사진이라면 내가 한번 본 일이 있지. 그때 사진사동무가 돌아와서 애기가 너무 울어서 땀꺼나 흘렸다고 하던게 기억나오. 나와 헤어질 땐 해죽해죽 웃더니 집에 가선 그렇게 애를 먹였다더군. 아마 영근동무가 꽤 울보였던것 같애.》

영근이 얼굴을 붉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즐겁게 웃음을 터치었다.

장군님께서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계속하시었다.

《이번에 우리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구. 후날에도 오늘을 즐겁게 추억할수 있게 멋쟁이로 일떠선 공장을 배경으로 찍잔 말ियो.》

장군님께서 공장지배인과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돌아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비날론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데 공로가 있는 노동자, 기술자들을 다 부르시오. 공장을 돌아본 다음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어제 진행된 표창식에 대한 반영자료를 다 보시고나서 다른 문건을 손에 드시었다. 그러나 여전히 눈앞에서는 한달전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조영근을 비롯한 혁신자들의 모습이 얼른거리는 것이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더 해줄게 없을까?)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차창을 조금 열어놓으시었다.

어둠속에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 나무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차창가에 대이신 손에 찬기운이 느껴진다. 아직도 날씨는 차다. 북방의 산들엔 지금 흰눈이 덮여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일을 더 처리하시고나서는 밤중으로 열차를 타고 떠나야 하였다. 머나먼 북방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그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새 열차행군을 하여 래일 아침에는 그곳에서 일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시각 마음은 그냥 2.8비날론련합기업소로 향해지는데 어찌할 수 없으시었다.

(이제는 경축연회도 끝났겠지. 신영하동무가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은데…)

### 3

신영하가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좀 지나서였다. 60고개에 올라섰으나 아직 흰 머리칼 한오리 찾아볼 수 없게 젊어보이는 그는 무도회로부터 경축연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정치적의의가 있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었다.

《그래 행사참가자들이 다 좋아하오?》

《예, 로력영웅들을 비롯해서 모든 혁신자들은 그저 감격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면서…》

신영하는 걱정에 찬 목소리로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쑤올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조용히 말쑤하시었다.

《내 조금전에 그들이 국가표창을 받고 쓴 반영문들을 읽어보았소. 다 분에 넘치는 평가라고 들하는데… 내 심정은 그렇지 않구만. 뭔가 아직은 아쉽거던.》

신영하는 감격하여 목이 메어버렸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정말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었습니다. 이제

더 무엇을 아쉬워하신단 말입니까.)

그의 심장은 이렇게 소리높이 뛰치고 있었으나 종시 입밖에 내지 못하고 눈만 습벽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혼자말씀처럼 나직이 뇌이시었다.

《비날론공장의 영웅들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고싶소.》

장군님께서서는 캄캄한 창밖을 바라보시었다. 미더운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듯 그이의 입가에 미소가 어리었다.

《참, 얼마나 소박한 사람들이요. 우리 영웅들은 자기가 영웅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하고… 그들의 친척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란단 말이요. 허허허… 그러니 어땡소? 아무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소?》

《장군님, 비날론공장 영웅들의 사진을 찍어 신문에 내면…》

장군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고 친근한 눈길로 신영하를 돌아보시었다.

《웁소, 내 생각도 그거요. 동무가 내 심정을 알아주는구만. 고맙소.》

《장군님, 어찌면…》

신영하는 격동되어 말을 더 이을 수가 없었다.

《비날론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긍지요. 우리 영웅들은 민족의 자랑과 긍지를 위해 힘과 지혜를 다 바쳤소. 난 이 비날론영웅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고싶소. 영웅들의 사진을 크게 찍어 신문들에 실어야겠소. 사진을 실어도 크게 실잔 말이요. 수훈소식란에 이름이나 실어서는 부족하지. 사진을 찍어 우리 당력사에 뚜렷이, 그 모습들을 남겨야 하오.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세상에 떨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주고싶단 말이요.》

장군님께서서는 따뜻한 미소를 띄우시었다.

《나도 조영근이랑… 모든 영웅들의 자랑스런 모습을 보고싶소.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 영웅들의 부모처자, 친척친우들이 다 좋아할거요. 조영근의 어머니도 사진을 본다면 기뻐할거요. 아들이 영웅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전화를 걸어왔었다는 그 일이 자꾸 떠오르는구만.》

신영하의 두눈에는 눈물이 맺히었다. 그는 목이 짹 메여 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 4

새벽 1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달리는 열차안에서 보시던 문건들을 미루어놓고 비날론공장 로력영웅들의 사진을 보아주시었

다. 그이의 곁에는 영웅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 다녀온 신영하가 서 있었다.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고 사진을 주의깊이 들여다보시는 그이의 얼굴에는 더없이 친근한 아버지의 정이 흘러넘치였다. 그이께 있어서 이렇게 미더운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때가 그지없이 기쁜 시간이였다. 하여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말없이 마음속으로 정을 나누시는 이런 시간을 즐기시는것이였다.

1960년대 중엽 조영근의 둘사진을 찍어주게 하시고 후날 그 사진을 보던 일이 추억되시였다.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사진사가 보기도문 울보라고 하던 그 어린애와 부모들의 앞날을 마음속으로 축복하시였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한달전 조영근을 비롯한 공장의 혁신자들과 찍으신 기념사진을 보시던 일도 머리속에 떠올리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바치실 결심을 더 굳히시였다.

《우리 영웅들이 모두 잘났소. 다 애국자들인데 어찌 풍격이 고상하지 않겠소. 이런 영웅들이 끝없이 태어나기에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은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될거요.》

신영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면서 신홍관이며 마친 호텔들에서 진행된 연회에서 목격한 눈물겨운 장면들을 생각하였다.

《장군님이 없으면 비날론공장도 없고 우리들의 존재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장군님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었었다.

연회가 끝나서 집으로 흩어져갔다가 사진을 찍기 위해 공장으로 모여온 영웅들은 다시금 장군님의 사랑에 눈물을 머금었다. 그들이 자꾸 울어서 신영하는 얼마나 애가 났던가.

《모두 웃어야 합니다. 울지 말고 웃어야 사진이 잘됩니다.》

하고 말하는 영하도 몇번이고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아내야 하였다.

《자, 진정들 합시다. 장군님께서 지금 이 시각도 쉬지 못하시고 영웅들의 사진을 기다리고계십니다.》

영하는 눈물을 흘리는 영웅들을 진정케 하느라 애를 썼고 사진기자들은 여러번 셔타를 눌러서야 겨우 영웅들의 가장 좋은 모습을 찍어낼수 있었다.

조영근은 신영하와 헤어지면서 말하였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정과 사랑에도 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군님의 사랑은 정녕 끝이 없습니다.》

장군님을 우러르는 신영하의 머리속에서는 이상

하게도 조영근이 하던 눈물젖은 그 말만이 계속 반복하여 울리였다.

《장군님, 이제 쉬어주십시오.》

신영하는 겨우 한마디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신영하의 말을 못 들으신듯 혼자 말쑤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수령님께서 살아계시여 우리 영웅들의 모습을 보시였더라면...》

마침내 신영하는 흑 하고 흐느껴울었다. 막 쏟아지는 눈물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누른채 차창을 향해 돌아섰다.

달그락, 달그락...

렬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있었다.

이제 몇시간후이면 날이 흰히 밝을것이고 온 나라 인민들은 아침신문을 받아보게 될것이다. 그 신문들에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력영웅들의 사진이 크게 실리게 될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사람들이 깊은 단잠에 들어있는 그 시간... 북쪽방향으로 어둠속을 질주하는 렬차의 창문들에는 그냥 밝은 불빛이 흐르고있었다.

×

백발의 녀인은 영웅들의 사진이 실린 신문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지었다.

(아들아, 네가 정말 영웅이 되었구나.)

녀인은 장군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영웅들의 사진을 찍어 신문에 실게 하였다고 굳게 믿고있었다. 장군님을 떠나서는 이런 신비스런 일이 결코 창조될수가 없는것이다!

어머니는 영웅이 된 아들을 껴안아주고싶어 몸이 달았다. 하여 그는 인차 딸의 집을 떠났다.

아들의 집에는 석장의 사진이 벽에 걸려있었다. 자기네 부부가 둘이 된 애기를 안고 찍은 사진, 아들이 기업소 혁신자들과 함께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 그리고 이번에 로력영웅들이 수직방사직장 하조장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그 사진(그 사진이 신문들에 크게 실리였다.)이였다.

각이한 사연들이 깃든 사진들이였지만 수령님처럼 인민을 더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헌신이 그 사진들에서 뜨겁게 어려왔다.

베푸실수록 더해지는 장군님의 사랑과정이야말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전변의 원천이라고 백발의 녀인은 장군님께 아뢰이고싶었다. 그는 장군님의 초상화앞에 머리를 깊이 숙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 주체문학의 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역사가 전진하는 과정에는 일시적인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나 인류가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이다. 문학은 마땅히 이 위대한 시대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학이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려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문학분야에서의 변혁은 문학예술혁명을 통하여서만 실현된다. 혁명은 그 앞길을 밝혀주는 심오한 사상과 이론을 요구한다. 옳바른 지도사상과 이론, 방법을 가지지 못한 혁명은 라침판없는 배와 같이 항방을 잃고 방황하기 마련이다. 우리 시대 문학의 향로를 밝혀주는 등불은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우리의 문학예술혁명의 역사는 새로운 주체적문학예술창조와 건설의 역사였으며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자랑찬 승리의 역사였다. 그 역사의 나날에 우리 당이 내놓은 주체의 문학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창작실천의 빛나는 성과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 론 설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시대 문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

박 춘 태

우리 작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은혜로운 사랑과 따뜻한 정을 주시며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창조의 보람찬 길로 이끌어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서거는 작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크나큰 상실의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에 더잘 모시지 못한 통절함과 자책감,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 우리 작가들은 장군님께서 주체의 문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 있으며 그것을 길이 빛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이어나가는 **김정일** 동지는 사상과 령도에서 제일이고 품모와 인덕에서 으뜸이며 만민의 칭송을 받고있는 걸출한 지도자입니다.》

일찌기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문학예술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을 주체의 한길로 이끄시여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선군문학으로 발전시켜오시였다.

199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우리 조국과 혁

명앞에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는 민족의 대국상, 날로 악랄해지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책동, 해마다 겹쳐드는 자연재해... 하여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실로 이 기간 우리 조국의 하루하루는 제국주의자들의 극도에 달한 군사적위협과 경제봉쇄를 맞받아 짓부시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치열한 대결전의 나날이였다.

바로 이러한 시련의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실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였다.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선군혁명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국과 혁명, 시대가 문학예술앞에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명작창작은 붓대를 무기로 삼고 한생을 문학에 바쳐가는 작가의 리상이며 시대와 인민이 우리



작가들앞에 제기하는 엄숙한 요구이다.

명작의 참된 가치는 인간의 자주적인 운명개혁에 얼마나 훌륭히 이바지하는가에 있다. 동서고금의 명작들은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있지만 그것이 오늘의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좌표를 가르쳐주는 것은 못한다.

그렇다면 자주의 거세찬 흐름이 시대를 굽이치고있는 현시대, 진보적인류가 제국주의와 맞서 생사판가름의 투쟁을 벌리고있는 이 격동적인 시기에 인류를 자주화된 세계으로 힘있게 추동해주는 그런 명작은 과연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시대가 문학앞에 제기한 초미의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이 문제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고 선군시대 우리 주체문학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명작창작을 절박하게 바라는 시대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선 과업을 명철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패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이처럼 선군시대 우리 당이 요구하는 명작의 본질을 완벽하게 밝혀주신데 이어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명작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과업과 미학실천적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선군문학건설과 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창작의 주인인 작가들을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선군문학의 창조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간고하고도 준엄한 현실은 우리의 일부 작가들속에서 일시적이거나 창작적부진을 가져왔으며 부분적으로는 이 사나운 겨울을 동면하려는 현상도 나타났다.

전군, 전민이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끓이며 고난을 맞받아 뚫고나가고있는 때에 시대정신과 량심의 대변자로, 대오의 기수가 되고 나팔수가 되어야 할 작가들속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은 매우 엄중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때 우리 작가들이 동면에서 깨어나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선군혁명문학의 필봉을 역세게 틀어쥐고 일떠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3월 18일 고전적로작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작가들이 순결한 량심과 신념을 가지고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가들이 분발하게 하자면 그들의 사상과 량심에 불을 걸어야 한다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정신으로 불려일으키는

작품을 쓰자면 작가들자신부터 건결한 사상과 순결한 량심을 가져야 한다고,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오직 깨끗한 마음, 순결한 량심을 지닌 사람들만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그리고 량심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혁명이 시련을 겪고있을 때 동요하게 되며 나중에는 변절하고만다고 하시며 작가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은덕을 생각하여서라도 누구보다 량심이 순결하여야 하며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작가들이 인민군군인들의 높은 혁명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시인들은 순결한 량심과 피끓는 심장으로 글을 쓰는것이 아니라 손끝에만 피우고있다고, 작가들은 하루를 살아도 인민군군인들이 지니고있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살고 시 한줄, 소설 한페지를 써도 만사람의 량심에 불을 지필수 있도록 진심이 통하게 써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모두가 준엄한 난국을 뚫고나가는 어려운 때에 강건너 불보듯 하면서 걱정만 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말공부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작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량식을 주는것으로써 나라의 경제사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작가들은 붓을 쥐고 글을 쓰다가 순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명작을 창작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바쳐야 한다고,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당에서 바라는대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 힘이 되고 량식이 되는 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실적을 내는 실력가,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작가들의 흥벽을 두드려 동면에서 깨워주고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일대 창작적전환을 일으키게 한 강령적지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양양을 일으키며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작가협의회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회의기간과 방법, 참가성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회의이후 핵심작가들을 비롯하여 창작가들을 현실에 많이 내보내도록 하며 창작기관 당조직들이 이번회의를 계기로 창작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조치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열린 전국작가협의회를 통하여 모든 작가들이 자기들의 사상정신상태를 심각히 총화하고 새로운 비상한 각오를 가지게 되었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 선군혁명문학을 창작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시신 작가협의회는 혁명적군인문학을 본보기로 하여 수령결사옹위의 문학, 선군문학창작의 일대 양양을 일으키는데서 역사적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작가들은 붓대를 총대로 삼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을 따라 종군의 길에 용약 펼쳐나갔으며 들끓는 현실속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맥박치는 선군문학을 창작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갔다. 그리하여 최고사령관동지와 병사들의 혼연일체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담은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 서사시 《번영하라 조국이어》를 비롯한 성과작들이 편이어 창작되었다.

이 성과를 두고 누구보다 기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작가들이 시대정신을 반영한 좋은 글들을 많이 써내고있다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을 충실하게 따라온 작가들이 오늘과 같은 시련의 시기에도 변함없이 당을 따르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을 보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체도를 지키는데 앞장서고있다고, 령도자와 함께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인민들에게 시대정신을 심어주는 쇠소리나는 글을 써내고있다고 치하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이 당과 수령을 위한 쇠소리나는 좋은 글을 써내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그만큼 작가들을 아껴주고 내세워주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작가들은 생활상고통을 겪고있으나 그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구호를 믿고있기때문에 래일을 확신하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것은 진정 우리 작가들만이 받아들일수 있는 최대의 신임이고 믿음이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의 심장에 혁명적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불씨를 심어주시고 그것이 창작적양양의 불길이 되어 세차게 타올랐을 때에는 그 모든 성과를 우리 작가들에게 돌려주시어 세상에 다시없을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부문에서는 수령결사옹위의 문학, 선군혁명문학의 일대 개화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작가들을 선군혁명문학창작으로 힘있게 불려 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창작과정을 걸음걸음 손잡아 세심히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선군문학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주제방향을 밝혀주시었다.

문학의 주제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것은 매 작품의 운명뿐아니라 문학전반의 발전방향을 규정하며 사상적내용을 특징짓는 출발점으로, 성과의 근본열쇠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문학의 주제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기에 작가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상과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 장군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주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 혁명적세계관확립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조국통일주제 등에 기본을 두고 선군혁명문학을 줄기차게 창작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명작창작정형을 해마다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아주시면서 보다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해나가도록 작가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의 창작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 개선대책을 뚜렷이 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몸소 명작창작을 위한 강행군전투를 조직해주시고 그를 승리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진행된 여러차례의 장, 중편형식의 문학작품창작전투의 전과정은 작가들이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욱더 심장으로 뜨겁게 받아안고 우리 문학을 선군혁명문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작가들이 장군님의 작가로서의 숭고한 사명감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 문학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 주제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고 성스러운 선군혁명문학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과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처럼 몸소 명작창작을 위한 전투를 조직지도해주시였을뿐아니라 선군혁명령도로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를 비롯한 중요작품들의 창작과정을 료해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어 선군시대의 명작으로 빛을 뿌리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이념위천의 위대한 리념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시련많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험난한 최전열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며 시간을 분초로 쪼개가시면서 장편소설과 서사시, 서정시, 가사와 혁명전설, 아이들을 위한 자그마한 동시와 우화작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랑만이 차넘치는 시와 노래를 안겨주어 오늘의 난관을 맞받아쫓고나가도록 하시려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에서, 때로는 달리는 전선길에서 우리 작가들이 쓴 작품들을 지도해주시고 그 하나하나를 명작으로 완성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는 진정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정녕 사느냐, 죽느냐 하는 원쑤와의 판가리싸움, 고난의 행군의 시련과 난관이 절정에 이르렀던 주체86(1997)년, 바로 가장 준엄했던 이 한해에만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60여차례에 걸쳐 110여건에 달하는 문학운동지도와 무려 160여건의 작품지도로 선군혁명문학령도실록을 아로새기시었다. 이 수자를 두고도 우리는 작가들이 절대불변의 혁명적신념과 순결한 량심을 가지고 시

대의 명작을 창작하도록 그토록 뜨거운 심혈을 기울여주신 아버지장군님의 그 자애로운 사랑과 불면불휴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로 시대의 명작들이 소리치며 댕어 태어났고 우리 문학사에 일찌기 없었던 명작창작의 전성기가 펼쳐졌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영원불멸하라 동지애의 력사여》, 《세상에 부럼없어라》, 《청년들을 사랑하라》, 가사 《높이 들자 붉은기》, 《승리의 길》,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조선의 장군》, 《눈이 내린다》 등 수많은 명작들은 그 모두가 저 하늘의 못별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듯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종자를 심어주고 예지로운 손길로 애지중지 가꾸고 꽃피워 알찬 열매를 맺게 해주신것이다.

바로 여기에 선군시대 명작들이 안고있는 력사적의의가 있으며 선군시대에 살며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의 긍지와 행복이 있는것이다.

참으로 시대의 명작으로 선군문학의 전성기를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선군시대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인이 남긴 업적은 력사에 남는다. 위대한 령도자가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력사와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우리모두의 생명의 아버지이시였으며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끝없는 흠모심과 그리움속에 우러르며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장군님의 위대한 문학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일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문학령도업적은 주체문학건설과 창조의 만년재보이며 선군문학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는 백과전서적인 지침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문학령도업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데 우리 주체문학, 선군문학의 승리적전진과 찬란한 미래가 있으며 우리 작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장군님의 혁명사상, 주체적문예사상을 선군문학의 건설과 창조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작가들은 장군님의 유훈, 장군님께서 문학부문에 제시하신 당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 주체의 문학리론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을 영원히 선군혁명문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명작, 천만군민을 선군혁명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훌륭한 작품,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성이 있는 명작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장군님의 생전의 뜻이었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명작을 창작할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창작실천으로 꽃피우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충정을 바쳐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은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이시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었음을 심오하고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며 최대의 희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선군혁명령도의 길, 현지도의 길에 계시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에서 우리 작가들은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을 가장 완벽하게 꽃피워나가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의 모습을 보았고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심화발전시켜나가는 령도자의 모습을 보았으며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작가들은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천만군민모두를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미래도 함께 하는 견결한 선군혁명동지로 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나아가는 길에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작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며 장군님의 불멸의 문학령도업적은 조국청사에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 작가들과 함께 계신다.

《동무들이 나를 그리워하듯이 나도 동무들을 그리워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붓대사랑입니다.》

김 정 일

어이 알았으랴.

기쁨과 환희의 꽃물결속에 경축의 축포 오르는 2월만이 이 땅에 흐르라고 해마다 우리 인민 어버이장군님께 부디 건강하시라 축원의 인사 올리던 이 강산에 그이 안계시는 2월이 올 줄을...

어이 알았으랴.

가지 마시라고, 한생을 바쳐 그토록 사랑하신 이 조국땅, 이 인민을 두고 가시면 안된다고 하늘이 울고 대지가 몸부림치고 철모르는 어린애까지 온 인민이 통곡하던 그 12월의 감정을 안고 어버이장군님의 탄생일을 맞게 될 줄을...

우리 인민은 그이를 잃고서 너무도 아프게, 아프게 그이를 다시 알았다.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는지. 얼마나 자애와 덕

망이 넘치는 어버이이시였던지...

어버이장군님의 령도를 받아오면서 그이를 우러러, 그이를 못 잊어, 그이를 칭송하여 우리 작가들 많은 글을 쓰고 많은 노래를 지어불렀다.

그 갈피를 다시 헤쳐보느라니 가슴가득 차오르는 못 건디게 그리운 어버이장군님 생각.

태양의 선군위업 창창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일떠선 이 땅에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노래 세월이 흐른들 다함이 있으며 하늘땅이 바뀔들 진함이 있으랴.

이 청신한 2월의 강산에 메아리되어 울려퍼지는 선배작가들의 마음속마다에 진주처럼 간직되어 있는 속삭임 우리 오늘에 다시 돌이켜 귀기울이며 그리움의 정, 맹세의 마음 산같이 쌓노라.

수기묵음

## 매후과 흙모, 추억의 노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나에게 있어서 위대한 정치적령도자이실뿐아니라 문학과 삶에 대하여 요람에서부터 배워주시고 키워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가장 영명한 스승이시다.

나는 이 세상에 작가로 살며 그이의 제자되어 자라온것을 무한한 긍지와 영예와 행복으로 생각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숙한 나를 친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것보다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어 당적이며 혁명적인 작가로, 당의 참된 동행자로 키워주시었으며 그 나날에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그 모든 영예를 그이께 드려도 우리는 그이께서 이 땅우에 이룩하신 그 불멸의 업적을 다 칭송할수 없다.

백 인 준

태고의 인간들이 불을 발견한 그날도 외판상은 평범한 날일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날이 있는 다음부터 인간은 자기의 생활에서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내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옵

던 그날은 이 땅우에 폐사롭게 흘러간 평범한 날들중의 하루였다. 하지만 그날은 작가로서 또 인간으로서 나의 성장발전에서 인간이 불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러한 거대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날이었다.

찬란한 향도의 태양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향도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작가로 사는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행복을 나는 모른다.

우리 같길 제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우리의 마음 든든하거니, 불을 발견한 인간이 무엇인들 못 해내랴.

우리의 향도의 태양은 온 누리를 찬란히 비치고 있거니, 심장속에 그이께서 지퍼주신 불타는 한점의 불씨만 있다면 우리는 온 누리를 불길로 덮을 수 있다.

석 윤 기

나는 붓과 함께 한생을 살아오면서 내 녀과 희로애락의 감정을 붓으로 써낸 시인이다.

마치와 낮, 붓이 함께 새겨져있는 우리 당 기발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자신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시인이고 당의 가수임을 크나큰 긍

지를 가지고 자부한다.

그리고 나의 시가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세상에 노래하는 당의 시임을 크나큰 영예감을 안고 자부하는바이다.

나는 비록 몸은 늙었어도 창작적사색과 열정만은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를 읊어드리던 젊었던 그 시절처럼 불태우며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목청껏 노래하는 장군님의 시인으로 끝까지 살며 창작하고싶다.

## 최영화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더해만지고 그리워만지는 우리 장군님 생각.

그리움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그이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 더불어 지난날에 받았던 어머니의 편지구절이 떠오른다.

《...사람이 자식을 낳은것으로 부모가 아니지. 그 애 장래와 전도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인데 너를 세상에 버려둔 사람이 무슨 엄마라는 부름을 받을수 있나. 나는 너무도 부끄럽고 진토만도 못한 존재라 너에게는 더 말할것도 없구나. 너의 소식을 들으니 어느 정도 한이 풀리는구나. 나 이제 죽는다 해도 한이 없을것 같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그때 나는 그만 목이 메어 건잡을수없이 흐르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남해가의 척박한 땅우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이 오늘은 얼마나 비옥한 토양에 뿌리박고 태양을 향하여 키를 솟구고있는것인가. 그 토양, 그 해빛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다.

옛 문인들이 말하기를 당대위인을 위해서는 잘된 한편의 송시면 죽하다고 하였다.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은 우리 시인들이 한생을 쓰고 대를 이어 쓰고 써도 다 쓰지 못할 시의 원천이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의 시인이라고 우리 시인들을 불러주신 그 대오의 영예로운 한 성원으로 사는 이 행복한 세월이 무궁하기만을 바랄뿐이다.

## 오영재

《태양에는 두가지 속성이 있다. 빛과 열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도 두가지 성품을 지니고계시니 즉 빛나는 예지와 뜨거운 사랑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 그것은 곧 태양의 빛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사랑, 그것은 곧

태양의 열이다.

그 광휘로운 빛과 따사로운 열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는 인간세계의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대통령감인 리동백이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웨치는 이 독백은 나 자신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면서 세인을 향해 웨치고싶던 내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다.

꺼져버릴번 하였던 나의 작가적생명에 소생의 빛을 주시고 부실하고 허약한 존재로 태어나 단명할 운명을 면치 못할번 한 작품마다에 강한 생명력을 가진 생활인자를 넣어주시여 그 작품들이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독자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위대한 은인이시며 위대한 해님이시다.

정말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노래의 가사구절대로 우리 작가들은 장군님 안계시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해님없인 못사는 영원한 태양의 해바라기들이다.

## 최학수

시인이 있어 시가 씌여지는것만이 아니다.

이 땅우에 크나큰 시의 세계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령도자가 계시여 시인들이 태어나고 시와 노래가 나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나에게 피를 주시고 숨결을 주시었다. 나의 운명도 미래도 맡아안아주시고 비바람이 들쭉우면 그것을 막아주시고 죽음이 닥쳐오면 그것까지도 막아주시었다. 그리고 나의 생명과도 같은 시를 주시었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 변함없는 의리로 전사들을 뜨겁게 안아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태양과도 같은인 경애하는 그이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시인으로서 나의 시가 있고 인간으로서 나의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는것이다.

태양의 빛발을 받아 영생의 꽃으로 피어나 새삶을 누리는 복받은 사람이 이 땅에 피는 꽃의 아름다움과 그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게 한 그 빛발의 따사로움을 노래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한스러운것은 그이의 따사로운 사랑의 진가를 노래하기에는 나의 붓이 너무나도 무딘것이다.

하지만 내 한생을 붓을 버리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펼치신 그 빛발의 따사로움을 노래하고 또 노래할것이다.

## 김철

# 정일봉과 더불어 길이 빛날 영원불멸의 태양찬가

리광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심장의 구호가 온 강산을 세차게 진감시키고있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가 다함없는 그리움을 담아 가장 절절히 부르고부르는 찬가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버이수령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업적을 칭송하여 몸소 지으신 영원불멸의 태양찬가—《**광명성찬가**》.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의 심장속 가장 소중한 곳에 고귀한 글자로 새겨져 크나큰 박동으로 울려나오는 이 위대한 송가는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군민의 념원을 가장 열렬히 분출시키고있는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그 진가를 더욱더 뚜렷이 새겨주고 있다.

정녕 불멸의 태양찬가를 심장에 새기고 우리 지나온 영광스러운 20년의 나날은 선군혁명천만리길을 헤쳐걸으시여 우리 조국을 강성번영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여온 나날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높이 우러러받들기를 바라시여 우리 수령님께서 지으신 태양찬가야말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국보중의 국보임을 온넋으로 느끼게 한 가슴벅찬 나날이었다.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2월의 이 아침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새겨보고 있으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광명성절을 맞으며 20년전의 못 잊을 그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지으신 영원불멸의 태양찬가의 구절구절을 가슴뜨거이 안아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 칭송을 받고있는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탄생 50돐을 맞으면서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그를 찬양하는 송시를 썼습니다.》

천출명장다운 지, 인, 용을 완벽하게 겸비하

시고 자주시대의 중심에 거연히 서시여 력사의 흐름을 주도해나가신 선군태양 **김정일**동지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만족감과 두터운 신뢰, 그이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하여 주체의 선군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를 바라신 수령님의 크나큰 기대와 념원이 자자구구에 어려있는 영원불멸의 태양찬가 《**광명성찬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솟구친 송시는 백두의 해돋이를 맞이한 크나큰 영광이 가지는 심오한 철학적의미, 그로부터 일어나는 가장 열렬한 감정세계를 승엄하고 약동적인 형상으로 벅차게 터쳐놓은것으로 하여 첫구절에서부터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틀어잡는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흐르누나

우리 조국의 창창한 앞길을 창공높이 가리키며 백두령봉에 승엄히 솟아있는 정일봉과 백두밀영고향집을 끝없이 감돌아흐르는 소백수의 물결에 대한 시적묘사를 통하여 송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축원과 그이의 탄생이 가지는 민족사적의의를 웅심깊은 시형상으로 부각시키고있다.

**김정일**동지는 사상이나 성격, 취미와 습관을 보아도 신통히 백두산을 닮았다고, 백두의 정기와 기상이 **김정일**동지의 온 정신과 온몸에 차넘치고 있다시며 만시름 다 푸신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미소 친필글발에 환하게 비껴흐르는 백두의 정일봉.

백두산마루에 정일봉이 솟아있다는 독특하고 승엄한 시적형상은 주체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이로 이끌어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으로 된다.

정일봉의 찬란한 해돋이 맞이하던 그날의 그 감격, 그 환희 소리쳐 전하고저 엄혹한 겨울에도 얼지 않고 언제나 굽이쳐 흘러흐르는 소백수의 영원한 푸른 흐름.

소백수의 푸른 물이 굽이쳐흐른다는 시적표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귀한 념원을 한몸에 빛나게 체현하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견결하게 이어나가시며 정력적으로 완성시켜나가신다는 철학적의미를 감명깊게 집약화한것이다.

천만년 노래해도 대신못할 승엄한 의미와 열도를 가장 선명하고 완벽한 상징적화폭으로 강렬히



집약시켜 보여준 이 구절은 심오한 서정철학으로 송시에 가장 웅건한 기념비적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크나큰 철학적의미를 안고있는 시어인 정일봉을 시적봉우리로 한 송시의 첫 구절은 시의 정수를 이루면서 강렬한 서정으로 굽이쳐흐르는 소백수의 물결과 더불어 비상히 양양된 서정세계를 격조높이 열어준다.

###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쇠똥인가 문무총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송시는 이 단락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을 그이의 뛰어난 자질과 고매한 품모와의 련관속에서 웅심깊게 노래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였을 때 항일의 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 찬란한 태양이 되어달라는 념원을 담아 삼가 부른 백두광명성.

광명성탄생의 환호소리 백두밀립의 구호나무들에 담아 새기던 그날로부터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얼마나 많은 전설같은 이야기들, 얼마나 크나큰 기적같은 업적들이 무수히 기록되어왔는가. 송시는 문무총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다는 구절을 통해 위대한 품모와 자질을 완벽하게 겸비한 위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룰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해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심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뜻깊게 새겨주고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광명성 그 이름 우주에 솟구쳐올라 하늘높이 새겨진 오늘의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더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고난의 역경속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천만군민의 혁명적대진군을 진두에서 승리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는 송시의 바탕에 빛발치는 수령님의 예지의 비범성을 뜨겁게 확증시켜주고있다. 하기에 이 구절을 심장으로 높이 부르면 언제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격동치며 우리나라오는 칭송의 숭엄한 감정세계를 온넋이 울리도록 뜨겁게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송시는 위인의 품격을 깊은 사색에 기초하여 무게있게 천명한 이 서정세계를 만민의 환호성이 우리를 진감하는 시적화폭과 힘있게 결합시킴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구가하는 장엄하고 숭엄한 정서와 열정을 마음껏 터칠수 있게 하였으며 높은 예술적품격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이 구절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흠모와 신뢰가 더없이 열렬하고 절대적인것임을 감명깊게 표현하고있다. 이 땅에 생을 둔 천만사람모두가,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류가 열렬한 흠모심을 안고 위대한 선군태양을 우러러 목매여 칭송하는 시적화폭은 정녕 우리 자주시대의 막을수 없는 장쾌한 흐름에 대한 드높은 시적형상인것이다. 무궁번영할 미래에로 끝없이 올라가는 송시의 환호소리는 시의 첫 구절에 높이 솟은 정일봉에 웅심깊게 메아리치면서 더욱더 장중하고 호방하게 울려 퍼지고있다. 하여 시의 결구는 우리 시대의 격동적인 흐름이 생동하고 기세차게, 커다란 격동적여운을 안고 끝없이 격류치게 하고있다.

송시는 대중에게 친숙한 인민적이고 통속적인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여섯행의 짧은 구조속에서도 친근감이 있으면서도 충만된 형상적 폭과 깊이를 원만하게 담보하고있다.

충정의 최고화신, 탁월한 사상리론가, 명장중의 제일명장,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 위대한 애국자, 혁명과 건설의 영재로 높이 칭송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위대성을 송시는 《문무총효》라는 네글자로 완벽하게 천명해냄으로써 송시의 비상한 예술적기교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송시는 인민들속에서 오랜 기간 친숙해진 이러한 어구속에 새로운 시대적의미와 철학적내용을 부여하고 그것을 또한 하나로 련결시켜 폭있고 심오한 세계를 얻어냄으로써 령도자의 위대한 자질과 품모를 전면적으로 밝혀 노래할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송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가장 높이 부각한 웅장하고 장중한 상징적화폭, 거대한 폭을 가진 심오한 철학적울림과 가장 통속적이고 인민적인 시어와 간결하고 정교하며 세련된 구성미로 하여 비상한 감파력과 이름할수 없는 커다란 감동과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송시는 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결합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며 우리 주체적시가문학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이다. 정일봉의 기상이 영원하듯이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속에서 심장의 고동으로 끝없이 울려지는 신념의 노래 《광명성찬가》는 우리앞에 그 어떤 준엄한 시련이 앞을 막아나서도 파감히 뚫고 승리를 이룩해나가도록 신심과 용기와 끝없는 열정을 안겨주는 필승불패의 영원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불멸의 기념비적명작을 가슴속에 영원한 신념의 기둥으로 뜨겁게 새겨안은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하늘땅을 뒤흔드는 영광의 만세소리 더 높이 울려나갈것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부흥의 찬란한 전성기를 백두대산줄기 용용히 굽이쳐내린 이 땅우에 펼쳐갈것이다.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선군대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 공동구호에서 —

수 필

##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

최 남 순

이른아침 문두드리는 소리...

신문이 왔다.

바삐 달려가 문을 연다.

아침마다 아버지장군님의 현지도소식에 접하고 또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는 행복에 서둘러 신문을 펼쳐들던 그 습관대로 나는 오늘도 여전히 뛰는 가슴을 안고 신문을 펼쳐든다.

요즈음은 신문들에 민족최대의 명절 2월 16일을 맞으며 어느 공장에서 분기계획을 넘쳐수행했다는 소식, 또 어느 건설장에서 기한전에 공사를 끝냈다는 가슴벅찬 소식들이 련일 신문에 실린다.

그럴 때면 이 기쁜 소식들을 아버지장군님께서 아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창조물들을 보아주시며 더없이 기쁘게 웃어주신다면 우린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잠긴다.

아니, 그러다가도 문득 이 아침에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장군님께서 일터에 찾아오실것만 같아 서둘러 출근길에 오른다.

오늘 아침도 강좌신문을 열고 들어서니 약속이나 한듯이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다.

그 순간 나는 하나의 불길처럼 우리모두의 마음속에서 타번지는 그리움을 느낀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 계실 때처럼 언제나와 같이 도도하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에 대한 크나큰 긍지를 뿌듯히 느낀다.

생각도 많다.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

이런 물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를 두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영상이 실린 신문을 펼쳐들고 환희롭던 그런 날, 그런 아침이 참으로 행복했

었다.

그런 날이면 강의안을 쓰는 펜들이 배나 빨리 달리었고 강의실로 가는 걸음은 자꾸 충계를 들썩씩 질고만싶어지곤 했다.

그런 아침이면 의례히 《동무들,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라는 벽찬 물음으로부터 강의가 시작되곤 했었다.

어찌 우리 교정에서뿐이겠는가.

아마 온 나라가 기쁜 아침을, 벽찬 하루를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였으리라.

허나 우리 그때 다 알았던가.

이 땅에 기쁜 일이 생기면 그 소식을 당보의 6면, 7면 지어 8면에까지 꼭 내쳐 실어주시며 그토록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심정을...

언제인가 평양어린이식료공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소식이 실린 신문을 놓고 가슴뜨겁게 하던 로교수의 말이 생각키운다.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 공장소식을 이렇게 많이 신도록 하셨겠소...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신문을 보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소. 매일과 같이 장군님의 현지도소식이 신문에 실리곤 했지만 전선길의 그 구체적인 사연들은 다 알수 없지 않았소.》

그렇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령높은 전선길과 바람세찬 공장길, 농장길에 새겨진 가슴저린 사연들을 알고 우린 울었다.

미끄러져내리는 야전차를 어깨로 미시며 령길을 넘으셨다는 이야기, 초도의 날바다를 헤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옷자락이 너무도 찢찢이 얼어있어 마중나온 부대지휘관들이 목이 매여 영접보고조차 변변히 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프고 마음저린 사연들이, 눈물없인 상상할 수 없는 화폭들이 신문엔 없었다.

그래서 장군님 넘고 헤치신 준령의 밤은 길 있어도 아침보도는 너무도 짧았다고 한 어느 시인의 시가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것 아닌가.

가슴속 사연, 자신의 로고 이 모든것은 인민이 마음 아파할가봐 일체 알리지 않으신 아버지장군님!

정말 몰랐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신문에 환히 웃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영상과 함께 전변하는 조국의 소식들이 실릴 때에도 야전철차를 타시고 밤을 지새우시며 먼길을 오신 이야기, 그 시각에조차 엄습하는 아픔을 참으시던 사연만은 신문의 어느 갈피에도 새겨져있지 않은줄 우린 정말 다 모르고 살았다.

온 나라 인민을 친자식으로 품어안으시고 그토록 웅심깊으시고 그토록 무한하던 아버지의 심중속 세계를 어찌하여 우리 오늘에야 깨닫게 되는것인가.

아버지장군님께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인민의 터전에 묻으신 행복의 씨앗들이 오늘은 하나하나 열매맺혀 조국의 장한 소식들로 이렇게 신문에 실리고 또 실리는데...

못 견디게 그림다, 우리 아버지가!

그 창조물들의 눈부신 빛발속에 예나제나 변함없는 태양의 미소가 비껴있기에, 새라새로이 실리는 조국의 벽찬 소식들은 다름아닌 아버지의 한평생이 남겨주신 인민의 행복이기에 세월이 흐르고 흐를수록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사무치기만 하다.

그래서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라는 물음은 오늘을 위해 바쳐오신 아버지의 그 모든것을 순간이라도 잊은적이 없는가고 묻는 량심과 의리의 절절한 물음!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 되새길수록 정말 생각이 깊어진다.

아버지장군님의 현지도소식을 다시는 신문에서 볼수 없다는 생각으로 하여 아침이 와도 아침이 밝은줄 몰랐던 우리에게 또다시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라는 가슴벅찬 물음을 안겨주신분.

새해벽두에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너무도 뜻깊은 첫 현지도로 태양의 소식이 영원함을 선언하시고 우리 사는 세계에 눈부심을 가득 채워주신분.

신문 한장 앞에 놓고도 인민은 우리의

**김정은**동지를 생각한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제실 때와 똑같이 이 나라 인민에게 행복의 소식만을 전해주시려 장군님의 모습그대로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오늘은 또 어데 제실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늘 젖어있던 장군님의 야전복자락처럼 그이의 옷자락이 찬눈에 젖지는 않는지,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을 위해 또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걸으시지나 않는지.

이젠 날에 날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앞에서 그 모든것을 마련하시려 바치신 아버지의 로고부터 생각하게 되는 우리다.

단 한분의 아버지를 이제 더는 찬눈길, 험한 길에 모실수 없는, 정녕코 모시지 말아야 할 우리이다.

무엇을 더 하면, 어떻게 한몸을 더 불태우면 우리 그이를 잘 모실수 있을까— 이 한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하기에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이 물음은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인민을 위한 하루를 시작하는가고 묻는 심장의 물음, 그이의 위대한 발걸음에 순결한 넋을 따라세우는가고 묻는 시대의 물음!

이제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렇게 념원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리상하신 강성국가의 봄날에도, 반드시 이룩되고야말 조국통일의 아침에도 우리 가장 찢찢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환희에 차서 물어보자,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라고.

조국의 새 소식에 무엇인가 바쳤을 때에만이 우리 머리를 들어 아침해를 맞으며 동시대인들에게 금지에 넘쳐 물을수 있으리라,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라고.

소원하고 또 소원한다, 우리 신문들에 변영하는 조국의 새 소식과 함께 또 한분의 **김정일**동지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언제나와 같이 정력에 넘치시고 건강하시다는 소식이 영원히 실리고 또 실리기를.

그러면 나는 한생 행복으로 뒹뒹는 심장을 안고 교단에 나서서 학생들에게 물을것이다, 《오늘신문을 보았습니까?》라고.

그리고 내가 직접 겪은, 우리 세대가 너무도 뜨겁게 체험한 위인들의 이야기, 신문에는 다 실리지 못한 그 인민사랑의 전설들을 후대들에게 두고 두고 전하련다.

# 김일성민족의 100년사와 더불어 빛나는 총서 《불멸의 향도》는 수령형상문학발전의 새로운 전환

최 언 경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작가들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오시며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으며 수령형상문학의 빛나는 기념비적명작들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영광스러운 100년사와 더불어 주체문화이 높이 쌓아올린 가장 빛나는 성공탑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 형상창조의 초행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였으며 그것을 수령의 후계자의 형상 창조에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킨것이다.

진정 이것은 인생만복중에 최상최대의 행복인 수령복, 장군복을 대를 이어 받아안은 조선인민, 조선의 작가들만이 받아안은 특전이며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을 첫째가는 전통으로, 생명으로 하고있는 주체조선의 작가들만이 이룩할 수 있는 위대한 력사적위업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그것은 총서 《불멸의 력사》와 함께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가장 빛나게 형상한 수령형상문학의 최고정수이며 주체인간학의 최고정화로 된다.

우리 주체문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인 《전환》(권정웅), 《예지》(리종렬), 《계승자》(백남룡), 《동해천리》(백남룡), 《전환의 년대》(리신현), 《서해전역》(박태수), 《푸른 하늘》(권정웅), 《비약의 나래》(리동구), 《평양의 봉화》(안동춘), 《평양은 선언한다》(리종렬), 《력사의 대화》(정기중), 《조국찬가》(남대현), 《총검을 들고》(송상원), 《강계정신》(리신현), 《북방의 눈보라》(리신현, 박태수), 《별의 세계》(정기중), 《총대》(박운), 《라남의 열풍》(백보흠), 《봄의 서곡》(백남룡), 《불》(정기중), 《청춘대지》(박태수) 등 20여편을 우리 시대의 최고명작으로 창작하여 내놓음으로써 수령형

상문학의 눈부신 개화를 세상에 파시하였다.

수령형상창조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건설에서 기본이 기본이라면 수령형상창조에서 기본은 수령의 위대성을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잘 그리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들은 사상과 령도, 품모에서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참으로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앙양이 이룩되었습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걸출한 정치원로이시며 비범한 군사전략가이시고 령도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숭고한 품모를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형상창조를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따라 수령형상문학의 풍격을 완벽하게 갖추고있다.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 《전환》, 《전환의 년대》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들은 격변하는 세계정치정세와 발전추이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력사발전의 전환적시기마다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는 그 제명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돐을 맞는 주체81(1992)년 4월 20일 채택된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는 사실상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리념의 진리성과 과학성, 그 거대한 승리에 대한 력사의 선언이라것을 깊이있는 형상을 통하여 밝히고있다.

장편소설은 심각한 대정치지진이 일어나고있던 1980년대말—1990년대초의 시대상을 세계적 판도에서 폭넓게 반영하면서 격변하는 세계정세를 꿰뚫어보시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

게 된 역사적교훈을 적라라하게 해부하시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혁명가들에게 사회주의재생의 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참으로 격이 있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한생을 과학에 바쳐 당을 따라 고지식하게 살면서도 쏘련(이전)에서만은 사회주의가 붕괴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류수진박사가 사회주의에 대한 불변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게 되는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언하신 위대한 역사의 진리를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가 발표되어 오늘에 이르는 10여년은 소설이 증명한 이 위대한 진리의 위대성을 역사와 시대앞에 힘있게 확인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수호자, 세계자주화위업의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역사의 확인인것이다.

이처럼 총서 《불멸의 향도》는 총서 《불멸의 력사》와 함께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반영이고 그 불멸의 업적에 대한 웅대한 서사시적화폭으로서 수령형상문학으로서의 사상예술적풍격을 최상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고있다.

이와 함께 총서 《불멸의 향도》는 수령형상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되는 고유한 사상에술적특징을 가지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가 수령형상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그 높은 단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총서 《불멸의 력사》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력사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인 문학적반영이라면 총서 《불멸의 향도》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빛나는 형상이라는데 있다.

이로부터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들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핵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의 근본핵이며 기본품성이다.

이것은 총서 《불멸의 향도》의 모든 장편소설들을 일관하는 기본특징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그것은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드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충정의 력사에 대한 서사시적화폭이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없다면 **김정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자신을 수령님의 전사로 여기시면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정은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는 물론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서 가장 숭고하게 발현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령전에 다시신 맹세그대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100% 옹호고수하고 100% 계승해나가시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등 모든것이 수령님의 사상과 구상대로, 수령님식대로 진행되어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고있는것이다.

수령영생위업, 이것은 진정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충정의 위업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룩하지 못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여기에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며 아버지수령님의 참된 후계자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최대의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의 모든 장편소설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실현해나가는 그 모든 숭고한 위업이 아버지수령님의 념원과 구상을 최상최대로 실현하기 위한것임을 생동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이 위대한 력사의 진리에 대한 영원한 력사 문헌적화폭으로 되고있다.

세계진보적청년학생들을 자주, 친선, 평화의 숭고한 리념밑에 하나로 단결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반영한 장편소설 《평양의 봉화》, 숭고한 동포애로 남조선 수재민들을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애를 눈물겹게 그린 장편소설 《푸른 하늘》 그리고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시대 최첨단을 돌파하여 조선의 본때를 세상에 떨친 현실을 반영한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과 《불》 등 총서 《불멸의 향도》의 그 한편 한편의 장편소설들은 모두가 아버지수령님의 념원과 리상을 이 땅에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과 불같은 충정으로 일관되어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서해전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하루에도 두번씩 드세찬 밀של 물이 들이닥치군 하는 20리 날바다를 가로막고 그 한가운데 세계굴지의 갑문으로 일떠선 서해갑문, 온 세상을 놀래운 이 거창한 기념비적창조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진두지휘하시여 단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 자연개조사상을 빛나게 실현하신 숭고한 충정의 대기념비이다.

거기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충정의 로고가 얼마나 성스럽고 고귀한가 하는것은 우리 인민을 민족대국상의 피바다에서 일떠세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수령영생의 영원한 신념을 안겨준 수령님의 그 빛나는 태양상이 바로 서해갑문준공식에 나오시여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그 거대한 업적이 그리도 기쁘고 만족하시여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던 력사적인 사진문헌에 기초하고있다는 못 잊을 사연에서도 가슴저리게 느낄수 있다.

민족분렬의 비구름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푸른 하늘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와 숭고한 동포애에 대한 가슴뜨거운 서사시적화 폭인 장편소설 《푸른 하늘》, 여기서는 남조선수 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된것과 관련하여 그리도 기뻐하시는 수령님을 뵈오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을 위대한 수령님께 더 자주 드리고 영원히 드릴수 있겠는가 하는 저려드는 생각으로 가슴을 태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참으로 눈물겹게 그리고있다.

장편소설 《조국찬가》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은 어버이수령님의 그 숭고한 동포애를 그대로 가슴에 안으신 그 거룩한 영상에도 빛나게 비껴있다.

참으로 총서 《불멸의 향도》의 모든 장편소설들은 그 모두가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정에 대한 감동깊은 서사시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가 수령형상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그 높은 단계로 되는것은 다름으로 일찌기 력사에 없었던 대정치과동으로 격동하는 세계정세를 폭넓고 깊이있게 파헤쳐보이면서 그 한가운데 높이 서시여 아직 인류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동지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한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품모의 위대성을 격이 있게 형상하면서도 특히는 탁월한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선군령장으로서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인상을 기본으로 하여 수령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총서 《불멸의 향도》는 위대한 선군령장 형상문학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정세는 참으로 복잡다단하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앞에 닥쳐온 시련은 극한점을 넘어 비극적인데에 이르렀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랭전이 종식된것을 기화로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미제는 기고만장하여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세계를 한손아귀에 거머쥐려고 악을 썼다.

그 공격의 초점이 바로 사회주의의 보루인 조선이었다.

미제는 압력과 봉쇄, 제재의 포위환을 바짝 조이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갔

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조선 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생사판가름의 결사전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해를 이어 이 땅에 들이닥친 무심한 자연재해, 더우기는 반만년민족사에 최대의 국상으로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인민...

참으로 정세는 복잡다단하고 준엄하였으며 헤쳐넘어야 할 시련의 언덕은 너무도 높고 험하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사상 최악의 역경인 고난의 행군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바로 이러 한 때 빨찌산의 아들이시며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뼈어이는 아픔을 위대한 심장에 묻어안으신채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의 총화로 안겨주신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시고 사생결단의 비장한 각오를 다지시며 제국주의와의 결사전, 사회주의수호전에 결연히 나서시여 백승을 펼치신것이다.

이 경이적인 위인상에 온 인류는 경탄과 흠모의 정으로 그이를 우러렀고 기고만장했던 적들은 기가 꺾이고 주눅이 들어 아우성쳤다.

바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극적사변의 시대,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와 인류를 위하여 것처럼 거대한 운명적의의를 가지는 시대의 요구에 가장 진실하고 공명정대한 대답을 주어야 할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시대적사명감을 지니고 세상에 탄생한 문학이 선군령장형상문학 총서 《불멸의 향도》인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는 그 거대하고 심각한 운명전환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문학으로 되었다.

선군령장형상문학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 인류의 운명과 련결되지 않은 문제란 하나도 없다.

시대와 더불어 격동하는 세계의 중심에 그 운명을 한몸에 안으신 천하제일의 천출명장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것이다.

일찌기 세계 그 어느 명장도 지닐수 없었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 적들보다 백수, 천수를 앞질러 내다보는 기묘한 전법,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철의 담력과 의지, 뜨거운 애국, 애족, 애민의 정, 이것은 천출명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지니실수 있는 가장 걸출한 위인적품모이다.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정치와 군사를 최고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주도해나가는 세계정치원로이시며 21세기의 태양이시다.

총서 《불멸의 향도》, 여기에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사회주의를 지켜 철령을 넘어 몇천리, 락원의 길을 여시려 한공기 죽도 나누시며 강

계를 찾아 또 몇천리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길에 아로새기신 그 위대한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참으로 자자구구마다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 《총검을 들고》, 《총대》 등은 조국의 운명을 지켜, 사회주의를 지켜 총대를 앞세우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행하신 초강도강행군길에 새기신 영원불멸의 선군혁명업적에 대한 빛나는 서사시적화폭이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우리 조국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이 질게 드리웠던 주체82(1993)년 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의 사상적알맹이를 종자로 하여 미제의 광란적인 핵소동과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을 무자비하게 쳐몰아내고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형상을 감명깊게 창조하였다.

특히 적들의 핵위협에 단호하게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단호한 선언은 철의 의지와 담력, 비범한 지략을 지니신 위대한 선군령장으로서의 그이의 위대성에 대한 감동적인 형상이다.

그것은 참으로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하시는바와 같이 경천동지(하늘을 놀래우고 땅을 뒤흔든다는 뜻)의 대결단이었다.

이리하여 그렇게도 기고만장하여 조선땅을 통채로 삼켜버릴듯이 미쳐날뛰던 미제는 무릎을 꿇었으며 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되고 미국대통령 클린턴이 위대한 장군님께 담보서한을 보내온것이다.

이렇듯 장편소설은 세계를 것처럼 환희와 격정으로 들끓게 한 20세기 마지막년대의 대충격은 오직 공격만을 아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심장에서 마련되었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 단행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선군장정의 길은 강계와 라남, 성강을 찾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초강도강행군으로 이어졌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강계정신》, 《라남의 열풍》, 《불》 등이 이 위대한 혁명실록에 대한 역사문헌적화폭으로 된다.

장편소설 《강계정신》이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락원의 행군에로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강계정신을 창조하신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력사에 아로새긴 선군시대의 기념비적명작이라면 장편소설 《라남의 열풍》과 《불》은 우리 식의 HM기개발을 위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주체철생산을 위한 성진계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전체 인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혁명적대고조어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빛나는 서사시적화폭이다.

이처럼 총서 《불멸의 향도》는 격변하는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일찌기 세계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주시였으며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빛나게 형상한 수령형상문학의 최고정수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가 수령형상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그 높은 단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주체인간학의 보다 높은 경지를 빛나게 개척한데 있다.

인간이 형상의 중심에 있어 문학이 인간학이라면 가장 위대한 인간, 위대한 수령을 형상한 문학은 마땅히 참된 주체인간학의 최고정수로 되어야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는데는 수령의 위대성 형상에서 나서는 중요한 인간학적요구이다.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사랑과 충정의 관계를 통하여 표현되며 가장 위대한 인간들의 관계에서 그 정화를 이루게 된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에는 잊을수 없는 감동깊은 장면이 있다.

그것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성명의 발표로 온 세계가 쭈셔놓은 벌등지처럼 끓고있을 때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용히 강기슭을 산책하시는 장면이다.

두분께서는 오래도록 말씀없이 강기슭을 따라 걸으시였다. 참으로 사연깊은 조용한 산책이였다.

핵문제도 전쟁도 다 잊으신듯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긴히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시며 이 강기슭을 택하시었는데 이윽도록 아무 말씀도 꺼내지 않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신의 휴식을 위하여 이 산책을 마련하시였다는것을 너무도 잘 아시였다.

그리고 이 순간 장군님께서도 어버이수령님께 휴식을 드려야 한다는 같은 생각을 하고계시였다.

얼마나 숭고한 인정의 세계, 위대한 인간들의 세계인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그 짧은 휴식의 한때마저 누리지 못하시는 위인들께서 잠시라도

설참을 마련해드리시려고 마음쓰시는 그 뜨거운 정이 여기 강기슭에 철철 흘러넘치고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인간관계의 정화, 위인들의 위대한 인간의 세계인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가 인간학의 보다 높은 경지를 개척하는데서 이룩한 또 하나의 가장 귀중한 성과는 높은 경지에서의 심오한 생활반영의 진실성이다.

진실성이 사실주의문학의 생명이라면 위대한 인간, 위대한 생활을 형상하는데서는 진실하게 그리면 그럴수록 현실그대로의 위대성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들은 고정격식화들을 완전히 타파하고있으며 생활을 전혀 리상화하지 않고 놀랄만큼 생활의 진실에로 육박하고있다.

이렇듯 투철한 진실성은 인간성격과 사건은 물론 세부묘사에 이르기까지 형상전반을 일관하는 중요한 사상에술적특징으로 되고있다.

이미전에 아버지장군님께서 원목수출을 엄금하시였음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심장에 충구를 들이대는 심정으로 굶어 쓰러지는 인민을 구원하기 위해 원목수출을 허락해주실것을 장군님께 간절히 아뢰는 장편소설 《강계정신》에서의 도당책임비서 강태혁의 형상이 그러하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2년동안에 끝낼것을 결심하시였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외에 달리는 보고드릴수 없었던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의 신철범의 형상이 그러하다.

무험하다고 하리만큼 심각한 이 진실성은 오히려 수령의 위대성을 백배로 더 잘 형상케 하였다.

강태혁의 편지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엄하다고 나무람하실 대신에 한평생 당에 충실해온 그가 오죽했으면 역적이 될 각오를 하고 편지를 썼겠는가고 하시며 이 《백두산줄기를 타고 난 갈범》에게서 김책형의 일군을 보시게 된 기쁨으로 하여 오히려 안광이 밝아지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요시하고계시며 공사의 완공을 최대한 앞당기려 하신다는것을 신철범이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른 사람은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만은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렸어야 했다.

그러나 군사복무의 수십년세월 전사로부터 장령이 된 오늘까지 솔직성과 충실성을 체질화한 신철범은 불가능하다고밖에 달리는 보고드릴수 없었다.

만약 신철범이 달리 보고드렸더라면 그의 성격론리가 파탄될것은 물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위인적풍모를 지금처럼 깊이있게 형상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강태혁과 신철범,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

설들에 나오는 모든 인간성격들은 작가의 허구의 산물이 아니라 실재한 원형에 기초하고있다.

생활반영의 이러한 진실성은 세부묘사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강계정신》은 이 땅에서 벌어진 생사판가름의 결사전인 고난의 행군에서도 가장 참혹했던 자강땅, 아버지장군님께서 거기서 보시게 된 비참한 현실을 조금도 가리우지 않고 현실그대로 그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희천시의 밤거리에서 보시게 된 람루한 옷차림의 아이들, 다시 흠바람을 헤치시며 험준한 초상령을 넘어 동신군 립산마을에 이르시여 설송이네 집에서 보시게 된 가마속의 풀죽세그릇, 그것을 아버지장군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가마뚜껑을 막아서는 철부지 설송이...

이것은 결코 사상최악의 역경인 고난의 행군에 대한 눈물겨운 생동한 화폭만이 아니다.

아버지장군님을 뵈는 순간 뿌르르 방안으로 달려들어가 한참이나 벽에 모신 초상화를 보고 나와서 《아버지장군님!》하고 그이의 옷자락에 와락 매달리는 철부지 어린것, 그러면서도 풀죽세그릇이 들어있는 그 가마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울먹이며 가마뚜껑을 그러안는 설송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엄청난 력사의 의미를 알기에는 너무도 애어린 철부지인 설송이의 가슴속에 도 자기 집 일로 하여 아버지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된다는 그 가룩한 마음이 온통 가슴에 가득차있었던것이다.

이것은 결코 고난의 행군의 엄혹성만이 아닌, 이 땅에서만 있을수 있는 끓을래야 끓을수 없는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대함, 애어린 철부지의 가슴속에까지 가득차있는 령도자에 대한 그 맑고 깨끗한 충정에 대한 눈물겨운 화폭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때때로는 아이들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며 그 애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희천려관으로 보내라고 하실 때 장군님의 옷자락에 매달려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장군님의 차만은 타지 않겠다고 떼질하는 아이들, 부모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 어린것들의 가슴에도 아버지장군님의 바쁘신 걸음을 더디게 해서는 안된다는 애오라지 그 깨끗한 마음이 가득차있었던것이다.

이렇듯 눈물겹도록 진실한 이 형상들은 천하제일의 선군령장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력사의 진리에 대한 확인으로 된다.

참으로 총서 《불멸의 향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오시는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쌓아올리신 불



# 선 군 의 해 빛

김 춘 호

낮이나 밤이나  
내 마음의 창가에  
따사로이 비쳐오는 해빛입니다

잔디 푸른 이 전호가언덕에도  
저기 내 고향 선경의 산천에도  
정답게 비껴흐르는 선군의 해빛

온 강산에 빛을 뿌리는  
억만가닥 그 빛발에 안겨옵니다  
시련의 찬서리를 다 녹여  
밀려오는 불구름을 다 가서  
밝고 아름다운 이 세월을 꽃피운  
한없이 고마운 그 은혜가

장장 천만리  
조국이 걸어온 길에  
언제나 찬란하던 그 해빛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고난의 그 나날에  
희망과 신심과 신념을 안겨주며  
더더욱 눈부시게 빛나던 그 해빛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판문점...  
이 땅의 어대인들  
그 해빛 아니 비친 곳이 있습니까  
대흥단과 강계  
폐성강과 성강...

그 해빛 비치는 곳  
무적의 총창들이 번쩍이고  
철벽의 요새들이 거연하고  
그 해빛 넘치는 곳

오곡백과 파도쳐 설레이고  
창조의 숲이 무성하게 솟아나고...

영원한 그 해빛아래  
하늘도 산천도 한없이 푸르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도도히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발걸음소리 드높고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치며  
기적과 위훈이 나래친다

만복의 해빛  
승리의 해빛...  
그보다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은혜로운 빛이  
광활한 우주 그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 해빛 무궁토록 이 땅을 비쳐  
이 강산은 언제나 꽃이 피는 강산  
이 나라는 영원히 해빛밝은 나라

정녕 저 하늘가  
자연의 해빛으로는  
꽃피울수도 지켜줄수도 없는  
우리 삶의 모든것—행복도 존엄도 미래도  
다 꽃피우고 다 지켜주는 은혜로운 빛발입니다

아, 우리의 영원한 선군대양 **김정일**장군님  
그 찬란한 빛발을 더 밝게 뿌려가시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이 계시여  
우리 삶의 젖줄기  
선군의 해빛은 이 강산에 영원하여라!

~~~~~  
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한 가장 진실한 력사문헌적화폭이며 위대한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로 령도해오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만민칭송과 뜨거운 충정의 기념비적서사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비록 애석하게 우리결을 떠나시였지만 총서 《불멸의 향도》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더해주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안겨주는 수령영생의 기념비로 앞으로도 계속 창작될것이다.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는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 것이다.

영원히 녹지 않을 눈송이

최 용 호

눈이 내린다.

이 나라의 하늘가에 눈이 내린다.

소리없이 내리고내려 강산을 하얗게 덮고 사람들의 어깨위에 무겁게 내려앉는 눈송이, 눈송이... 마음속에 뜨거운 추억을 불러주며,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을 더해주며 내리고내리는 눈송이...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맞느라니 잊을수 없는 그 날의 눈이 떠오른다. 이 나라 천만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지난해 12월의 눈이,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마음속에서 한생토록 녹지 않을 그날의 눈이...

...지난해 12월 28일.

새벽부터 눈이 내렸다.

하염없이, 끝없이 내리고내렸다.

사람들이 눈을 쏘고있었다. 쏘고 또 쏘고... 눈이 미처 길바닥에 내려앉을새없이 쏘고 또 쏘었다. 평양시내 백여리 영결연도에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눈을 쏘고있었다.

말없이 묵묵히 눈을 쏘고쓰는 사람들... 사람들의 눈가마다에 맺혀있는 뜨거운 눈물방울...

아, 하늘이여, 너 어이하여 이토록 눈을 끝없이 내리는것이냐, 한평생 인민을 위한 그 길에서 우리 장군님 맞으신 눈이 그 얼마인데 과연 그 눈이 적었던 말이나, 마지막 영결의 길마저 정녕 우리 장군님 눈길우로 가셔야 한단 말이나... 이것이 눈을 쓰는 사람들의 하나같은 생각이었다.

문득 누군가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울음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장군님! 안됩니다. 이렇게 가실수는 없습니다. 인민과 영결하시는 이 길마저 이렇게 눈길우로 가시게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통절하게 울리는 사나이의 목소리...

그리고는 자기의 솜옷을 벗어 길우에 정히 퍼놓는 것이었다.

저저마다 솜옷을 벗어 퍼놓는 사람들. 순식간에 길은 각양각색의 솜옷으로 덮이였다. 집에서 이불이나 모포를 들고나와 퍼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우에 내려앉기를 차마 저어하는듯 가벼웁게 날리는 눈송이들, 눈우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방울...

흰눈을 무겁게 떠이고 서있는 가로수들도 그 눈물겨운 광경에 가지를 떨며 눈가루를 흩날리었다.

눈은 지금 길우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리고있었다.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며, 심장을 차갑게 얼구며 내리고있었다.

아, 하늘아, 너 정녕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알아준다 하였는데 너 정녕 이 나라 천만사람들의 마음을, 뜨거운 진정을 그리도 몰라준단 말이나. 너도 이 나라의 하늘이 아니냐.

눈, 이 나라 강산에 내리는 12월의 눈은 행복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영광의 달이여서, 백두광명성을 안아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신 달이여서 12월의 눈은 행복이였다.

눈, 이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12월의 눈은 기쁨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따라 기적과 위훈을 떨치며 달려온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는 달이여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또 한걸음 크게 내짚은 자랑과 장군님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굳은 맹세를 안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달이여서 12월의 눈은 기쁨이였다.

눈, 우리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12월의 눈은 축원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새해에도 건강하시여 우리 조국과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주시기를, 그이께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그날까지, 세월의 끝까지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안고 내리는 눈이여서 12월의 눈은 축원이였다.

그래서 12월의 눈은 언제나 햇솜처럼 포근하고 따스하였다.

그러던 12월의 눈이 이토록 차갑고 이리도 무거웁게 느껴질줄 우리 어이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눈보라치는 2월에 인민에게 오시여 인민을 위해 한평생 찬눈길을 그리도 많이 걸으시고 눈오는

12월에 인민의 곁을 떠나시는 장군님.

이 나라 인민의 어깨우에 내리는 찬눈을 자신의 한결 야전복자락으로 다 막아주시어 따뜻한 보금자리 지켜주시고 만복을 꽃피워주신 우리 장군님 아니셨던가.

조국과 혁명을 위해, 인민을 위해 찬눈비 내리는 험한 길 걷고 또 걸으시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아버지장군님이시였다.

그래서 이 나라 천만자식들이 아버지장군님 이제 더는 찬눈비를 맞지 마시고 단 하루라도 편히 쉬시기를 그리도 간절히 바라고바랐건만, 그래서 《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고 진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불렀건만 인민의 그 정성이 적었던 말인가. 인민의 진정어린 그 노래소리가 저 하늘에까지 가닿지 못했던 말인가.

2011년의 12월에는 류달리도 눈이 많이 내렸다.

천출위인을 추모하여 하늘이 흘리는 눈물이 눈송이되어 내리는것인가. 너무도 크나큰 슬픔에 하늘이 통채로 눈송이되어 무너져내리는것인가. 하늘을 짝 덮으며 내리고내리던 억만송이 눈송이...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천만심장을 얼마나 차갑게 얼구고 천만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던가.

그런데 마지막 영결의 길에서마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허비며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있었다.

생각은 깊어만 가는데 눈은 여전히 소리없이 내리고내렸다.

...문득 울려오는 노래소리,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장중한 선율!

아!

홀날리는 눈발속을 헤치며 우리의 장군님께서 웃으며 오고계시였다.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로, 한평생 그토록 정을 다해 사랑하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인민에게로 오고계시였다.

심장을 후덥게 하는 그 미소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강산을 밝혀주는 그 미소에서 우리의 광명한 미래, 밝고 창창한 앞날을 확신하던 우리 인민이였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인민이 울고있었다, 강산이 몸부림치고있었다.

아, 장군님!

하지만 장군님은 웃고계시였다. 생전의 그 나날처럼, 찾아주신 일터마다에서 환희에 넘쳐 뵈옵던 그날처럼 우리의 장군님은 환하게 웃고계시였다. 태양의 빛발을 뿌리고계시였다.

영명하신 **김정은**동지가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 모두다 강성국가 건설대전에서 승리자가 되고 위훈자가 되라고, 강성부흥하는 조국땅에서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며 환히 웃고 계시는 아버지장군님.

태양의 빛발과도 같은 그 미소에 천지가 밝아지는듯 했다.

우리의 가슴을 치고 심장을 울리는 크나큰 웨침!

우리 장군님은 가지 않으셨다!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으로 우리 인민의 마음속으로, 심장속으로 더 가까이 오시였다!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태양의 위업은 영원하다!

그 웨침을 심장에 새겨주는가, 태양의 영원한 미소의 빛발속에 눈은 끝없이 내리고있었다...

나는 손을 펼쳐들었다. 파스한 손바닥우에 너울 너울 내려앉는 하얀 눈송이, 눈송이...

눈송이여, 너에게 물어보자. 너 그날의 눈송이 아니냐. 태양의 축복의 미소를 안고 하늘가에 날리던 12월의 그날의 눈송이는 아닌지.

눈송이여, 너는 알리라. 12월의 그 나날에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를 우러르며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가를, 얼마나 위대한 태양영생의 진리를 심장에 새겼는가를.

눈송이여, 너는 알리라. 12월의 눈내리는 그 나날에 우리 얼마나 심장으로 절감했는가를,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또 한분의 인간사랑의 태양을 모셨는가를.

우리 수령님 그대로이시고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그 태양의 빛발이 얼마나 파사롭고 은혜로운가를 우리 인민은 12월의 눈내리는 그 나날에 한모금의 더운물에서조차 심장으로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눈송이여, 너는 알리라, 12월의 그 나날에 우리 다진 심장의 맹세 얼마나 굳센것인가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발걸음소리 드높이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가고갈 그 맹세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으리.

눈이 내린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생토록 녹지 않을 12월의 그 눈송이를 되새겨주며 내리고내리는 눈송이, 눈송이...

뜨거운 추억을 불러주며, 못 잊을 그리움을 더해주며, 불타는 맹세를 덧쌓아주며 눈이 내린다.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이다.

— 공동사설에서 —

시뭍음

영원한 그리움의 불길 불길 처녀

주명옥

보고싶으시여
한시바빠 보고싶으시여
철계단을 쿵쿵 소리내어 밟으시며
수직방사직장 한끝까지 비날론마중을 오신
장군님을 뵈온 그날부터란다
처녀방사공 작은 가슴에
큰 불길처럼 비날론을 안고 살게 된것은

그날부터 처녀는 생각했더란다
비날론 돌실을 뽑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그리고 생각했더란다
얼마나 많은 비날론을 안아내야
그이께 정말로 큰 기쁨 드릴까

그래서 처녀는
청춘의 꿈도 희망도
비날론에 고이 안고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바쳤단다
천실만실 은실처럼 곱게 곱게 뽑으며
보석같은 팜방울로 수놓았더란다
어느새 계절을 바꾼 창밖에선
비바람 불고 눈바람 세차도...

수직방사
수평방사
보란듯이 꾸린 휘넓은 일터에서
그렇게 가슴속 뜨거운 마음으로 뽑아낸
아, 그 비날론
장군님 또다시 보아주실 때는
정말 비단같았단다

정말 흰눈같았단다

오늘은 아, 오늘은
12월의 피눈물언덕에서
맹세의 새해를 맞은 그 처녀
첫달계획 선잠 끝냈다고
영예의 꽃목걸이 안겨주니
능금볼에 흐르는 눈물 씻으며
목매여 부디 사양하누나
이제 일을 시작했을뿐이라고...

장군님념원어린 주체비날론
집집마다 웃음속에 필필이 가닿고
온 나라가 비날론덕을 크게 보게 될 그날
장군님처럼 꼭 찾아오실
우리의 **김정은**동지
기쁨속에 눈물속에 뵈옵게 되면
처녀는 진정 삼가 아뢰이리라
장군님 지퍼주신 불길에서 비날론이 나왔다고
비날론을 더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 그 진정 그 소원을
처녀는 한생토록 마음속 불길로 안고살리라
그 불길 안고 장군님을 그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서
세월의 끝까지 가고가리라
우리 장군님 헌신의 천만로고 깃든 비날론
이런 불같은 처녀의 뜨거운 마음어린 비날론
어찌 대고조불길의 뜨거운 나래가 아니되랴

꽃이 되어 열매 되어

최정용

못 잊을 5월의 그날엔
피고피여 만발한 사과꽃으로
다시 오신 10월의 그날엔

아지마다 주렁진 탐스러운 열매로
어버이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룡전땅

불수룩 장관이다
 마치 정렬한 열병대오인듯
 키낮은사과나무들 일매지게 늘어섰는데
 알알이 빛갈도 고운 사과
 가지마다 주렁져 무겁게 휘늘어져

설레이는 물결이런듯
 가을바람에 설레이는 파수의 바다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
 차마 믿기 어려워라
 바다마냥 설레이는 이 거창한 파원을
 농장원들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터놓는
 진정어린 말은 그 하나
 눈을 띄워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 헌신을 떠나
 결코 바랄수 없는 오늘의 전변이란다

예지의 그 빛발 받아안고
 용암처럼 끓어번지던 가슴과 가슴들
 그 무슨 말이면 다 전하랴
 하나같이 떨쳐나 결사전 벌려가던
 그 나날의 하많은 사연들을

다름아닌 장군님 가르쳐주신 새 기술로

우량종과일나무모도 키워냈고
 장군님 안겨주신 힘으로
 언땅을 파헤치며 드넓은 포전을 정리하고
 전호식구멍이며 콩크리트기둥도
 제힘으로 해내고야만 룡전사람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결코 변할수 없는것은
 결사관철! 그 정신이었거니
 물러선적 없었다 단 한걸음도
 주저앉은적 없었다 부닥친 난관앞에서

오로지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그 불굴의 정신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낳았거니
 장군님 지펴주신 심장의 불이
 꽃이 되고 열매된 룡전땅

아, 고귀한 삶의 진리를
 천만심장에 새겨주며
 나날이 더 활짝 피어나리라
 축복받은 청춘과원의 꽃들은
 더 무겁게 떠실리리라
 선군시대 무릉도원 룡전땅의 과일들은
 장군님의 강성부흥구상 꽃피어나는 이 땅우에
 불길마냥 붉게붉게 무르익으리라

비 료 여 비 료 여

서 진 명

바라고바라던 기쁨이 오는 소리
 가슴 후련토록 듣고만싶은데
 비료여 비료여
 너는 왜 그리도 조용히 쏟아지는것이나

미처 착공의 첫삽을 뜨기도 전에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던 장군님
 나와 힘을 합쳐
 가스화공정건설을 끝내자시던 그날로부터
 눈가에 그려보고 마음속에 안고산것이
 비료여 네가 아니었더냐

몸이 그대로 불길이 되고
 가스가 되고 질소가 되어서라도
 장군님께 한시바빠 이 비료를 보여드리고싶던
 격전의 2년세월
 꿈을 꾸어도 비료꿈을 꾸던
 우리 마음 네 정녕 모른단 말이나

비료여 비료여
 네 쏟아져내리더라도

삼복철에 겨울날에 이른봄날에
 그리도 자주 홍남을 찾아주시던
 장군님의 그 발자국소리 들려주며
 쏟아져내리려무나

우리 공장을 현지도하신 걸음으로
 산소분리기문제를 마음쓰시여
 여기 동해기슭에서 서북변의 한끝
 락원땅을 찾아가시던
 야전철차의 새벽기적소리를 들려주며
 쏟아져내리려무나

비료여 비료여
 너 쏟아져내리더라도
 저기 평양하늘가까지 올려가게
 수령님과 장군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하늘가까지 올려가게
 그렇게 소리쳐 쏟아져내리려무나

아기들이 엄마젖품을 찾듯
 농장벌에 커가는 곡식포기들에

애타게 찾아도 배불리 줄수 없었던 비료
 이제는 마음껏 안겨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포전은 포전마다 총알처럼 여문 이삭들이
 땅이 꺼지도록 실리게 되었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주시려는
 장군님의 그 위대한 사랑
 주체비료폭포가 되어
 강성국가 승리봉으로

내 나라를 힘있게 떠밀어올리며
 여기 홍남땅에서 팡팡 쏟아져내린다고

비료여 비료여
 쏟아지더라도 온 나라가 다 듣게
 우뢰처럼 하늘땅을 뒤흔들며
 쏟아져내리려무나
 함남의 불길 비료로 더 세차게 지퍼갈
 우리의 불같은 충정을 안고...

그 리 움 의 불

최 명 길

비료지구의 푸른 하늘을
 억척으로 떠받든 강철기둥인듯
 합성탑과 정제탑들이 치솟은
 비료공장구내에 펼쳐진
 축하방송모임 야외무대

승리자들의 축전장인듯
 주체공업의 시위인듯
 결사관철의 격전장을 펼치며
 앞을 다투어 무대에 나오는
 결사관철의 전위투사들

장군님명령이라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신념과 배짱으로
 새 대형장치물들을 만들어낸 기계공장 지배인
 하루에 수백매의 설계도면을 완성한 설계원
 남편들을 도와 펼쳐나선 녀맹돌격대원들

걱정없인 들을수 없고
 눈물없인 볼수 없는 광경을 펼치는 무대에
 애젊은 용접공이 나섰구나
 방금 건설전투장을
 여기에 옮겨온 군인건설자인듯

그는 자기 자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다
 그의 말엔 요란한 표현도 없었다
 그가 조용히 펼쳐든것은
 불에 끄슬린 작업복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몸에 불이 달린줄도 모르고
 용접을 했다는 그의 심장의 말을
 불에 끄슬린 옷이 모두 말해주는데야
 무대우에서 웃고있는 그 웃음이 다 말해주는데야

장하다 애젊은 용접공
 안아주고싶구나 나의 막내아들과 같은 너를

그 옷을 나도 입어보고싶구나
 그 옷을 입고 내 어제날 청춘시절로 되돌아가
 그네들의 결사관철대오의 한 병사로 되고싶구나

무엇이 다르랴
 불속에서 불바다속에서
 한몸이 불에 타 한덩이 솟이 되어도
 구호나무의 한자한자 글발에
 영생하는 심장의 고동을 남기고 간
 무재봉영웅들의 그 신념 그 의지 그 모습과

애젊은 용접공동무어
 지금 온 나라가 너의 그 옷을 보고있다
 그 옷을 마음속에 펼쳐입고있다
 장군님 주신 과업이라면
 불속천리 물속만리라도 헤쳐온
 그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심장에 새기고있다

미덥고 장한 너의 모습은
 용접으로 철과 철을 이어가는
 용접공으로만 보이지 않누나
 너의 한몸 용접의 불이 되고 쇠물이 되어
 수령결사옹위 조선의 신념과
 결사관철 조선의 의지를
 억척불변의 하나로 튼튼히 이어놓은 불

아, 아버지장군님을
 쏟아지는 비료폭포앞에 모실 그날을 그리며
 그대의 가슴속에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타오른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불길
 그 불길 오늘도 타번지고있구나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라
 강성부흥으로 나아가는 충진군대오
 천만의 심장을 달구어주며
 영원한 애국충정의 불, 그리움의 불로...

그 가을을 안고삽니다

리 미 옥

창밖엔 소리없이
흰눈이 내리는데
마음속엔 못 잊을
그 가을이 펼쳐집니다

코스모스며 들국화...
어디라없이 꽃들이 우거졌던
마을앞 언덕너머로
봄내 여름내 땀흘려가꾼 들이
하나의 황금색으로 어우러졌던 그 가을

북방의 광산과 흥남의 비료공장을
찾으신 그 걸음으로
고향벌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이 되려
애써 가꾼 알찬 열매들이
그림처럼 펼쳐졌던 그 계절이

얼마나 기다리던 계절이었습니까
눈내리는 그날부터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거름을
간절한 소원과 함께 땅속깊이 묻어주고
네벌길 매던 날엔
빠끔히 내미는 이삭을 환희에 넘쳐 바라보며

그 나날엔 어찌 알았겠습니까
변덕많은 자연의 횡포에도
마음의 불을 안고
검질긴 뎡해도 쏟아지는 폭우도
그리움을 안고 이겨낸 그 정신이
우리 장군님 그리도 값높이 불러주신
함남의 불길이 될줄

그 계절이 아니었습니까

그칠새없이 장마비 쏟아붓던
해빛이 그림던 나날에도
오히려 웃으며 웃음으로 이겨내며
알찬 열매를 장하게 안아온
사람들의 못수고가
들에 새겨졌던 계절이

아, 정녕 믿을수 없었습니다
더 잘 익히지 못한 난알을 두고
송구한 마음을 눈물에 담는
우리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다음해에는 농사를 잘 짓자고
힘과 용기를 주시던 자애깊은 우리 장군님
다시는 이 벌에 모실수 없다는것이

기쁨에 한껏 물들었던
빨간 단풍잎 떠신고가던 개울물이며
해빛이 넘치는 우리 사는 새집 창문...
선군시대 무릉도원으로 펼쳐진 내 고향 동봉
땅에
장군님을 다시는 모실수 없다는것이...

무겁게 흰눈은 쌓이고쌓이건만
내 가슴엔 그 가을이 설레입니다
땅이 꺼지도록 알찬 열매 떠실고
그날에 못다 이룬 소원도 함께 안고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이 벌에 모실 열망이
뜨겁게 무르익는 가을에 삽니다
강성국가 억센 기둥 쌀로 굳건히 받들
농민의 의지가 무겁게 실린
그 가을을 안고삽니다

수 필

불 꽃

김 혜 인

밤이다. 잠을 모르는 건설장의 밤이다.
사방에서 뚝고 푸른 갯가지 용접불꽃들이 춤을
추며 쏟아져내린다.
나의 앞으로 곤청색작업복을 입은 자그마한 두

처녀가 꿈결처럼 속삭이며 걷고있었다.
《영미야, 우리 저 발생로우로 올라가볼가?》
《그래, 올라가보자.》
《우리 썸을 세며 올라가자꾸나.》

《좋아.》

두 처녀는 꽃새처럼 포롱포롱 계단을 날아 오른다.

《하나, 둘, 셋, 넷...》

두손을 꼭 잡은 영미와 현순이가 이제는 눈을 감고도 오를수 있는 가스발생로 철계단을 범상치 않은 의미를 부여하듯 하나하나 열심을 기울여 오르고있다.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셈을 세지 않은들 어이 모르랴, 그 계단의 수자들...

지나온 그 나날...

의지를 키우며 올랐다, 신념을 가다듬으며 올랐다, 벽돌지계를 지고 때로는 광재솜마대를 메고. ...

만나보니 너무나 평범하고 수수한 두 처녀이다.

늘 가슴속에 품고사는 가족사진을 때없이 꺼내보며 떠나온 고향의 부모형제들이 그리워 남몰래 눈물짓기도 했다는 애 어린 처녀들...

허나 가장 힘겨웠던 가스발생로 축로의 그 나날 영미와 현순이가 선뜻 벽돌지계를 지고 남먼저 웃으며 나섰을 때, 권양기로 벽돌을 쉽게 들어올릴 수도 있으련만 벽돌의 한 귀퉁이라도 상하여 축로에 지장이 될세라 하루에 세톤이 넘는 내화벽돌을 등짐으로 저날랐을 때 온 건설장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알았다, 그들이 결코 평범한 처녀들이 아님을...

얼마나 많은 땀과 무수한 눈물방울들이 저 100여개의 철계단마다를 적셨던가.

처녀들은 자주 울었다. 웃음이 헤폰만큼 눈물도 많은 처녀들이었다. 피멍이 든 어깨가, 앞으로 내짚기 힘들어진 무거운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었다. 남들보다 뒤질까봐, 100여개의 계단을 마지막까지 다 오르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울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와 울었다.

진정 그들의 두볼을 뜨겁게 적셨던것은 물이었는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이었다.

가장 뜨겁고 열렬한 헌신의 작은 불꽃이었다.

한 가정의 범속한 딸만이 아닌 나라의 미더운 만팔로 살고싶은 애국의 뜨거운 불꽃이었다.

《백스물하나, 백스물둘, 백스물셋...》

처녀들은 오른다. 셈을 세며 오른다.

몇계단 오르고선 걸음멈추고 웅웅 동음을 울리며 기세차게 돌아가는 대형산소분리기며 각종 탭들과 판들을 눈썹리 아득하게 바라본다.

은빛강철탑들이 사열받듯 멋지게 쭉 늘어선 탄산가스청정계통에선 약속이나 한듯 오래도록 눈길

을 떼지 못한다.

《현순아, 저 자리에서 우린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겠지.》

《그때, 바로 저 자리야. 우리 두눈동자에 꼭 담아두자꾸나, 한생토록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어느새 처녀들의 눈가에 눈물이 핑 고인다.

두볼을 하염없이 적시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이 앞가슴에 빛나는 금메달들을 주르륵 적신다.

불현듯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명의로 평양에 초청해주셨던 그 꿈같은 행복의 나날들이 사무치게 어려온다.

아, 축복받은 처녀영웅들이여!

저 멀리에서 불꽃들이 반짝인다. 2계열가스발생로건설장에서 쉬임없이 쏟아져내리는 용접불꽃이다.

반짝이는 아름답고 억센 투쟁의 불보라가 동해의 밤바다위에 그대로 비껴 너울너울 춤추고 있다.

불꽃에서 불길이 일어난다.

한점의 불꽃이 거세찬 료원의 불길로 타번지는 법이다.

그렇다, 이 홍남적전장에서 타오른 영미와 현순이와 같은 애국헌신의 수많은 불꽃들이 마침내 위대한 장군님 지퍼주신 거세찬 함남의 불길로 타올랐다. 함남의 불길은 우리 공업의 불길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불길이며 강성국가 최후승리의 불길이다.

함남땅 그 어디든 가보시라.

단천에, 대흥에, 홍남에 그리고 룡성에, 2.8에, 동봉에... 아니, 함남땅만이 아닌 이 땅 그 어디서나 우리는 이런 불꽃들을 보게 될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격렬한 불길을 일으킨 그 유명무명의 불꽃들이 그 얼마인지 우리는 다는 모르고있다. 너무나 모르고있다.

만나보면 너무나도 소박한 사람들, 말해보면 더없이 겸손하고 일밖에 모르는 수수한 사람들...

허나 부디 잊지 마시라.

그 평범한 사람들, 그 무수한 불꽃들이 모이고 합쳐져 우리 장군님이 아시는, 우리 조국이 자랑하는 거세찬 함남의 불길이 되었음을...

그리고 래일을 략관하시라.

바로 그 함남의 불길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일떠선 이 나라 천만국민의 가슴에 활활 타번져 무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오늘과 래일의 휘황한 미래를...



김혜영

1

붉은 띠같은 노을이 동녘하늘에 비끼었다. 청청한 닭울음소리가 간간이 울려오고 밭짓는 연기가 구수히 떠도는 새벽. 아담한 마을을 금방 벗어난 두사람이 동구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짙 벌어진 사나이는 이곳 분조장 박윤식이고 보통키에 몸매가 호리호리한 녀성은 그의 안해 우인향이다.

두사람 다 말이 없었다. 네모진 턱에 구레나룻자리가 푸릿한 남편의 얼굴에도, 초생달같은 눈귀에 까만 기미가 또렷한 안해의 갈쭈한 얼굴에도 이름할수 없는 정회가 비껴있었다. 추억과 희망, 흥분과 불안...

인향은 지금껏 선동원으로 남편과 함께 15년간을 일해온 정든 분조를 떠나 10리밖에 있는 다른 작업반의 부문당비서로 임명되어가는 길이다. 리적인 1등작업반으로부터 제일 뒤떨어진 작업반으로 가게 된 그의 심정이 가벼울수 없었다.

뜻밖의 조치에 놀라고 당황해하는 그에게 리성덕리당비서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중앙모범선동원이 뒤떨어진 작업반을 맡아 주켜세우는거야 웅당한거구 또 한번 해볼만 한 일이 아니겠소?

우동무도 아다실이 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150일전투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두지휘하고계시오. 시대의 요구에 우리가 발을 맞추자면 모든 농장원들을 하나로 단합시켜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거요.

그런데 우리 농장에서 제일 뒤떨어진데가 바로 3작업반이거든.

농장원구성상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보다는 조금일꾼들의 사업방법이 중요하다고 보오.

얼마전에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동무네 9반장을

3반으로 보내주었으니 동무가 가서 합심하면 성과를 거둘수 있을거요.

우선 선동원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고 그들에게 의거해서 일을 하도록 하오.》

...

동구길이 끝나는 곳에 울창하게 자란 아름드리 은행나무밑에서 두사람은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는 헤어져야 했다.

인향은 정작 떠나자니 눈물이 쏟아져 견딜수 없었다. 저도 모르게 은행나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십수년간 정들인 동구의 은행나무.

세아름은 실히 될 굵은 밀둥우로 수십갈래의 줄기가 사방으로 우산살처럼 퍼져나간 그 은행나무는 곧 하나의 화목한 가정으로 굳게 뭉쳐진 그의 분조였고 분조원들이었다. 아침이면 이 나무밑에 모여 함께 일을 나갔고 저녁이면 여기서 하루일을 총화하고 함께 마을로 들어왔다. 삼복철 무더운 한낮때면 시원한 그늘을 지어주는 이 나무밑에서 땀을 들이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인향은 부채모양의 작은 잎들이 무성하게 뒤덮인 나무아지들을 한사람한사람의 분조원들인듯 정겹게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잘있어라, 은행나무야! 내 비록 여길 떠나가도 마음속에 너를 안고 가련다. 3반에 가서도 너처럼 모든 작업반원들을 한줄기에 묶어세워 단합된 집단으로 만들겠어.)

남편의 억센 손이 힘주어 안해의 손을 잡아쥐었다.

《올해농사나 결속짓고는 인차 따라가겠소. 위탁도 있는데 몸을 돌보면서 일하오.》

《제 걱정은 마세요. 오히려...》

인향은 인차 말을 잊지 못했다. 아들은 군대로, 딸은 대학으로 가고 단둥이 살던 집에 이제는 남

편 혼자 남아있게 되었다.

《수경이 아버지 혼자서 집살림을 돌보자면 힘이 들거예요.》

《별걱정... 윤미가 있지 않소? 그 애도 이제 시집갈 때가 됐으니 세간살이실습을 시켜보는것도 괜찮지 뭐.》

그의 막내동생 박윤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유치원교양원을 하는 윤미는 소재지에 있는 부모들의 집에서 함께 사는데 우인향이 3반으로 혼자 나가있는 동안 오빠네 집에 와있기로 한것이다.

《올해엔 누이혼사문제를 매듭짓자고 했던 일이... 또 미루어야 될것 같군요.》

《당신이 언제 가정일에 신경쓸새가 있소? 이제부터야 한개 작업반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진 당초급일군인데 잡도리부터가 달라야지. 내가 곁에서 도와주지 못하는게 안타까울뿐이요.》

《당신두 참...》

목매여 중얼거리는 우인향의 뇌리에는 선동원을 하는 동안 자기를 도와 진일, 마른일 가림없이 말아해주던 남편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자료카드를 만드느라 밤을 새울 때면 남편이 몰래 나가 불을 때서 밤을 지은적이 얼마였던가. 풀거름생산과제를 위해 밤에 서장을 함께 해염쳐 건너가 풀을 베어온적은 또...

남편과 헤어져 10리길을 걸으면서 인향은 이제 또 그런 밤이 올수 있을가 하는 생각에 눈곱이 젖어왔다. 그러는새 어느덧 3반에 이르렀다.

뜨락뜨락이 서있는 작업반실 앞마당에 작업반장 김정현이 초조한 기색으로 서있었다.

인향의 가슴엔 기쁨과 반가움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9반에서 반장과 선동원으로 함께 일해온 그들이 오늘은 여기 3반에서 반장, 비서로 다시 만난것이다.

《반장동지!》

《아, 선동원! 아니아니, 비서동무, 전화반구 기다렸소. 이렇게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쁘오.》

잘생긴 얼굴에 인상좋은 김정현은 인향의 손을 굳게 잡아흔들며 함뱀 웃음을 지었다. 움푹 패인 볼우물과 입귀의 텃이가 인상적이었다.

《누가 비서로 오겠는가 했더니 우동무가 올줄이야, 참 잘됐소.》

《반장동지가 처음엔 못 오겠다구 뻔쳤다지요?》

《에이, 말두 마오. 지금도 도저히 마음이 붙지 않아 이러구있질 않소.》

김정현은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썩썩 쓸며 머리를 흔들었다.

《하긴 저두 정든 분조를 떠나오자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반장동지, 우린 당의 믿음을 안구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나 작업반을 추켜세워야지요.》

《물론 그래야지. 우선 가동률을 보장해야겠는데... 여기 선동원들도 우동무만큼 자기 역할을 한다면 걱정할게 없겠소.》

인향은 전날 리당비서가 당부하던 말이 다시금 공명되어왔다. 우선 선동원들과 합심하고 그들에게 의지해서 사업하라고 했지.

그때부터 인향의 뇌리에는 3반선동원인 조화순의 이름이 꼭 박혀있었다.

조화순! 중학교 문학소조시절의 친우이며 처녀시절 한분조에서의 경쟁자였던 화순이! 재능과 열정이 겸비되고 승벽심 강한 이악쟁이었어. 세월이 흘렀다고 그 모든것이 변할수 있을가?

인향은 저으기 흥분되는것을 느꼈다.

《반장동지, 제 선동원 조화순동무네 집부터 가보고 오겠어요.》

김정현은 그러기를 기다렸다는듯 패히 응했다.

《화순이가 요새 선동원을 못하겠다 한다는데 그래주면 좋겠소.》

화순의 집을 찾아가는 인향의 눈앞에는 20여년전의 나날들이 파도쳐왔다.

중학시절 문학소조에서 화순은 인향이와 쌍벽을 이루는 실력가였다. 승벽심에서도 인향이한테 짝지지 않았다. 승부가 명백한 때에조차 기권을 모르고 이악하게 달라붙는 화순을 인향은 오히려 고맙게 여기곤 했다. 경쟁자가 없으면 자기의 걸음도 자연히 떠지고 재능도 무디어질것이 아닌가!

화순은 화순이대로 앞선 사람을 경쟁자로 삼아야 자기의 키도 그만큼 따라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두 처녀는 농장에 함께 진출했고 한분조에서 일하게 되었다. 명랑하고 일손빠른 그들의 존재는 분조농장원들속에서 인차 두각을 나타냈다. 하여 19살부터 한작업반의 두개 분조에서 각기 선동원사업을 맡아하게 되었다.

정열이 불타는 두 처녀는 새벽이면 붉은기를 들고 남먼저 포전에 나가 쫓는것으로 하루의 선동사업을 시작했다. 그럴 때면 불타는 노을빛에 흠뻑 물든 그들자신이 붉은 기폭처럼 장하게 보여 스스로 격동되곤 했다.

손풍금을 메고 일터에 나가 실참마다 새로 나온 노래도 배워주고 흥겨운 오락회도 조직하였으며 술선 나서 춤추고 노래부르고 시랑송과 만담도 했다. 밤에는 작업반선전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자료카드를 만든다, 숙보를 쓴다 하며 날새는줄을 몰랐다.

두 처녀는 그야말로 쌍둥이선동원으로 보배처럼 떠받들렸다.

인향은 희곡 《붉은 선동원》을 보고 또 보면서 주인공처럼 해보려고 모든 면에서 노력했다. 선동원은 뭐니뭐니해도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서 1등을 하리라고 단

단히 잡도리를 했다. 아침출근에서부터 화순이와의 경쟁이었다. 첫새벽에 먼저 나가려고 작업복차림에 장화를 신은채 부엌바닥에서 새우잡을 자곤 했다, 편한 잠에 들면 깨지 못할가봐... 그때마다 이붓어머니와 사는 아버지의 오해와 노여움을 사야 했다. 그래도 좋았다. 그가 앞장에 서니 농장원들도 자연히 따라나섰던것이다.

그러나 이신작칙만으로는 분조의 합심을 이룰수 없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따라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몸이 아파 못 나오는 사람, 식구가 많아 가정일에 포로되어 뒤떨어지는 사람, 마음속 고민때문에 의기를 잃은 사람... 병에 따라 처방이 다르듯이 매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는 각이한 사업방법이 필요했다. 앓는 사람에겐 병문안도 가고 가정부담이 큰 사람에겐 물질적방조와 함께 로력적인 지원도 힘껏 주었다.

두 처녀는 선동사업에서의 방법론을 두고 진지한 토론도 벌리고 고충을 함께 나누기도 하면서 분조의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경쟁의 앞장에서 승부다툼을 격렬하게 벌렸다...

그랬던 화순이가 오늘에 와서 왜 선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을까?

2

어느덧 우인향은 탈곡장결에 자리잡은 아담한 살림집앞에 이르렀다.

마당에서 닭모이를 뿌려주던 중년녀인이 깜짝 놀라 눈을 홑떴다.

《아니— 이제 누구냐? 인향이 네가 어떻게?》

《왜? 난 뭐 중학동창생의 집에 찾아오면 안된다던?》

인향은 웃음을 머금은채 화순의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바라진 몸매에 야무지게 생긴 동실한 얼굴, 넓고 반듯한 이마밑에 리지적인 눈빛...

화순은 화순이대로 작업복차림의 인향을 올리훑고 내리훑고 하며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자, 어서 들어가자.》

화순에게 이끌려 방안에 들어가니 윤택한 살림살이가 한눈에 안겨왔다. 벽엔 값진 풍경화와 화려한 장식품들이 붙어있었다.

《어쩐지 처녀시절과는 판판 달라진 화순이를 보는것 같구나.》

《달라지지 않으면? 인간은 어차피 환경의 지배를 받기마련인걸 뭐.》

인향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선동원을 정말 그만두겠니?》

《정말 아니면?》

《너야 일도 잘하고 아는것도 많고 웅변술 좋겠다, 손뚱금수에 노래 잘 부르지. 선동원을 그냥 하면 좋겠는데 어째서...》

《제발 선동원소린 그만해라. 너야 이제 선동원으로서 받을수 있는 명예는 다 받았으니 부러운게 없겠지.》

우리 작업반은 너희네 9반과는 사정이 달라.

이제 또 어떤 비서가 오려는지 그 기계다리때문에 골치아플게다.》

《아니, 기계다리가 누구제?》

《기용만이라고 있어. 축구 잘한다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세상 말썽군이란단다. 법기관의 교양까지 받구 나왔다면 알만 하지 않니?》

인향은 흠칫 놀랐다. 영문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감이 들었다.

《무슨... 죄를 지었던 사람인게지?》

《고난의 행군때 무슨 나쁜짓을 했단던지... 에, 그까짓 구체적으로 알고싶지도 않다.》

《그래도 공화국법기관의 교양을 받고 나왔으면...》

인향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잦아들었다.

《교양을 받았어두 본성이야 갈데 있니? 얼마나 거칠구 심보가 빼놓아졌는지 겪어 못 본 사람은 몰라. 내가 선동원으로서 그를 교양하려다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알아? 걸핏하면 술먹구 싸우려들구... 마주서서 말해야 망신이나 당하니 쓰거워서 외면하는 수밖에...》

《결국 너는 기용만때문에 사업의욕마저 잃구 쉬운 길을 택하겠다는거니?》

화순은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반장, 비서가 다 물러나는판인데 난들 어찌겠니? 얼마전에 새루 온 반장은 리적으로 제일 세다는 사람인데 부문당비서는 어떤 사람이 오겠는지? 아마 손탁이 웬만큼 세지 않아가지곤 작업반을 휘여잡지 못할게다.》

인향은 은근히 불안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들리는 말이... 여기 3반 비서로 평농장원이었던 녀자가 온다더구나.》

《홍, 사람 웃기지 말아. 룡담두 비슷해야지. 손탁 세다는 남자들도 못한걸 치마두른 녀자가 꽤 해낼가?》

《왜? 녀자라구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뭐. 우리 관리위원장동지도 녀자가 아니니? 관리위원장뿐이야? 녀자책임비서도 있는데...》

《하긴?...》

인향을 마주보는 화순의 눈이 점점 커졌다.

《아니, 그럼 혹시... 우인향이 네가?!》

인향은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뭘 숨기겠니? 내가 여기 부문당비서로 왔다.》

《뭐? 아이구 야, 내가 이거 무슨 실수를 저질렀니? 비서동지앞에서...》

화순은 불에 덴듯이 놀라 아부재기를 쳤다.

《실수는 무슨 실수? 어색하게 그러지 말아. 난

그저 우리가 중학교 문학소조원시절처럼 그리구 처녀시절 쌍둥이보배선동원으로 떠받들리던 때처럼 다정한 친구간의 우정을 다시 꽃피우게 되기만 바래..》

《고맙다..》

화순의 눈에는 물기가 글썽 차올랐다.

인향은 그러는 동창생의 손을 꼭 잡아쥐며 간절히 부탁했다.

《화순이, 난 정말 비서로서뿐아니라 친구로서 권고해. 이제부터 나하고 손맞잡구 선동원일을 본때있게 해보자구나. 어때?》

《본때있게?》

《응, 진심을 깡그리 바쳐 기용만동무를 교양하구 온 작업반원들을 일떠세워 농사에서 1등을 하구, 얼마나 멋있어?》

《3반이 1등작업반? 호호...》

조화순은 우습다는듯 깔깔거렸다.

《왜? 못될것 같니? 능력있는 새 반장도 왔겠다, 문제는 우리 초급선전일군들이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달라붙는가 하는데 있는거야.》

《하긴 네 그 성미야 내가 잘 알지. 아무 일에서든 2등도 아니구 1등만 바라는 욕심쟁이, 이 악쟁이!》

화순은 별안간 웃음을 거두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난 어쩐지 너를 여기서 만났게 반갑기도 하구 무섭기도 하구나. 내가 정말 인향이처럼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까?》

우인향은 머리를 저었다.

《난 아직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지 않아. 한단계한단계 툴아오르는중이지.》

《아니, 당원에, 중앙모범선동원에, 아직도 부족하다니 그럼 너의 인생목표는 무엇이란 말이나?》

인향은 잠시 눈을 내리뜨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꼭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당초급일군이 되고싶어.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발동해서 땅이 꺼지도록 농사를 잘 지어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구 그래서 우리 우산땅을 장군님께서 아시는 곳으로 만드는데가 나의 인생목표야.》

《뭐? 너... 넌 정말...》

조화순은 놀라서 말을 잊지 못했다.

인향은 절절하게 계속했다.

《화순이한테만 솔직히 말하는데 이젠 지금의 성과에 도취되고 만족하게 될가봐 스스로 채찍질하기 위해 정해놓은 인생목표야.》

목표를 정하면 정열이 샘솟기마련이구 마력을 다 내어 달리게 되겠지? 인간은 생의 전기간 끝없이 새로운 목표를 내세움으로 해서 지칠줄 모르는 삶의 의욕과 충동을 받아안게 되구 한단계, 한단계 목표를 점령할 때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

는게 아니겠니?》

《목표... 보람...》

오늘 너한테서 새로운 인생철학을 배우게 되는구나.》

조화순은 진심으로 탄복하여 이렇게 고백했다.

《그렇다면 화순이! 이제부터 선동원사업을 본때있게 해보겠다는걸 약속해. 한단계, 한단계 목표를 정하고 힘껏 달려보잔 말이야.》

우인향의 열정적인 말에 힘을 얻은듯 조화순의 눈에서 불꽃이 튀기었다.

《좋아! 오늘부터 새 출발이다,

비서동지! 앞으로 이 선동원을 걸음걸음 잘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정말 어색하게 그러겠니? 호호...》

《호호...》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반실을 향해 떠났다.

3

기용만은 다부진 체격에 근육이 잘 발달된 35살의 젊은이였다. 부리부리한 눈매며 우뚝한 코날 등 얼굴도 자못 사내싸게 생겼다.

중학교때부터 청소년체육학교에 다니면서 축구를 했는데 이때 벌써 《기계다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졸업하고 도체육단에 뽑혀갈 정도였다.

그런데 2년만에 그의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하고련이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가정생활에서 곤란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자포자기에 빠진 그는 체육단에서 나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법기관에 단속되어 법적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아직 미혼이라고 하였다.

지금 조화순네 1분조원들은 오전작업을 끝내고 들어오는 길에 선전실을 개축하는데 필요한 목재를 이웃작업반에서 날라오고있었다.

인향은 화순이와 함께 맨뒤에서 서까래감을 하나씩 들고 걸으면서 홀로 판자를 메고 수직수직 걸어가는 기용만의 뒤모습을 측은히 바라보았다. 누구도 알아보고싶지 않은듯 고개를 깃수긋한채 옮기는 걸음이 별로 힘이 없어보였다.

《기동무가 지금 나이 서른다섯이나 되도록 외톨로 있으니 안됐어. 빨리 장가부려 보내야 할텐데...》

인향의 동정어린 말이였다.

《그런 사람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다 해야 말이 지?》

《그러니까 성격이 거칠어지지 않을수 있겠니? 애인이 생기게 되면 그의 이지러진 마음이 정화될수 있을거야.》

《헌데 애인을 어떻게 얻어주겠는지? 사랑이야

본인이 하는거지 남이 대신해주는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하는 소리야. 하루빨리 용만동무에게도 진정한 사랑이 찾아들게 도와주어야 해. 바로 선동원인 화순이가 말이야.》

《뭐, 내가?》

화순은 기겁을 해서 도리머리를 했다.

《야, 난 다른걸 도와주라면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어두 너자문제만은 정말 자신없어. 글썄 누가 저런 사람한테 오겠다니?》

《그래서 선동원에게 과업주는게 아니냐? 너의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달라붙어보렴. 바친다는게 그 혈육과 같은 마음을 바친다는거지 뭐겠니?》

《글썄... 허지만...》

조화순은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지 대답을 얼버무렸다.

바로 그때였다.

기용만이 나무판자를 멘채 자기 집이 있는쪽 골목으로 꺾어들었다.

《아니, 저 사람이?》

조화순이 어느새 그쪽으로 달려갔다.

《기동무! 목재를 어디로 날라가요?》

용만은 꺼리낌없는 어조로 통명스레 내뱉었다.

《이건 내 뒤편으로 따루 건사했던거요. 참견마오.》

《뭐요? 기동무, 정말 그렇게 놀겠어요?》

화순은 실박한 허리에 한손을 얹으며 위압조로 소리쳤다.

《당장 작업반실로 가요, 더 복잡해지기 전에!》

《무슨 상관이요? 선동원이 무슨 큰 벼슬인가 해서 뻔뻔거리오?》

《뭐예요?》

기용만은 확 돌아서더니 제 갈길을 그냥 가버리려 했다.

인향은 더 생각할새없이 나는듯 달려갔다.

《용만동무! 서라요!》

무춤 서서 돌아보는 용만의 철색얼굴에 비웃음 같은것이 어렸다. 연약한 여자가 억대우같은 자기를 감히 어찌는가 보자 하는 호기심마저 느껴지는 표정이다.

《그래, 공동재산을 빼앗이 제집으로 날라가면서도 부끄러운줄 모르니 대체 동무에게 량심이란게 꼬물만큼이나 있어요?》

《흥, 나같은 놈에게 그런게 있을타이 있소? 다들 날 정해놓은 도둑놈으로 아는데 차라리 먹구 먹었던 소릴 듣겠단 말이요.》

인향은 속이 울컥 치받쳐올랐으나 다음순간 이것이 용만의 지어낸 엇드레질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좋아요. 그럼 어서 목재를 집으로 가져가요! 어서! 그다음 말해보자요.》

못박힌듯 서있던 용만이 불쑥 격분한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니 새 비서두 날 도둑놈으로 몰아버리겠다 그 소리오? 흥! 가져가라면 못 가져갈줄 알아!》
용만은 받는 소마냥 성난 머리를 내뺨치며 씨엿 씨엿 사라져갔다.

인향은 피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용만을 따라 뛰어가려는 화순의 팔을 붙잡아세우고는 작업반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쩐지 용만동무한테 옥땃힌 감정이 있는것 같은데... 화순인 짐작되는게 없니?》

《옳게 봤어. 기동무는 분명 얼마전에 있는 일 때문에 속이 비틀어졌을거야.》

《무슨 일이 있었게?》

화순은 가늘게 한숨을 짓고나서 대꾸했다.

《전 작업반장이 있을 때였는데 그는 기용만을 몸쓸놈이라고 평소에 늘 미워하고 따돌림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작업반선전실에서 회의를 하는 사이에 앞마당에 세워뒀던 자전거 한대가 없어지지 않았겠니?》

어떻게 된 일인가고 모두들 술렁대는데 한참후에 글썄 기용만이 그 자전거를 타고 척 나타나지 않았겠니. 물어보니 급한 일이 있어서 이웃마을에 타고갔다왔다는거야.

반장이 아무리 그래도 말도 없이 남의 자전거를 끌고가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욕을 하니 도리어 체면에서 필필 뛰지 않겠니. 제가 자전거를 훔치기라도 했는가 하면서 말이야. 그러다나니 서로 말들이 거칠게 오갔지. 기용만이 반장이 늘쌍 자기를 빼돌서하니 본다고 옥감을 품고있었던지라 일이 좀 크게 번져졌지 뭐. 그담부턴 집구석에 들어박혀 한동안 일도 안 나오더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화순이 너도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보니?》

《글썄... 좋은 점두 없진 않은데 결핍하면 말썽을 일으키군 하니 정말 골이 아프다. 난 이젠 기용만이 일이라면 두손 들구 나앉았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믿어주구 따뜻이 품어주구 옳바로 일깨워줄 생각을 해야지 않겠니. 그렇게 저저마다 그를 쓴외보듯 하구 따돌리면 그가 갈길이 어디겠니? 그래, 선동원인 너도 그를 그렇게 판세상사람처럼 대했던 말이나?》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

그날 저녁 인향은 화순과 함께 용만의 집을 찾아갔다.

잘 꾸리지 않아 말이 아니었다. 천정이며 벽체가 군데군데 떨어져 마치 상처자리 같았다. 한쪽 옆에는 창고를 지으려고 기초를 파다만것이 불쌍사납게 안겨왔다.

한심하다는 생각보다도 가슴아픈 느낌이 더 들었다. 생에 대한 애착과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는 살지 않을것이다.

기용만은 마시던 술상을 머리맡에 놓은채 너무 러져 코를 끌고있었다.

함께 산다는 늙은 어머니는 어딜 가고 혼자 있을까?

인향은 제때에 이런 사정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집안거둠을 차근차근 해나갔다. 방안부터 깨끗이 정돈을 해놓고 부엌에 나가 찬장이며 가마, 독뚜쟁을 일일이 열어보았다. 식량이 얼마 없었다.

인향은 화순을 시켜 쌀을 가져오게 하고 함께 밥을 지었다.

그릇들을 가시는데 《어머니 왔어요?》하며 그제야 부시시 사이문이 열렸다. 기용만은 게슴츠레해진 눈을 비비며 인향이와 화순을 번갈아보더니 허꼬부라진 소리로 빈정대는것이였다.

《비서가 어떻게 여길 다 왔소? 여기가 뭐 사람이 올데요? 사람의 집인가 말ियो?》

《그래, 동문 사람이 아니면 짐승인가요?》

《나요? 허허... 사람구실 못하고 사람대접 못받는게 무슨 사람이라구... 안 그렇습니까? 비서동지.》

인향은 비틀거리리는 그를 방안에 앉혀놓고 준절히, 안타깝게 타일렀다.

《용만동문 제스스로 자신의 불행을 빚어내고있어요. 지난날 죄를 지었다구 지난날의 타성에 포로되어 자신을 괴롭히면서 왜 그 아까운 체통과 젊은 혈기를 값없이 탕진해요? 왜?》

《뭐... 비서야 안타까울게 있소? 보안서에 말하면... 깨... 깨끗할텐데요, 목재도 채왔겠다... 겐...》

기용만은 술트림을 하고 다시 쓰러져버렸다.

《에익, 저런 주정뱅이를 사람이라구!》

화순이 격분해서 내쫓는 말이였다.

인향은 말없이 밥상을 차려 용만의 머리맡에 놓아주고는 밖으로 나왔다. 캄캄한 밤이다. 눈물이 뺨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너무 속쓰지 마. 원래 저런 사람이야. 사람질 하긴 틀렸으니 내버려두어.》

《아니, 내버려둘수 없어.》

인향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화순이와 헤어진 길로 그는 김정현반장의 집을 찾아갔다. 다음날 작업조직을 위한 사전토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제 생각엔 래일 짬시간에 로력을 좀 돌려서 기용만동무네 집 보수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반장동무 의견은 어때요?》

인향의 제의에 김정현은 펄쩍 뛰었다.

《그 사람 소린 하지도 마오. 다들 바쁘고 힘든데... 아, 집보수야 주인이 자체로 하는거지 그 말썽군 한명때문에 결사량들에게까지 수고를 끼친단 말ियो?》

《그렇게만 볼게 아니예요. 이제 기동무까지 안착시켜서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면 하루가 아니라 열흘분작업이라도 봉창할수 있을거예요. 시간이 일하는게 아니라 정신력이 일한다는걸 아실텐데요.》

《우비서 말이 옳기야 옳지. 하지만 그런다고 그 사람의 빼놓어진 마음이 바루서겠소? 그녀석의 머리는 애당초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단 말ियो. 그 한사람 제껴놓구라도 작업반농사는 얼마든지 할테니 더 신경쓰지 마오.》

《반장동지, 사람을 그렇게 나쁜 측면만 생각지 말자요. 그의 장끼를 살려주어 생활의 재미와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해요.》

집도 꾸려주고 오는 휴식날엔 분조별축구경기를 조직해서 그가 자기의 특기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자요.

제가 돼지 한마리를 내겠어요.》

《아니, 그렇게야 어떻게... 비서동무네라고 무슨 여유가 있겠다구 그러오?》

《그런 걱정은 말아요. 이런 때 쓰려고 돼지를 몇마리씩 기른다는걸 반장동지도 잘 아시면서 그 래요?》

《허참...》

김정현은 더 말을 못하고말았다.

4

리당회의에 참가하고 나오던 우인향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관리위원회앞의 기발대에 줄줄이 내리꽂힌 작업반기발들이 서늘한 저녁바람을 안고 퍼덕이고있었다.

인향의 시선을 붙잡은것은 제일 높이에서 자랑스럽게 나뭇기는 9작업반 기발과 민망스럽게 제일 아래자리를 차지한 3작업반 기발이였다.

인향의 입에서는 호— 한숨이 새어나왔다.

지금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것은 오늘 김매기경쟁총화에서 꼴등한 그자체때문이 아니였다. 기용만이 계속 말썽을 부리는것때문에 속이 상했다.

《우동무, 왜 그러구 서있나?》

리성덕리당비서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아니, 저...》

인향은 당황해서 말끝을 얼버무렸다.

《일이 힘들지? 자, 여기 좀 앉자구.》

리성덕은 리당앞마당의 의자에 먼저 앉았다.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그지없이 뻔뻔하고 예리한 당일군이였다.

《우동무는 우리 당초급일군들이 인간개조에서 중요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나?》

인향은 선뜻 대답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지난 기간 9반선동원으로 일하던 때의 경험에 비추어 말하라면 자신있게 대답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3반의 실패를 놓고서는 똑똑한 처방을 내리기 어려웠다. 대표적으로 기용만의 경우만 놓고서도 알수 있지 않는가. 아무리 도와주어도 달라지는것이 없으니 그에게 합당한 교양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는지?...

그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았는지 리성덕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우동무가 9반선동원으로서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비결이 류창한 언변술이나 능란한 교양방법에 있는건 아니었지. 보다는 사람들을 친절육처럼 사랑하고 자기의 진정을 아낌없이 바친 결과라고 보오.》

리당비서의 말은 길지 않았으나 인향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작업반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이 그냥 귀전을 울리었다.

9반쪽 갈림길어구의 은행나무앞에 이르자 인향은 새삼스런 눈으로 그 자태를 바라보았다.

나의 진정, 나의 헌신이 저 나무의 굵은 밑둥처럼 수십수백의 가지들을 하나로 묶어세울수만 있다면... 아직은 내가 기용만에게 진정을 깡그리 바치지 못했기때문이 아닐가?

인향은 우선 용만이 어디에 가있는지 행처부터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걸음을 떼었다.

그런데 작업반에 도착하니 화순이가 숨차게 달려왔다.

《용만이 말이야. 오늘 또 말썽을 일으켰어. 글썽 풀베기를 하다가 슬그머니 없어지질 않았겠니. 모두들 그를 찾았지. 찾다못해 분조장이 성이 나서 일하기 싫으니 또 어디로 가버린게라구 했지, 당장 다른 분조로 쫓아보내든지 마련을 봐야겠다구 하면서...》

그런데 저녁때가 돼서 풀숲에서 옆구리에 소설책을 끼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지 않았니.》

《소설책을?...》

인향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우선 기용만이 소설책을 본다는것부터가 기이하게 생각되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허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아니, 글썽 책보는 정신에 찾는 소리도 못 들었다는거야. 그게 어디 말이 되니? 구실로 돌려대느라고 하는 소리지. 정말 기가 막혀서...》

정말 전달군버릇 개 못 준다니까.》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야.》

인향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소설책을 좋아한다는건 그가 결코 나쁜 사람일수 없다는걸 말해줘. 오늘 또 한가지 그의 장점을 알게 됐구나.》

조화순은 오히려 기뻐하는 우인향을 어리둥절해서 쳐다보았다.

다음날은 농장적인 휴식일이였다.

인향은 이제 진행될 풀베기전투준비작업으로 고

장난 트랙포트를 살리기 위해 군농기계작업소에 다녀오게 되었다.

피약별이 내려쪼이는 중낮경 무거운 배낭을 지고 돌아오는 인향의 온몸에서는 비지땀이 철철 흘렀다. 트랙포트부속품과 책들이 들어있는 배낭이었다. 오는 길에 군책방에 들러 욕심스럽게 사놓은 책들이다.

점심시간도 지난 뒤라 배도 고프고 힘도 진하여 인향은 겨우 발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앞에서 하얀 반점차가 달려오다가 떴어섰다.

《거 우동무 아니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뜻밖에도 리성덕이었다.

《어마나, 리당비서동지...》

《어서 타오. 동무가 트랙포트부속때문에 작업소에 갇단 소릴 듣구 마중오던 길이요.》

《리당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인향에게서 기용만의 독서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리당비서는 머리를 끄덕였다.

《이제 그에게도 참된 삶에 대한 지향이 움터날 거요. 그 싹을 하루빨리 자래워 활짝 꽃피워주자구. 참 그러잖아도 이번 9.9절체육경기대회 축구예선경기를 얼마 안 있어 하게 되는데 우리 용만동무를 잘 준비시켜야 겠소.》

《알겠습니다!》

인향은 신심에 넘쳐 대답했다. 마을에 들어서자 새로 나온 소설책을 골라들고 용만의 집부터 찾아갔다.

5

그토록 진정을 기울였건만 기용만은 자기의 피박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걸핏하면 신경질을 내고 누구와 맞붙어싸우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오늘일도 그러했다.

요새 기용만은 때없이 술마시던 버릇도 없어지고 일도 착실하게 잘 나왔으며 쉬는 날 축구훈련에도 열성스레 참가했다. 어제는 제일먼저 나와 풀베기작업에도 앞장을 섰다. 옷을 걷어붙이고 근육이 발달된 상체에 땀을 흘리며 무섭게 낫질을 해대는것이 실로 놀랍고 감동겨웠다.

화순이는 기뻐하며 밤새 숙보를 만들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달을 일으킬줄이야...

아침에 스택스적 작업반설로 나오던 기용만은 자기의 이름이 주먹만 하게 찌어진 숙보판앞에 이르자 걸음을 툭 멈추었다.

《150일전투에서 혁신자가 될 새로운 결심밑에 풀베기의 앞장에 선 기용만동무! 열렬히 축하!》

기용만의 얼굴은 대뜸 험상궂게 이그러졌다.

《이건 뭐야? 누굴 놀리자는거야?》

그리고는 뺨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찾더니 조화

순을 향해 샷대질을 해대는것이였다.

《당신 정 사람을 놀리겠소? 이따위로 누굴 교양해보자구? 싹 지워버리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소.》

조화순은 경악하여 그리로 다가갔다.

《기동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거예요?》

《그래, 내가 세살난 아이갈애? 아니면 장기쪽같은가?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뭐 어찌구어째? 기용만이가 혁신자? 핫하하...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지겠다. 그런다구 누가 얼리워넘어갈것 같은가!》

인향이 듣다못해 썩하니 달려갔다.

《용만동무! 눈 똑바로 뜨구 봐요. 동무에겐 이 속보가 뭘로 보여요? 선동원의 진정이 스민 이 글발을 뭘로 보는가 말이에요!》

《그만두시오. 비서도 같소. 왜 다들 이 기용만을 놀리지 못해 몸살들이요? 이 기용만을 혁신자라구 써붙이면 누가 믿는다구 이 놀음이요? 바라지두 않소! 난 술주정뱅이, 전갈군에 말쑥군이란 말이에요.》

《뭐라구?》

부들부들 떨던 우인향의 손이 용만의 뺨으로 버락같이 날아갔다.

철썩! 손에서 전류가 흘렀다. 눈물이 쏟아졌다.

불을 켜진 용만의 눈에서도 불이 번쩍 일었다.

피터지게 입술을 깨어물던 인향은 용만의 팔을 잡아흔들며 절규하듯 부르짖었다.

《누굴 모욕하는거야? 동무가 뭐길래... 동물 위해서 선동원이 얼마나 마음쓰구 땀흘리며 뛰어나는지 알거나 해요?》

무슨 원쑤를 졌다구 동물 놀리겠어? 조금이라도 좋은 싹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내세워주고싶고 자랑하구싶어 안달이 나는것이 우리 선동원들의 마음이에요. 동무가 혁신하는걸 보구 너무 기뻐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구 정성을 다해 쓴 속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구? 위선이라구?

동무가 진짜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내칠수 있어? 사람의 진정도 몰라보는 동무같은게 무슨 사람인가 말이야? 으흠...》

인향은 끝내 터지는 오열을 이기지 못하여 두손에 얼굴을 묻으며 작업반실로 뛰어갔다.

책상에 엎드려 한참 울고있는데 조화순이 따라들어와 위로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데 비서가 이러면 어떻게 해? 제발 진정해라.》

《용만동문... 어떻게 됐니?》

인향은 머리를 들지 않은채 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어디론가 갔는데 붙잡지 않았어. 욕도 칭찬도 다 필요없고 오직 제멋대로, 제 생각

대로 사는 사람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두어.》

《무슨 소리 하니? 그는 나쁜 사람 아니야.》

인향은 번쩍 머리를 쳐들며 부르짖었다.

화순의 눈은 등그래졌다.

《빠져린 죄의식과 남들의 규탄과 의심에 오래 동안 습관되어오다니 그의 마음은 거칠어지고 이지러졌어. 칭찬과 평가가 오히려 당치않게 생각되고 의심스럽게만 여겨지고... 그래서 수치감을 느끼고 격분한거야.》

이젠 자기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알게 해야 해. 믿음을 주어야 한단 말이야.》

화순은 더 말을 못하고 눈물만 글썽해있었다.

《화순이! 힘들어도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기동무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 어서 나가 그를 찾아봐주렴.》

화순은 머리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9반에서 남편이 걸어오는 전화였다. 무작정 오늘 저녁 집에 꼭 와야 한다는 강박부러 들이대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인향이 의아해하자 남편은 대답대신 어처구니없어하는 말투로 밀어버렸다.

《무슨 날인지 당신 혼자 생각해보오.》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탁상일력을 들여다보던 인향은 비로소 자기 생일임을 깨닫고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지금같은 때 생일생각은 하고싶지도 않았다. 귀찮을 맛은 용만이가 울퉁뻔에 어디로 달아났을가?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녹여줄수 있을가? 이런 생각만이 뇌리에 고쳐칠뿐이었다.

잠시후 인향은 낮을 찾아들고 풀베기현장으로 나갔다.

뜻밖에 기용만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쪽구석에서 혼자 수직수직 낫질을 하고있었다.

인향은 반가움에 눈물이 다 솟았다. 달려가 얼싸안고싶었다. 하지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고 옆으로 다가가 일손을 잡았다.

용만이라도 흘끔 옆을 돌아보았으나 아무 말도 없이 풀만 베어나갔다.

헐떡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그 어떤 절규와 항변의 웨침처럼 느껴져 인향은 마음속으로 웨쳤다.

(용만동무! 이 비서가 녀자의 손으로 무엇때문에 매를 들었는지 아직 모르겠어?)

와락와락 풀대를 쓸어눕히는 드세찬 낫질소리가 반발하듯 울려온다.

(나야 이 잡풀처럼 무자비하게 베어버려야 할 몫쓸놈이지요.)

(아니예요. 이 풀도 거름이 되면 곡식을 살찌워 열매를 익혀주지 않아요?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왜 자기의 쓸모를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향은 정말로 용만이와 속터놓고 이야기하고싶었다. 그러나 왜서인지 입이 벌려지지 않았다.

용만의 속을 알길 없는 안타까움,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수 없는 괴로움으로 가슴은 바짝바짝 타들었다. 끝내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못한채 어둠을 맞았다.

총화가 끝난 뒤 작업반실에 들어와 사업일지를 정리하고있을 때였다.

출입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뜻밖에도 기용만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순간 반가움에 휩싸였던 인향은 별스레 험상스러워보이는 사나이의 기상에 무춤 굳어졌다. 마침내 분풀이를 하자는것일까?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리고있는데 저벅저벅 다가온 기용만은 바지뒤춤에서 술병 하나를 꺼내더니 책상우에 툇 소리나게 올려놓는것이였다.

인향은 너무 놀라 숨이 떡 멎는것만 같았다.

용만은 옆에 놓인 원탁에서 고뿌 두개를 갖다놓더니 술병을 기울여 찰랑찰랑 부었다.

《비서동지, 날 용서하십시오.》

인향은 마음이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한 인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때 파르릉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시누이의 독촉전화였다.

마침이라고 생각한 인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용만동무, 우리 집에 가자요. 오늘은 툇 털어놓고 실컷 얘기해보자요.》

인향은 용만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뽀뿌라나무가 줄지어선 동독길로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그 어떤 기꺼움으로 가슴이 한껏 들리는감을 느끼며 인향은 조용히 말했다.

《용만동무, 사람의 한생이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 이젠 동무도 남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새 생활을 창조할 때가 되지 않았어?》

《나같은 늙한데 어떤 녀자가 시집오겠다 하겠습니까? 사람답게 살기야 이젠 틀렸지요.》

용만의 목소리는 저으기 쓸쓸하게 울렸다.

《아니, 왜? 동무가 어째서? 내가 처녀라면 동무같은 남자를 택하겠어, 잘생기고 힘세고. 그뿐이야? 일 잘하지, 축구 잘하지, 모자란게 뭐 있어?》

《그만하십시오. 비서동지야 이 말썽군을 감화교양하자니까 그런 소리도 하겠지만... 난 이미 결혼을 단념한 몸입니다. 이대로 그럭저럭 살다 말지요.》

인향은 자기의 진정을 믿지 못하는 용만이가 더없이 안타깝고 분했다.

《솔직히 말하자. 난 결코 동무를 개조하자고만 이러는게 아니야. 인간으로서 속절없이 시들어가는 한 인생이 아까워서 그래. 동무 하나 없다고 작업반농사 못 짓는건 아니지만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꺼져버릴 동무의 한생이 정말 가슴아파 그래요.》

인향의 절절한 호소는 오히려 붙는 불에 기름마냥 기용만의 울분을 폭발시켰다.

《그러니 절더러 이제 어찌라는겁니까? 아무리 일을 잘한들 지은 죄가 큰데 그 어지러운 경력을 지워버릴수 있다는거요? 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늙이구 이 사회에 아무 쓸모도 없는 쪽정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용만의 마지막말은 흐느낌소리처럼 마구 떨리었다. 몸마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인향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내 오늘 이야기 하나 할가?》

《...》

《고난의 행군시기, 매 인간의 신념과 량심이 검증되던 그 어려운 때에 용만이와 같이 죄를 지은 한 인간이 있었어. 어느 한 농장의 작업반장이였던 그는 자체로 농사짓는다고 작업반의 생산물을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국가에 많은 손실을 입히고 법적처벌을 받게 되였지.》

그는 자신이 당하게 된 수치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딸때문에 더 죄스럽고 가슴이 아팠어. 열두살 때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슬하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를 유일한 자랑으로 간직했던 딸이였어. 그런데 금방 결혼식을 하고 새살림을 편 그 딸이 이제 그 아버지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게 될걸 생각하니 더욱더 자신이 한스러웠던거야.

그 사람은 그후 피타는 노력으로 자기 죄를 씻으려 애쓰고애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일하고 일해도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한 일이 너무도 보잘것 없다고 괴로워했지.

그는 몇해전 세상을 떠나면서 딸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지금까지의 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면에서 남보다 앞장서느라 애썼지만 나라가 어려운 때 체구실을 똑바로 못하다나니 네앞에 아버지로서의 면목이 없구나.》

이 아버지를 부디 용서해다우. 내 어떻게든 나라에 끼친 손실을 보상하려 했는데...》

인향은 잠시 말을 끊고 격한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깊이 물어둔채 그 누구에게도, 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떠올리기 저어했던 괴로운 추억, 허나 기용만을 위해서라면 그것마저도 서슴없이 털어놓아야 했다.

《그래서 그 딸은 뼈를 깎으며 일을 하고 또 했어. 남들이 잘 때도 일을 했구 명절날, 휴식날에도 남모르게 포전에 나가 땀을 물었어. 누가 알아주고 평가해주기를 바라서였겠어? 오직 아버지의 죄를 씻자면 한생을 다 바쳐도 모자란다는 생각뿐이었지.》

그런데 당에선 일한 공로에 따라 표창해주구 줄수 있는 명예와 영광을 다 안겨주었어. 당원이 되구 중앙모범선동원이 되구 전국선동원대회와 당창

건 60돛 경축행사에도 참가했어. 꿈결에도 그리울
던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촬영까지...
그때의 감격을 어떻게...》

인향은 울컥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두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느
라 그는 기용만이 우뚝 멈춰서서것을 미처 알
지 못했다.

《비서동지! 그가 누구니까? 어디에 있습니
까?》

인향은 불을 뿜는듯 한 용만의 두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어보였다.

《홍분하지 말아요. 내가 바로 그 여자예요.》

《예?!》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건 용만동무
도 지난날의 파오를 씻고 참된 인생을 되찾기 바
래서야.》

용만은 울대뼈가 오르내리도록 거친 숨을 툿터
니 불안간 와락 인향의 손을 틀어잡았다.

《누님! 으흠...》

억대우같은 사나이의 어깨가 세차게 물결쳤다.
인향은 숨이 꺾 막히는듯 한 압박감속에서 겨우
소리를 짜냈다.

《아니, 왜 이래요? 취하지 않았어요?》

용만은 반발하듯 부르짖었다.

《취했다구요? 내가?》

설레설레 머리를 짓는 용만의 눈에서 눈물이 번
쩍이었다.

《그래, 취했수다! 누님의 향기에 내 취했
수다.》

용만의 큰 머리가 인향의 팔에 풀썩 얹혀지더니
뜨거운 눈물이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우인향이기도 그만 붙잡고 함께 울고말았다.

얼마후 집에 들어서니 기다리던 남편과 시누이
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작업반을 대표해
서 날 축하해주려구요.》

《아, 그렇소? 어서 들어오라구.》

인향은 머뭇거리는 기용만의 손을 잡아끌며 이
번에는 시누이를 소개했다.

《유치원교양원을 하는 누이예요, 박윤미라구.》

오빠를 닮아 뾰족뾰족하면서도 덕스럽게 생긴
윤미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어린다.

《어서 오세요, 대표동지!》

수긋하고 방안에 들어선 용만은 처녀쪽은 바라
볼념도 못하고 한쪽벽에 짝 찬 대회기념사진들과
참가증, 표창장과 상장들을 낚을 잃고 보고 또 보
았다.

소박하나 진정어린 생일음식들이 상우에 차
려졌다.

박윤식이 옷방에서 꼴 두병을 들고 내려왔다.

《리당비서동지가 보내온 산꿀이요. 당신이 위

병때문에 고생할거라면서...》

《리당비서동지가요?》

꿀병을 받아드는 인향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
다. 어머니를 대신해주는 리당비서의 다심한 사랑
이 뜨겁게 안겨왔다.

그사이에 상을 다 차린 시누이가 세사람의 잔에
발그레한 살구술을 가득가득 부어놓았다.

《형님, 생일을 축하해요.》

《고마워, 나때문에 누이가 수고많은데 나도 한
잔 붓자.》

인향은 찰랑찰랑 술을 부어 윤미에게 내밀었다.

《올해엔 누이가 꼭 시집을 가기 바래. 뭐니
뭐니해도 녀자의 행복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

《호호... 어디 랑군님이 있어야 시집을 가지
요?》

《그럼 내가 신랑을 골라주어야겠구나. 그저 오
빠같은 사람이면 되겠지? 일 잘하고 색시 사랑해
줄줄 아는 사람!》

《야! 어쩔 댜 알아맞출가? 호호...》

윤미는 재미있다는듯 손뼉을 마주치며 깔깔
거렸다.

《통담 아니야. 누이, 꼭 내가 골라주는 사람한
테 가야 해, 약속할수 있어?》

《아이, 형님이 골라주는 사람이라면야 어떤
하겠어요?》

《그럼, 제집사람한테 나쁜 사람 붙여주겠
니?》

용만은 곁에서 오가는 말에는 일체 무관하고 그
냥 벽의 사진들에만 눈길을 박고있었다.

그를 바라보던 인향의 마음속에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기동무를 우리 누이와 붙여주면 어떻게?

기동무가 생기기야 사내싸게 잘나고 인정도 깊
지. 그도 앞으로 훌륭한 혁신자, 열성농민이 될수
있어.)

그를 누이의 곁에 세워보는 인향의 마음은 사뭇
두근거렸다.

(다른 집 처녀가 아니라 오직 우리 집 처녀라야
이 일은 성사될수 있어. 문제는 수경이 아버지를
리해시키는건데...)

그날 밤 인향은 남편에게 자기 속생각을 내비
쳤다.

뜻밖에도 남편은 《당신 생각을 내가 반대한적
이 있소?》하고 말하여 인향을 감동시켰다.

《그런데 윤미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레 뇌이는 인향의 어깨를 끄당겨안아주며
남편이 말했다.

《너무 걱정마오. 기동무가 150일전투에서 혁신
자가 되고 9.9절체육경기에서 우승자가 되고 정말
로 모범농민이 되는 그날이 오면 윤미도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될거요.》

《정말 그렇게 될가요?》

《되지 않구.》

《당신은 정말... 용만이와 윤미가 결합되면 행복하리라고 믿나요?》

《민소, 당신이 진정을 바치는 한...》

인향은 남편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6

그러나 생활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풀베기가 고조에 이른 때에 기용만은 부두에 비료하차를 나갔다가 그만 발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발가락을 무조건 잘라야 한다고 했다. 축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에게 있어 발가락절단은 실로 치명적인 운명의 선고가 아닐수 없었다.

용만은 절망에 빠져버리고말았다. 앞날에 대한 한가닥 희망마저 잃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수 없었다.

인향은 무작정 수술의사를 막아나섰다.

《칼을 대지 마세요. 이 사람은 발가락을 자르면 안돼요!》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발가락이 중한가, 생명이 중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술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보았으나 지금처럼 첨예한 물음앞에 서보기는 처음이었다. 물론 생명이 중하다. 하지만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기용만이 아닌가. 인향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책임지겠어요. 이 사람은 내 동생이에요. 자르지 말고 치료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향의 단호한 선언은 사람들을 어리뻏하게 만들었다.

그날부터 인향은 일 끝낸 저녁마다 병원으로 달려왔다. 정성껏 해운 음식들을 환자에게 대접했고 좋다는 약재들은 다 구해다 써주었다. 동통에 잠 못드는 용만의 침대에 붙어앉아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용만이! 참대는 불에 타도 휘지 않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기적이 일어날지 알겠니?》

인향은 정말 그렇게 믿었다. 사랑의 힘은 죽음도 이긴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용만이를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상 기적은 일어날것이다.

《누님! 난 설사 발가락이 썩어 생명을 잃는데 두 한이 없어요. 생전에 누님같은 사람을 만나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받아보았다는것만으로도 난 행복해요.》

기용만은 울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 소리 마. 죽긴 왜 죽는다고 그래? 지금 조화순선동원이 네 뒤통까지 하느라구 아글라글하는

데 빨리 나아서 일을 해야지.》

인향은 엄하게 질책도 해가며 정성껏 굄긴것을 처치하고 고약을 불로 지져 붙여주었다.

한편으로는 조화순과 함께 작업반의 풀베기전투를 앞장에서 이끄느라 불이 나게 뛰어다녔다.

조화순은 올상이 되어 인향을 찾아왔다.

《야단났어. 500톤을 하자면 아직 멀었는데 풀원천지가 완전거덜이야. 어찌문 좋니?》

인향은 허리에 손을 짚고 좌우를 둘러보았다. 오른쪽은 무연한 벌판이요, 왼쪽은 유유히 흐르는 서강이다. 그의 손이 강쪽을 가리켰다.

《저기 강진너에 가서라도 베와야 해. 내 9반에 있을 땐 저 강을 헤엄쳐 건너가서 풀을 베가지구 1톤씩 떼를 무어 끌어오곤 했어.》

《아니, 난 헤엄을 칠줄 모르는데 번났구나.》

《걱정말아. 다 수가 있어. 내가 방법을 대줄게 5리터들이 납작한 물통 하나만 얻어와.》

화순은 집으로 뛰어가더니 제격 비닐통을 안고 왔다.

인향은 단단하게 끈 새끼줄로 비닐통손잡이를 꿰여 화순의 허리에 매여주고 강물로 이끌었다.

《비닐통을 가슴쪽으로 안고 엎드려 손발만 짚방거리면 저절로 몸이 떠서 앞으로 향하게 돼. 자, 함께 헤엄쳐보자.》

인향은 걸옷을 활활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자맥 질해들어갔다.

화순이도 덩달아 찹병 뛰어들었다.

《아이, 시원해. 정말 몸이 뜨네! 이제 문제없다야, 호호호...》

화순은 인향이 대준대로 연방 손발을 찹방거리며 재미나서 웃어댔다.

어느덧 강을 건너온 그들은 무성한 풀숲을 찾아 걸탐스레 낫질을 시작했다. 둘은 처녀시절처럼 경쟁자가 되어 앞서거니뒤서거니 풀을 베어나갔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목에선 겨불내가 났으나 누구도 허리띠를 안했다.

석석석 풀이 베여넘어지는 소리와 헐떡거리는 숨소리만이 겨끔내기로 울릴뿐이었다.

드디어 풀숲이 끝나는 곳에 이르러서야 두 녀자는 동시에 일손을 놓았다.

《아이구, 갈증이야!》

조화순은 낫을 던져버리기 바쁘게 강으로 달려 내려갔다. 인향이도 목이 타 건딜수 없었다. 흐르는 강물을 두손에 떠서 꿀꺽꿀꺽 정신없이 마셨다. 그리고나서야 그들은 강기슭 풀밭에 몸을 쭉 펴고 누웠다. 가없는 하늘이 눈이 시글게 안겨오더니 빙글빙글 돌아갔다.

《몇시나 됐는지... 배고프구나.》

조화순이 맥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해가 중천에 뜬걸 보니... 점심때가 다 됐는가봐.》

인향은 안간힘을 써서 일어나 바구니안에서 비

닐로 쫑쫑 썩 썩레미를 꺼냈다. 아직도 따끈하고
말큰한 뜻강냉이 두이삭이 나왔다. 구수한 냄새가
창자를 뒤집는다.

두 녀인은 한이삭씩 나누어 들고 맛나게 뜯어먹
기 시작했다.

《화순아, 우리 오늘 벤 풀을 기동무뚝으로 넘
기자.》

《물론 그래야지. 내 뚝은 밤에 하겠어. 래일부터
폭우가 온다는데 그전에 한단이라도 베들여야지?》

《뭐? 밤에까지? 너 꽤 할수 있겠니?》

《네가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니?》

《호호… 좋아! 마치도 우린 중학시절 문학소조
원이 다시 된것 같구나.》

인향은 즐거움에 겨워 즉흥시를 읊조렸다.

가야 할 길 아직도 머니
웃은 땀에 질어 삭아도
벗을새 없네

조화순이도 지지 않겠다는듯 뒤를 이어왔다.

흐르는 강물에 타는 목 추기며
우리는 웃으며 간다네
저 언덕 끝까지

그리고는 깔깔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강냉이숙을 힘껏 강물에 내던지고 일어
나 풀단뚝기에 달라붙었다.

인향은 줄풀을 꼬아 만든 끈으로 풀단들을 서로
런결하여 한단씩 차례로 강에 띄워놓았다.

《자, 그럼 떠나보자.》

그들은 집채같은 풀떼를 끈 하나로 조종하며 강
건너로 헤엄쳐 끌어왔다. 마지막단까지 기슭우
에 건져놓고는 다시 런결끈을 풀어 한단씩 동쪽을
넘겨야 했다. 그렇게 날라온것을 기용만네 풀거름
퇴적장에 쌓아놓으니 순간에 산더미가 되었다.

이날 저녁에도 그들은 약속대로 야간풀베기를
나갔다. 밤새 풀을 베고 새벽에 강을 건너왔다.

《인향아, 너 전에도 매일 이렇게 일했니?》

조화순은 풀단끈을 잡고 째방째 째방 헤엄을 치면
서 물었다.

인향은 대답대신 물었다.

《너 지금 풀베고 오니 기분이 어때?》

《너무 좋아서 그래. 지금 노래 〈그때처럼 우리
가 살고있는가〉를 부르는데 그때도 밤에 우리처럼
풀베기한 사람이 있었을가? 아마 없었을거야.》

화순의 목소리는 궁지롭게 울렸다.

《바로 그 재미에 일하는거란다.》

인향은 환하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화순을 바
라보며 바로 이렇게 일하는것이 네가 그렇게 소원
하는 조선로동당원이 되는 길이라고 마음속으로

덧붙여 말하고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화순이와 보내는 마지막밤이라
는것을 인향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다.

이튿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런
네시간째 줄곧 퍼부었다. 무섭게 불어난 강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품쳐흘렀다.

오전에 인향은 기용만이 퇴원한단 소리를 듣고
군병원으로 갔었다.

리당비서가 보내준 차를 타고 함께 돌아온 그들
은 곧장 조화순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화순은 집
에 없었다. 그가 어디에 갔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
다. 설마 이런 날 강건너 풀을 베러 갔을런 만무
하겠지만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다. 새벽에 강기슭
에 건져놓은채 동쪽너머로 미처 날라오지 못한 풀
단생각이 났던것이다.

십중팔구 그것때문에 갔을것이다. 강물이 불
었겠는데… 혹시 풀단이 물에 잠겨 그걸 건지느라
고 신고하는게 아닐가? 물살이 빨라 위험할텐데…
그러자 불길한 예감이 번쩍했다.

《기동무, 빨리 서강으로!》

인향은 소리치고 쏜살같이 강으로 달렸다.

아니나다를가 강둑에 누군가 끌어내놓은 풀단들
이 무저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갇혀있는 강물은 금시라도 모든
것을 떠밀어삼켜버릴듯 무시무시한 기세였다.

가슴이 덜컥 무너지면서 사지가 떨려났다.

《화순아!— 화순아!—》

목놓아 부르고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기용만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뒤따라온 남
정들 몇이 따라들어갔다.

한시간정도 지나서야 용만이 화순을 건져내왔
다. 그가 정녕 돌아올수 없는 길을 갔음을 깨닫는
순간 인향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듯 했다. 하늘
땅이 맞붙어 빙글빙글 돌아갔다.

마침내 그는 화순의 몸우에 쓰러지며 몸부
림쳤다.

《화순아! 네가 이렇게 가면 난 어찌라는거냐.》

피를 토하는듯 한 인향의 곡성에 하늘도 우르릉…
따라울었다.

다음날 우인향은 서강기슭에서 작업반원들의 격
식없는 모임을 열었다.

앞에 150일전투실적도표가 세워져있었다.

《동무들, 조화순동무는 당앞에 맹세한 풀베
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
까지 모든것을 다 바쳐 일했습니다. 장군님의 강
성국가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150일전투의 선두에서 기발처럼 나아가다 쓰러
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화순동무가 죽었다고 생각지 않
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찬란한 래일을 향

해 나아가는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입니다.
동무들! 저는 조화순동무가 못다한 풀베기과제를 우리모두가 달라붙어 와닥닥 끝내자는것을 제의합니다.》

모두가 일제히 호응해나서는데 기용만이 불쑥 앞으로 나섰다.

《동무들, 조화순선동원은 이 못난 기용만을 이끌어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희생됐습니다. 이 기용만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풀베기과제를 대신해서 도표에 올려주고 자기는 이렇게 쓰러졌단 말입니다.

제가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하겠습니까?

때늦게나마 저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이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십시오. 조화순선동원의 뒀을 제가 맡게 해달란 말입니다!》

기용만은 틀어진 주먹으로 제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그의 철색얼굴에서는 슬픔과 자책의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있었다.

×

그때로부터 2년 후.

우인향은 선군시대 인간개조의 선구자로, 온 나라가 다 아는 농촌당초급일군의 전형으로 중앙의 경험토론무대에 서게 되었다.

24년간의 선동원생활과 3년간의 부문당비서사업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이렇게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동원 조화순동무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자기의 희생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위훈의 불씨를 안겨주었습니다. 기용만동무도 그러한 사람들중의 한명이었습니다.

그는 작업반이 아니라 농장적인 혁신자로, 최고로력일수득자로 되었으며 그해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진행된 군적인 축구경기대회에서도 최고득점명수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역할로 우산리가 단연 1등을 하였고 그는 만사람의 선망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저의 집에서는 기용만, 박윤미동무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그후 리당위원회에서 결혼식상을 차려주고 새로 지은 살림집 입사증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여기로 떠나오던 날 용만동무는 밤새 마련한 향기로운 꽃묶음을 한아름 안고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서동지, 이제 평양에 가면 만수대언덕부터 찾게 되겠지요. 저의 마음이 담긴 이 꽃다발을 어버이수령님동상에 드려주십시오.

이 기용만이 이제는 새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거라고 저의 맹세를 꼭 아뢰여주십시오.〉》

우인향의 젖은 목소리는 여기서 동강이 났다. 회의장 곳곳에서 격정의 눈물이 소리없이 끓어번지고있었다.

《동지들!

꽃이 향기가 있어 벌, 나비를 부르듯이 일군들에게도 향기가 있어야 대중이 따른다는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시종일관 주시는 가르치심입니다.

하다면 참다운 인간의 향기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바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지들과 집단을 위해 힘을 바치고 정을 바치고 사랑을 바치는 마음, 바쳐도 아낌없이 강그리 바치는 마음, 대가를 모르는 사심없는 헌신의 마음...

그 진정앞에 머리숙이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모두가 인간사랑의 향기, 헌신의 향기를 지닐 때 우리 나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친어버이로 모신 일심단결의 대화원으로 더 활짝 꽃피날것입니다.》

영광적인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참가자들모두가 눈굽을 번쩍이며 오래오래 힘껏 박수를 쳐주었다.

그 열풍속에서 인향은 다음과 같은 한편의 자작시로 토론을 마쳤다.

나는 농민

우리 당마크에 낫으로 새겨지고

우리 나라 국장에 벼단으로 새겨진

나는 농민

내 순간이나마

농민의 근본 잊으면

우리 당마크의 낫은 무디여지고

우리 국장의 벼알은 가버워지리

당이어 조국이어

농민 나를 믿으시라

내게 재산이 많아

재산으로 그대를 받들라

내게 돈이 많아

돈으로 그대를 받들라

아니여라

우리 당마크에 새겨진 계급의 상징인 낫

내 재산의 전부인 이 낫을 억세게 틀어잡고

성스러운 땀으로 가꾼 쌀

그 쌀로 우리 조국의 국장에 새겨진

벼이삭을 금빛으로 빛내이리라

무궁토록 받들리라

조선의 힘에 대한 시대의 찬가

주옥

피눈물속에 2011년을 보내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치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에 펼쳐나선 주체101(2012)년 새해의 첫날 당보 1면에 게재된 노래 《조선의 힘》(오영재 작사)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며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

천만군민의 불타는 심장, 조선의 강한 힘이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며 우리 인민모두의 삶의 전부이시었던 위대한 **김정일**동지.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민족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왔던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가사 《조선의 힘》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진정 우리 천만군민의 불타는 심장, 선군조선의 강한 힘이시라는 의의깊은 종자를 밝혀내고있다.

폭풍안고 비약하는 조국땅 어디서나
인민들은 부르네 아버지 그 이름
우러러 그리면 용맹이 솟고
기적과 위훈이 나래펼치네
(후렴)

그이는 천만의 불타는 심장
그이는 천만이 굳게 뭉친 힘
우리의 **김정일**장군
그이는 조선의 힘이다

강철같은 령장의 봄날같은 그 미소
그 사랑의 힘으로 시련도 이겼네
백두산의 무게로 다지여주신
선군의 내 조국은 강대하여라
(후렴)

애국은 그이의 힘 그이는 정의의 힘
강적도 쳐부시고 주체강국 세워가네
진리의 보검을 틀어쥔 손길
백승의 이 조선을 향도하신다
(후렴)

가사 1절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비약하는 내 조국땅 그 어디서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살고 그이를 그리며 새 힘을 얻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노래하였다.

가사는 처음부터 힘있고 격동적인 감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운명의 영원한 아버지로 우러러모시고 살며 그이를 우러르면 이 세상에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 신념을 안고 투쟁해나가고있는 우리 천만군민의 마음을 잘 형상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기상과 담력으로 영웅적위훈의 나래를 펼치고 선군조선의 위용을 펼쳐왔다.

그러기에 우리 조국은 세월을 주름잡아 폭풍쳐내달리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고 세기의 하늘높이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며 줄달음쳐 비약할수 있었던것이다.

우리 인민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일하였고 그이를 우러르면 막혔던 생각도 열리고 새힘이 부쩍 솟아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웃음으로 이겨내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투쟁해왔다.

1절에서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폭풍치며 비약하는 그 기적과 위훈의 밑바탕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마음이 깔려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가사 2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봄날같은 그 미소로 우리는 시련도 이겨냈으며 백두산의 아들이신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조선은 강대하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헤쳐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쑤들의 끈질긴 유혹의 바람이 불 때에도 주저없이 풀뿌리를 씹으며 장군님을 따랐으며 적들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가슴저미는 아픔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이었다.

천만군민의 운명을 품어안으시고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모습

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리념을 신념으로 새기었고 혁명의 길에서 죽어서도 변치 않을 의리의 세계를 받아안았다. 그 신념과 의리로 천만이 **김정일**장군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치었고 그 강위력한 힘으로 우리 조국은 오늘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의 조선, 무적필승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펼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강력한 힘을 키워왔다. 핵보유국과 인공지구위성발사국,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 함남의 불길, 이것은 백두의 기상과 담력, 선군의 강한 의지로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조선의 만년재보이다.

2절에서는 사랑과 믿음의 세계, 의리의 세계로 시련을 이겨내고 강대한 선군조국을 일떠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이 분출하고있다.

가사 3절에서는 애국과 정의의 힘으로 강적도 쳐부시고 주체강국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흠모의 정이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남달리 정과 애가 뜨거우시고 만사람을 품에 안아 정의와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신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신분, 정의와 진리, 사회주의를 사랑하신분이 이 세상 또 어디 있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진보적인류에게는 희망과 신심을 주시였고 력사의 반동들에게는 공포를 준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이시였다.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감히 할말도 하지 못하고있는 때에 그 어떤 강적과도 단호히 맞서나가는 그런 위대한 힘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안겨주시였다. 바로 그 힘으로 제국주의를 길들이며 이 땅에 주체강국을 세우시였고 우리 존엄을 세계앞에 지켜주고 펼쳐주시였다.

선군조선의 힘, 그것은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백전백승의 사상과 의지, 배짱과 담력의 결정체인것이다.

가사는 후렴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은 천만의 불타는 심장이며 천만이 굳게 뭉친 힘, 조선의 힘이라는 종자를 격조높이 터치고있다.

가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힘있고 박력있으면서도 고결한 사상감정으로 뭉뚱하게 하며 정론성

이 강하다.

전투적기백, 정론적격조는 바로 침예한 극성속에서 울리는 그 감정의 예리한 흐름에 있으며 심각한 체험속에 있다. 그러나 그 정론성이 생경한 론리로 엮은것이 아니라 시인의 풍부한 내적체험을 거쳐 나온것이기때문에 시인의 열정과 결합된 형상력이 있는 정론성인것이다.

또한 가사는 표현수법이 독특하고 생동한 어휘 표현들을 잘 살려쓰고있다.

가사는 대구법을 써서 운률을 보장하고있다.

그이는 천만의 불타는 심장
그이는 천만이 굳게 뭉친 힘

이렇게 서로 대응되고 짝을 이루면서 문장의 뜻과 정서를 더욱 감명깊게 표현하였다. 때문에 가사의 흐름, 감정선과 서술흐름에 대응과 반복이 보장되면서 운률이 생겨난다.

가사는 반복법도 많이 써주고있다.

《강철같은 령장의 봄날같은 그 미소》는 직유법을 편이어 두번 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가 어색하지 않고 편안히 읽히운다.

그리고 《애국은 그이의 힘 그이는 정의의 힘》에서도 《힘》을 편이어 두번 반복해줌으로써 뜻과 정서의 강조와 양양, 말소리흐름에서 어음론적 단위들의 규칙성과 절제를 조성해주면서 운률조성에 이바지하였다.

가사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됨으로써 조선의 힘에 대한 종자를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떠나서 조선의 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지난날 힘이 약하여 외세에 짓밟히고 수난도 많던 이 조선을 세계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엄 높은 조국으로 우뚝 올려세워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조선의 힘은 영원하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노래 《조선의 힘》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영원한 상징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붉은기높이 추켜들고 강성국가의 평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새겨안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가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울려 퍼질것이다.

믿음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높이 솟은 선군의 산악

— 서사시 《붉은 언제》에 대하여 —

김 순 립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장엄한 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이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대고조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길에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그 폭과 심도, 변혁적의의에 있어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참으로 거창한것이며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이다.

령도자의 위대성이 업적의 높이에 있다면 인민의 위대성은 그 업적을 받들고 나가는 높은 혁명성에 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 진군의 정신으로 살고 이 진군의 기상으로 전진하며 이 진군의 맥박으로 고동치고있다.

서사시 《붉은 언제》(김만영 작)는 영웅적인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새 세기의 첫 기술에 쌓아올린 위대한 기적의 창조물에 대한 뜨거운 송가이다.

독창적인 시적제기의 포착과 종자람구

변혁을 해도 상상과 예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변혁을 하고 창조와 건설을 해도 무엇이냐 최상의 수준에서 대답하고 통이 크게, 불이 번쩍 나게 단숨에 해제끼는 이 거창하고 류례없는 전변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수 있었는가?

서사시 《붉은 언제》는 《군대를 믿고/ 인민을 믿고/ 시작한 이 건설/ 군대를 믿어/ 인민을 믿어/ 승리한 이 건설》이라고 작품의 주체사상적지향을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인민을 굳게 믿고 육친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나간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한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키운 근본요

인이다.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사이에는 친부모와 친자식사이와 같이 자그마한 어려움도 없고 간격도 없다.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사이의 관계를 믿음과 충정의 관계로 끌어올린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이 있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령도자와 우리 군대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시인은 선군시대에 더욱 공고화된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는 과정에 통림언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이 낳은 선군의 산악이라는 종자를 발견할수 있었다.

서사시 《붉은 언제》는 이 독창적인 종자를 꽃피우기 위하여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관계를 생활세부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고들어 생동하고 진실하게 서사시적화폭으로 그려냈다.

서사시는 조종친선의 1만 5 000여리 장정을 이어 조국에 돌아오신 그길로 통림언제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감회깊은 심중의 세계에서 서사시적제기와 서정의 실마리를 잡고 감동적인 첫 장면에서부터 형상의 화폭을 펼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랑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감회깊은 통림언제우에서 뜻깊은 상봉을 하시며 우리가 희천발전소건설을 결심할 때가 엇그제같은데 여기에 벌써 산악같은 언제가 일떠섰다고, 비행기를 타고 산천을 보는것 같다고 하시며 중국방문길에 쌓인 피로가 언제우에서 안개처럼 다 사라졌다고 호탕하게 웃으신다.

서사시는 이 걱정적인 장면에서 아직 언제건설 력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으며 그 사상정신적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형상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전환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이 펼쳐진 뜻깊은 력사의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천리 전선길에서 돌아오시여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서시였다.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고있었다.

—새해의 첫 전선시찰길에서/ 나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수령님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자면/ 반드시 대규모수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시는 뜻밖의 말씀에 모두

가슴치는 놀라움에 젖어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신듯 물론 지금 나라형편은 어렵다고,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여러해동안 고난을 겪은 인민들이 아직 허리띠를 풀지 못했다고... 그러나 나는 당에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믿고 총공격전을 벌려 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를 열자고 한다시며 이 시각부터 회천발전소건설장을 최전선으로 선포하시는것이였다.

여기에서 통령언제는 믿음으로 쌓아올린 선군의 산악이라는 종자가 싹트기 시작한다.

10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공사를 3년으로 압축하시며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작전을 펴실 때 그 바탕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드립없는 믿음이 용암처럼 끓고있었다. 하기에 서사시는 《아, 내 나라의 부강번영과/ 우리 당의 존엄을 누리에 떨치며/ 높이 솟은 통령언제여/ 너는 믿음의 산악/ 너는 숨쉬는 대기념비여라》고 격정에 넘쳐 웨치고있다.

서사시 《붉은 언제》는 인생길에서 가장 고귀하고 힘있는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고 고귀하며 더 강하고 힘있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평도자의 크나큰 믿음이라는것을 형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시련많은 고난의 세월을 함께 걸어온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 심장깊이 새겨넣은 철의 진리이다.

여기에 서사시 《붉은 언제》가 안고있는 종자의 철학적무게가 있다.

하나의 시적세부로부터 펼쳐진 서사시적 화폭

머나먼 혁명의 길에는 그 길을 개척한 첫 자욱이 있고 위대한 정신이 있다. 이 첫 자욱에 새겨진 위대한 정신은 혁명의 숨결이 되고 맥박이 되어 위대한 기적을 낳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길의 고귀한 자욱을 따라 그 자욱에 깃든 위대한 정신, 위대한 녀트로 천만심장을 활화산마냥 불태우며 승리의 그 날을 향하여 장군님따라 도도히 굽이쳐왔다.

서사시 《붉은 언제》는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선에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소중한 첫 자욱이 기적을 낳는 원동력이 되고 뿌리가 되어 700여 일동안에 언제를 쌓은 《통령신화》에 대한 격조높은 송가이다.

서사시 《붉은 언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령언제의 한치한치에 깃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에 대하여 추억하시는 심중의 세계

를 감동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한 안변의 영웅병사들, 로라다짐공법으로 《통령신화》를 창조한 병사들, 남편의 교대운전사로 깊은 한밤에도 불을 밝히던 자동차수리소의 군인가족들, 건설장에 노래와 힘과 웃음을 주던 군인가족기동예술선동대원들, 우리 장군님께서 이 모든 소행을 최정예부대의 위훈으로 생각하시였다. 하기에 장군님께서서는 최전선의 격동된 모습을 한가슴에 안으시며 것처럼 웅장한 통령언제를 보고 또 보시는것이 아닌가.

서사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을 격동시키는 최전선의 격전장의 모습을 가슴뜨겁게 펼쳐 보여주면서 아직 언제건설력사에 없는 이 장엄한 화폭이 어떻게 이룩되었는가 하는데로 걱정의 화살을 모아가면서 장중한 대교향곡을 연주하고있다.

최전선의 격전장은 서사시의 화폭을 이루고 그 화폭은 대고조시대의 교향악을 낳았다.

바로 그 화폭과 교향악의 원천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첫 자욱이였다는것을 서사시는 진실한 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건설명령을 받은 부대들보다도 먼저 여기 통령땅에 오시여 《길없는 길에 초행길을 내시며》 언제건설의 첫 자욱을 찍으신 우리 장군님.

우리 그 자욱을 무심히 보지 말자. 여기 최전선에 도착한 병사들보다 장군님께서 먼저 오시였었다고 더운 눈물을 떨구며 쓸어보고 가슴가슴에 안아보는 그 첫 자욱이 병사들의 녀이 되고 뿌리가 되었던것이다. 《장군님의 그 첫 자욱이/ 우리 병사들의 깨끗한 마음이였고/ 순결한 량심이였다/ 우리 병사들에겐 힘이였고 용기였다》

인류는 수많은 전쟁과 건축물의 역사를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최고사령관이 최전선에 첫 자욱을 찍고 격전을 지휘한 폐를 상상도 할수 없다.

이 이야기는 《통령신화》를 낳게 한 우리 장군님의 선군평도사에 새겨진 전설로 후세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하기에 우리 병사들은 병실도 가설물도 짓기 전에 언제의 기초와 도로건설에 진입하였고 그 마음, 그 녀를 700여일의 분분초초에 새겨갔다.

우리 병사들은 기초의 청석암반을 찾아 함마를 휘둘러 몇천몇만번, 끝내 찾아낸 청석에 기쁨의 눈물을 떨구며 한점 흙이 묻어있을세라 손끝에서 피가 나도록 닦고닦은 그우에 심장으로 간직해온 장군님의 그 첫 자욱을 고이 놓아 언제의 뿌리가 되게 하였거늘 시인은 걱정애 넘쳐 《이것이 바로/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우리 병사들의 마음이였다/ 우리 병사들의 녀이였다》고 한껏 주정을 터친다.

시인은 최고사령관과 우리 병사들의 관계에 대한 깊이있는 파악과 심장으로 체득한 신념의 기초

우에서 최전연에 찍힌 최고사령관의 첫 자욱이라는 매혹적인 세부를 발견하고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함으로써 새로운 형상적발견의 혁신성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현실은 위대한 진리를 낳는다.

력사에 조선혁명처럼 어렵고 복잡한 혁명은 없었다.

이 고난의 불바다, 시련의 언덕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승리의 붉은 기발을 들고 넘어올수 있었는가, 이 험난한 투쟁의 길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음마다 승전고 높이 울리며 세기적인 창조의 랍을 쌓을수 있었는가.

바로 이 력사적인 물음에 언제나 최전연의 첫 자욱을 찍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활한 령도와 담력, 우리 인민에 대한 절대의 믿음이 기적의 기초가 되고 냇이 되었다는것을 하나의 매혹적인 세부로부터 시적환상을 펼쳐 서사시적화폭을 창조한 여기에 우리 작가들에게 주는 귀중한 창작적시사가 있다.

수령형상서사시의 혁신적인 면모

오늘 우리 문학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에서 수령형상작품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주류를 이루고 창작되고있으며 보다 더 큰 창작적성과를 위하여 모든 작가들이 깊이있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서사시 《붉은 언제》는 수령형상작품에서 수령의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는데서 우리 작가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주고있다고 본다.

일부 서사시들에서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대신에 사실에 대한 설명만이 기록적으로 나오며 선군시대 군대와 인민의 내부적체험대신에 허공에 뜬 추상적인 구호와 요란스러운 수식어만이 라렬되고있는 현상에 비추어볼 때 서사시 《붉은 언제》의 창작경험은 많은것을 말해주고있다.

시인은 위인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생활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종자를 탐구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서사시의 구성을 세우고 위대한 사색의 세계를 폭넓게 개방하는데 시인의 주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시인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창작실천적인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는 위인의 내부적체험세계를 개방하여 서사시적형상을 창조하는데서 혁신을 가져왔다고 볼수 있다.

시의 전반구성과 감정조직을 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심리세계의 깊이있는 형상을 통하여 서사시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서사시의 일반적특징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서사성과 정서의 예술적결합이다. 서사시에 객

관적이며 서사적인 극적묘사가 필요하지만 시인의 주정을 토로하는 내부적열정이 없으면 그것이 서정을 생명으로 하는 시문학으로 될수 없다. 시문학형태로서의 서사시는 가장 압축된 극적묘사와 서정적주인공의 토로를 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서사시는 시문학의 일반적특성을 옳게 살리면서도 대고조시대의 영웅적인 웅장한 서사시적화폭을 압축된 극적박력과 명쾌한 서정으로 노래할것을 절박하게 바라고있는 시대의 미학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였다고 볼수 있다.

서사시에서 객관적생활사실과 사건들이 형상체계에 도입되는것은 하나의 공통된 미학적요구이다.

서사시에서는 반영되고있는 모든 사건과 일화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사색속에 펼쳐지며 위인의 숭고한 사색을 더 깊이있고 통일적으로 통감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와 요소들로 되고있다.

서사시의 1장 《1월의 선언》에서 중국방문의 1만 5 000여리 장정을 하고 조국에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감회깊은 추억의 세계속에 펼쳐지는 력사적생활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믿고 시작한 이 통립언제가 바로 이 위대한 신념의 진리를 확증해주는것이라는 장군님의 위대한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에로 집중되고있으며 특히는 뜻깊은 1월의 위대한 선언이 있었던 력사적시점이 얼마나 경이적인 사변을 가져왔는가 하는데로 확산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군민에 대한 선군령장의 믿음은 어떤 기적도 이룩할수 있다는 서사시의 총적지향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다.

서사시의 2장 《언제는 뜨겁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내부적체험세계에 대한 시인의 심장의 느낌과 감수, 생활의 본질에 대한 시인의 탐구와 사색이 어떻게 종자의 요구에 맞게 작품의 생활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구성하는데 효과적인 비결로 되였는가를 보게 된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창작적경험이다.

서사시의 두번째 부분에서는 많은 일화들과 생활사실들이 반영되어있다. 특히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길에 첫 자욱을 찍으신 감동적이고 전설적인 세부 등이 비록 한두행의 시대목이나 몇개의 장면들에서 펼쳐지지만 이 모든것은 풍막집세부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감정선을 더욱 풍부히 하고 심리세계를 펼쳐보이는 직접적인 계기와 객관적인 생활사실로 되고있다.

여기에서 시인은 종전의 서사시들에서 감동적인 생활들을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던 종래의 구성을 더욱 발전시켜 수령의 정서세계에서 새로운 철학을 탐구해나가는 수령형상문학의 생리를 원만히 구현한 개성을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

하기에 서사시에서는 이 모든 생활과 일화, 세

탄 전 의 대 보 림 달

박 상 민

정월이라 대보름날
높이 쌓은 석탄산우에
보름달이 등실 올라앉았구나

새해의 첫달
채탄경쟁 시작부터 우승하자고
억육하던 중대장도
저 등근달에 반했는가
땅크병출신 소대장과 어깨걸고
달빛에 생각도 깊어지는 이밤

차판마다 석탄 가득 싣고
기적소리 인사처럼 남기며 떠나는
밤렬차에 탄부의 마음도
함께 실어보내네
굴진공친구들이 울리는 발파소린
기름진 석탄발이 마련됐다는 소식인듯

탄부의 꿈과 사랑을
달빛아래 등불같이 걸고싶구나
이제 뒤교대만 제끼면
분기계획 넘쳐할 우리 중대
저 밤하늘이 통채로 탄발같이
일욕심 많은 채탄공들 한껏 넓어진 마음

이밤 누구나
등실 솟은 달을 보며
더 좋은 래일을 약속한다지만
탄부들 마음속에 쌓인
석탄산의 높이에 어이 따르랴

밀불 좋은 발전소 화실인듯
탄부들 심장의 불로 이끌거리는 막장

채탄기가 우르릉 탄벽을 흔드니
콘베아에 실려 흐르는 탄은
은빛금빛을 뿌리는 진주보석인가

아, 달빛도 류다른 이밤
우리 민족 대대로 누려오는 풍습속에
탄부의 새 풍습이 태어났는가
석탄산우에 달을 앉히고 맞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새해의 첫걸음
크게 내짚은 탄부들의 모습
대보름달빛아래 또 하나의 달인가
부강하는 내 조국의 밀불이 되어
활활 타는 탄부들의 열정은
용광로 쇠물노을에 함께 비낀듯

달아 보름달아
너도 알지 않느냐
달빛에 실은 탄부의 그리움을
이밤 장군님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달리신
인민행렬차의 밝은 불빛이 어려와
그 밝은 차창가에
달이 앉아 웃는 석탄산이 비졌더라면
우리 장군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랴

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그 기쁨 천콤파만콤파으로 드려갈
탄부의 발걸음 달빛이 떠받들었는가
석탄산우에서 달이 웃네
정월의 대보름달과 함께 웃는
탄부의 얼굴은 달보다 더 밝구나

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체험속에서는 《단숨에》라는 세글자속에 응축되어 우리 병사들의 기상과 담력이 있고 바로 이 백승의 기질과 용맹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의 최대의 지향과 념원과 의지, 맹세로 고백치게 하였다.

이러한 시형상으로 하여 서사시는 《창공에 거연히 머리를 치여든/ 결사옹위의 붉은 언제/ 일심단결의 뜨거운 언제/ 선군의 산악-룡림언체는》, 《-보라 세계여/ 들으라 력사여/ 이 땅에 태양은 찬연히 빛난다/ 조선은 영원히 승리하리라!/ 조선은 영원히 강성번영하리라!》라는 주체사상적주장

을 천만군민의 심장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서사시의 이 모든 형상요소들은 룡림언체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이 낳은 선군의 산악이라는 독창적인 종자에서 배태되어 싹튼것이며 형상의 꽃을 피운것이다.

우리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이미 창작된 서사시들의 훌륭한 경험들을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선군시대의 서사시형식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하여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에도 시대와 더불어, 력사와 더불어 길이 남을 명작들로 우리 시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김 명 천

나는 지금 하늘과 맞닿은 곳에 서있다.

현대적으로 일떠서 완공을 가까이 하고있는 만수대지구건설장의 초고층살림집 만장에 올라서 있는것이다.

...

《우리 명천이, 무얼 줄가?》

《아버지, 난 저 하늘의 별을 갖고싶어요. 별을 따주세요.》

《예끼, 이녀석. 그 별은 딸수 없단다.》

《왜요?》

《그 별은 너무나 멀리, 하늘에 있으니까...》

불현듯 아득히 흘러간 유년시절의 아버지와 나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유년시절, 이러한 대화에 대한 추억이 있을것이다.

그 하늘, 그 별들이 지금 나와 어깨 나란히 펼쳐져있다. 손을 뻗치면 금시 새파란 하늘을 건드릴것 같고 별도 똑 딸것 같다.

동심의 눈에 아득하게만 바라보이던 그 하늘가 사이에 내가 지금 있다. 이것을 두고 기적이라 하지 않을가.

나는 지난 가을 제대병사의 배낭을 메고 고향 평양에 발을 디뎠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며 평양역을 나설 때 나는 너무도 놀라고 감탄하여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눈앞에 펼쳐진 평양의 전경이 너무도 비약적으로 달라진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평양이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인민의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된것은 그로부터 며칠후 내가 태어나고 유년, 소년시절이 흘러간 창전동을 찾았을 때였다.

아버이수령님의 동상이 높이 모셔져있는 만수대지구를 일등급의 거리로 일떠세워 수령님의 업적을 자자손손 만대에 빛내여가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군대와 인민이 살림집건설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치 않을수 없었다.

공부를 끝내고난 후면 지하철도 통일역앞의 아담한 공원에서 공차기를 하느라 해를 지우던 소꿉동무 창남의 집은 어드메며 앓느라 빠졌던 수업시간의 공부를 배워주러 오셨던 선생님을 바래우던 우리 집 현관앞의 작은 길은 어디인지 도무지 옛

모습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혁명의 수도의 약동하는 숨결이 가슴 벅차게 안겨들었다.

군사복무의 나날에 신문과 텔레비존을 통해 나의 고향, 수도에서 일어나고있는 전변에 대해 알고있느터였지만 이렇게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온 패부로 절감하게 되니 그 감동이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때 나와 함께 나섰던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바로 만수대지구건설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였다.

정녕 만수대지구건설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아버지수령님의 뜻과 념원을 천년세월이 흐른대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충정이며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사랑이다.

그 충정, 그 사랑에 떠받들려 한시, 하루가 다르게 초고층살림집들이 키를 돋구며 일떠서 장쾌하고 멋스러운 장관을 이루고있다.

이 벅찬 격류속에 늦게나마 뛰어들어 땀을 동이로 쏟지 않으면 이 시대 청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듯싶어 나는 하루일을 끝마친 저녁이면 발걸음을 여기로 향했다. 그렇게 흘러온 나날이 해를 넘기고 이제는 태양절도 멀지 않았고 이 거리 완공도 눈앞에 닿았다.

그렇게 흘러온 나날중에 피눈물의 12월도 있다. 되새겨보느라니 또다시 가슴속 그들먹이 차오르는 눈물,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못 견디는 그리움의 눈물.

올해 태양절을 맞으며 만수대지구를 세계 1등급의 거리로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던 장군님의 념원이 우리 인민이 백배의 힘과 용기로 일떠서게 한 삶과 투쟁의 불꽃으로 되어 활화산처럼 타번져 기적의 오늘을 안아왔다.

이렇게 하늘가에 닿은 초고층살림집의 만장에 오르고보니 가슴부풀도록, 분에 겨웁도록 안겨드는 생각.

정녕 돌이켜 생각해볼수록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충정, 우리 인민들에 대한 장군님의 지극한 사랑은 드넓은 이 대지의 공간을 짝 채우고 하늘에까지 닿았다.

하늘의 은하세계와 어깨겨움을 할 불의 바다를 땅우의 별세계로 펼쳐주셨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조국땅, 우리 평양의 아름다운 불빛세계는 여기 만수대지구의 초고층살림집들에 펼쳐져 하늘세

건설장의 까치소리

리진목

깍- 깍-

까치소리 까치소리

2월의 이 아침

만수대지구건설장에서 네 소리 들으니

어이하어 이리도 생각깊어지는것이나

풍치수려한 명산절경

모란봉숲속에 대동강반에

정든 보금자리 정하고

날마다 날마다

새 소식 기쁜 소식 전해주더니

천만뜻밖에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12월의 그날에는

단숨에 폭풍쳐 올린

아슬한 초고층살림집 지붕우를 날아이며

슬프게도 슬프게도 울더니

오늘은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 념원을 꽃피워

강성부흥의 봄맞이 그날을 당겨올

충정의 열기 결사관철의 투지로

불꽃 튀는 건설장우를 감돌아 날으며

완공의 그날을 재촉하는듯

우리 장군님 못 잊는 그리움을

힘과 용기로 다지며

백두의 산악처럼 일떠선

건설자 우리들이거니

까치야 너도 보느냐

이제 남은 마감공사도 단숨에 단숨에

몰아치는 눈바람도

사나운 강추위도

타오르는 심장의 불길 함남의 불길로

황황 태우며 나아가는 우리들

수령님념원 장군님리상 꽃피울 한마음

그 마음 안고 뜻깊은 4월으로 내달려

창조와 위훈의 상상봉에 오르리

더 아름답고

더 웅장화려한 인민의 락원

혁명의 수도 평양의 새 모습

황홀경의 절정, 만복의 새 화폭 펼쳐려니

그 모습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저기 만수대언덕에 거연히 서시여 바라보시며

기쁨에 넘쳐 환히 웃으실 때

승리자의 공지와 보람

남먼저 이 가슴에 그들먹이 안아보리라

아, 까치소리 까치소리

2월의 이 아침

유난히도 들려오는 건설장의 까치소리

4월의 대축전장으로 어서빨리 가자고

손저어부르는 너의 그 나래에

내 마음도 얹었거니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대진군길

기세차게 줄달음쳐가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100년사가

만수대지구 여기서부터 더 빛나게 하리라

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리라.

그럴수록 가슴가득 뜨겁게 달구며 차오르는 고
마음, 이는 위대한 우리 장군님을 잊지 못하는 감
사의 정, 그리움의 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그처럼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불태워오신 그 헌신에 의해 이처럼 휘황찬란한 강성국가의 오늘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의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정의 세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림없고 변함없는 의리의 세계로 이어지고있다. 이는 하늘땅이 변하고 바다물이 마른대도 정녕 다함

이 없을것이며 그이의 그 뜨겁고 넓은 세계에 자신들을 따라세우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마음도 세대에 세대로 이어지리라.

우리 장군님을 못 잊어 부르고부르며 장군님 소원하시던 강성국가건설에 자신들의 위치를 정하고 살며 투쟁하는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결고 거창한 투쟁전역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드높이 함남의 불길로 심장들을 달구고있다.

그 심장들이 앞당겨오는 래일을 여기 하늘이 닿은 곳에서 그려보느라니 가슴이 마냥 넓어진다. 그 가슴을 한껏 내밀며 나는 웨친다.

《아버지! 난 하늘의 별을 봤어요-오!》



임 순 영

그 처녀를 마주하는 순간 나는 저르기 어리둥절해졌다. 러단장은 나의 취재대상으로 대뜸 《우리〈곰치녀〉를 만나보시오.》하고 소개했고 대대장 역시 《아, 〈곰치녀〉요? 저기 있습니다.》하면서 늘 입에 올리던 이름처럼 자연스럽게 외웠었다.

(《곰치녀》? 곰처럼 힘꼴이나 쓰는 처녀라는 걸가?)

그러나 그 《곰치녀》는 나의 예상을 뒤집어놓았다. 호리호리한 몸매와 닭알형의 예쁜 얼굴, 도도룩한 앞이마를 살짝 가리운 하늘거리는 연한 머리카락, 내심의 속삭임이 끊는것 같은 사색적인 눈... 어느모로나 곰을 연상할만 한 구석은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저... 림경주동무가 맞습니까?》

내가 어정쩡해서 묻자 처녀는 소리없이 방긋 웃었다.

《제 별명을 들으신게군요. 아마 그 사연을 알고싶겠지요?》

웁은 말이였다. 이 예쁜 처녀에게 어떻게 되어《곰》이라는 거북한 별명이 붙게 되었는지 호기심이 부쩍 동한 참이었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짐짓 손을 내저었다.

《아니, 아니. 난 다 알고왔소, 동무가 물길굴 공법에서 아주 기발한 창안을 내놓았다는것을.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줄수 없겠소?》

처녀는 또다시 웃어보였다.

《기자동지의 눈은 다른걸 묻고있는데두요?》

《허허...》

나는 따라웃지 않을수 없었다. 아주 영민한 처녀라는것이 알렸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어느 사이 처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있더니 나를 곧추 마

주보았다.

《좋아요. 멋스럽지만 스스로 제 자량을 해야 할가보군요. 그런데 그건 동시에 우리 대대장동지를 깎아내리는 이야기이기도 하답니다.》

이번에도 나는 놀랐다. 대답하라고 해야 할지... 확실히 류다른 처녀였다.

《우리 대대장동지를 처음 만난것은... 박진대대장동지 말이에요. 제가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평양건설건재대학(당시)을 졸업하고 고향도시의 건설사업소 기술준비실에 배치받았던 제가 그 아늑한 설계탁을 떠나 어떻게 이 벅찬 건설장에 탄원할 용단을 내렸는지... 그날 우리 러단지휘부에 찾아가서 저는 처음부터 썩 좋은 인상을 주진 못했습니다....

림경주는 자기가 희천에서 남다른 위훈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 애초에 자기가 그런 재목감이 못된다고 여기는 그였다. 다만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새로운 기술적기여를 하면 건설기사로서의 직분을 충분히 수행하는것으로 된다는 소박한 생각을 가졌을뿐이었다.

그를 맞아들인 키가 정충한 중년나이의 러단시 공과장은 무척 반가와하면서도 몇마디 말로 경주의 운명을 결정하려들었다.

《기다렸소. 동무 자리는 이미 다 정해냈소. 공정설계를 맡으시오.》

경주는 속눈섭을 까부장하니 치켜올렸다가 곧 입술을 깨물었다.

《전 결상이나 바뀌었자고 돌격대에 탄원한게 아닙니다!》라는 뽕족한 말마디가 튀어나와 시공과장에게 무안을 줄까봐 내심 겁냈던것이다.

갈끔히 눈을 내려려낸 채 경주는 또박또박 입을 열었다.

《전 돌격대생활이 처음입니다. 러단이 물질 굴건설에 앞서 도로담기를 진행한다는데 그 기간 만이라도 현장에 나가있어야겠습니다. 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

과장은 알수 없는 빈소리를 터뜨렸다. 현장진출을 바라는 제기보다도 자기 의사를 상급에게 강요하는듯 한 그 어조에 더 놀란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침내는 이해되는지 크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래, 진짜돌격대밥을 먹어봐야 자기를 바친다는것이 뭔지를 알수 있지. 내 러단참모부와 다시 토론하겠소. 마침 3대대에 시공참모자리가 비었으니 그리로 가도록 하지요.》

그리고는 어째서인지 한쪽눈을 능청스레 끄벅해 보였다.

《그 대대장이 러단에서 유일한 총각대대장이라는걸 잊지 마오.》

《고맙습니다, 과장동지.》

대답하고보니 쑥스러워졌다. 총각대대장에게 보내주어 고맙다는 말처럼 들렸을것 같아서였다.

두시간후 경주는 돌격대원들이 무엇때문인지 황새령이라고 랑만적으로 부르는 령정점의 3대대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날씨는 맑았다. 내려쬐인 눈은 허벅다리를 치고 태고연한 수림을 뒤흔드는 바람소리는 맹수의 울부짖음처럼 끓임없이 고막을 후려갈겼다.

구름에 휘감겨 형체가 희미한 령길은 끝이 있을 상싶지 않았다. 아마 길게 뽑은 황새목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모양이었다.

(부디부디 골라 제일 험하고 높은델... 아마 그 대대장은 지향도 남달리 높을지 몰라.)

경주가 령정턱어름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눈보라의 장막속에서 바위만큼 큰 눈덩어리가 디굴디굴 굴러오듯 하다가 그의 발치에 떡 떨어졌다. 《어마나!》

경주는 뒤로 벌렁 나자빠질번 했다. 하얀 눈덩이속에서 사람이 벌썬 웃고있었던것이다.

《하하... 새로 오시는 우리 시공참모동지지요?》

키는 늘씬했으나 코밀에 솜털이 보시시한게 애송이가 분명한 청년이 경주를 바라보며 새물거렸다.

《누구예요?》

경주는 놀란 가슴이 채 진정되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청년은 절도있게 거수경례를 붙이였다.

《돌격대원 윤복철, 대대장동지의 명령을 받고 시공참모동지를 마중나온 길입니다. 자, 그 배낭을 이리 주십시오.》

윤복철은 다짜고짜 배낭을 빼앗아 제 어깨에 뉘름 둘러매더니 씨엉씨엉 앞서걸었다.

경주는 그제서야 호-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은근히 기뻐다. 대대장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다

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시작부터 좋은 결과가 있을수 있다는 암시나 같았다.

《저... 대대장동지가 어떤분이에요?》

경주가 바짝 따라서며 물었다. 그러자 마치 그 질문을 기다리길라도 한듯 윤복철의 입에서는 대대장에 대한 칭찬이 실꾸리처럼 풀려나왔다.

《진짜 사나이지요. 이름은 박진, 나이는 서른하나, 속도전청년돌격대 중대장출신, 배짱과 일욕심에서 누구도 당할수 없음. 하하... 우리 대대장동진 러단의 도로담당구간에서 가장 높고 험한 여기 황새령의 정점구간을 스스로 말아나셨거든요. 거기예다가... 이제 만나보면 알겠지만 아주 멋쟁이랍니다.》

경주는 소리없이 웃고말았다. 남들앞에서 자기 지휘관을 훌륭한 인물로 내세우고싶어하는것은 모든 대원들의 공통된 심리인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이야기에 솔깃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박진... 막 냅다 돌진하는 기상일거야, 이름처럼!)

갑자기 윤복철이 반색하며 소리쳤다.

《아, 포수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언제 나타났는지 그들앞에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나이지숙한 아바이가 서있었다. 등에 묵직한 배낭을 진것으로 보아 어디 먼길을 다녀오는듯 했다.

아바이가 윤복철의 영치를 철썩 때렸다.

《에끼, 또 포수냐? 난 산림감독원이야!》

말은 노엽게 했으나 주름깊은 그의 눈가에는 웃음이 피어오르고있었다. 윤복철이도 벌썬벌썬 웃었다.

《아바이, 이 추운 날 어딜 다녀오십니까?》

《오,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가 있다길래 군양묘장에 갔더랬지. 헌데 이 체넨 뉘긴가?》

윤복철이 빠기듯 코허리를 쑥 문질렀다.

《우리 대대 시공참모동지예요. 멋있지요?》

처녀로서 대대시공참모를 한다는게 멋있다는 건지 인물이 잘나 멋있다는건지 딱히 알수 없는 말이었다.

아바이의 눈귀에서 다시 웃음이 흘렀다.

《돌격대원들이야 다 멋있지. 어쨌든 처녀가 수고하겠네. 종종 놀러 오라구. 저 골안에 우리 집이 있다네. 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걸세.》

눈발속으로 멀어지는 산림감독원아바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주는 가슴이 후터워울랐다.

나이많은 몸으로 나라의 재부인 산림을 더 풍성히 하려고 험한 눈보라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이 새삼스럽게 눈굽을 지지는것이였다. 아마 그래서 발전소건설에 달려나온 이 윤복철이와 같은 돌격대원들과도 친하게 사귀었을것이다...

그들이 대대지휘부에 도착한것은 날이 저문 뒤였다. 통나무로 지은 지휘부는 감탄하리만치 깨끗하고 모든것이 규모있게 정돈되어있었다.

경주는 도착보고를 하려고 손을 들어올리다가 한순간 굳어졌다. 어디로 나갈 차비인지 옷걸이의 모자를 벗겨들던 사나이가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 얼굴이 몹시 낮익었던 것이다.

주물해놓은듯 미끈하고 다부진 체격을 꼭 감싼 구김살 하나 없는 돌격대제복차림이며 처녀처럼 희맑은 얼굴빛, 마치 상대방을 저울질해보듯 가늘게 좁혀뜬 예리한 눈매 등은 틀림없이 어디선가 인상적으로 본 모습이였다.

경주의 입에서는 절로 《아니?!...》하는 외마디 소리가 새어나왔다.

사나이도 주의깊게 마주보았다. 그러나 경주의 얼굴에서 특별한 인상을 찾지 못했는지 깍듯이 말했다.

《오느라고 고생했겠소. 내 대대장 박진이요. 오늘은 피곤할테니 푹 쉬시오. 식사와 잠자리는 다 준비해놓았소. 그럼 난 일이 있어와서...》

대대장은 문밖으로 사라졌다. 경주는 그 자리에 꼼짝않고 서있었다. 어째서인지 숨결이 가빠졌다. 그의 눈길은 책상 한복판에 땡그라니 놓여있는 반짝거리는 라침판에 못박혔다. 모름지기 인적없는 이 령마루에 대대를 전개하자니 꼭 필요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박진이었구나! 날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 그럴수밖에. 어쨌든 우리 또 이렇게 만났구나!)

몹시 피곤했으나 그날 밤 경주는 쉬이 잠을 이룰수 없었다. 박진대대장과의 이 두번째 상봉이 그에게는 새삼스러운 의미로 가슴에 마쳐오는 것이였다. ... 2년전 여름 경주가 졸업학년때였다. 졸업시험을 위한 참고서들을 빌리려고 인민대학습당에 들렀던 그는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있었다.

경주가 마지막손님으로 버스에 오르려는데 누군가 가쁜 숨소리를 내며 다급히 등뒤에 다가섰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더운 열기가 경주에게 확 끼쳐왔다. 찌는듯 한 날씨임에도 무슨 급한 일이 생겨 버스를 놓칠가봐 막 달려온 모양이였다.

맛볼은 두장의 버스표를 찢어들던 경주는 픽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속도전청년돌격대제복차림의 청년이 시야에 들어왔다.

얼굴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열심히 닦고있었으나 목단추 하나 끌러놓지 않은 단정한 차림이였다.

바로 그 순간 경주가 체짐에 얼굴을 활짝 붉히지 않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름아닌 그 청년이 차장앞에서 허둥거리며 이쪽저쪽 주머니들을 열심히 뒤지고있는것이 아닌가.

경주는 그가 버스표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았다.

당황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청년의 얼굴에서 굵은 땀방울마저 툭툭 떨어졌다.

(어쩔가?)

버스를 리용하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레외없이

운임규정을 잊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그렇지만 경주는 그 돌격대청년만은 리해해주고싶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라면 이 땅 그 어디서나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비상한 속도로 수많은 일떠세우곤 하는 위훈의 창조자들도다.

경주는 얼른 차장에게 두장의 버스표를 내밀며 웃어보였다.

《자요, 우리 함께 간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청년은 경주의 귀에 대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경주는 못 들은척 손에 든 책을 펼쳐들었다. 이때 경주가 펼쳐든 책을 던지시 건너다보던 청년이 의외에도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처녀동문 평양건설건재대학 학생입니까?》

경주는 약간 놀란듯 한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반갑구만요. 내 지금 그 대학에 가고있는중입니다. 우리 중대가 맡고있는 살림집 건설에서 새로운 공법을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이 중대장부터 아는것이 없다니니... 참, 이걸 좀 봐주십시오.》

청년이 내미는 수첩을 펼쳐드니 어설픈 도면그림들과 각이한 수자들이 찍 들어차있었다.

애쓰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수첩장들을 번져가느라니 경주로서도 머리를 기웃거리게 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청년은 경주의 책을 들여다보았다. 버스가 어느덧 대학앞의 정류소에 멎어섰을 때 경주는 청년에게 수첩을 돌려주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제 지식으로는 동지에게 만족한 설명을 해드릴수가 없군요. 제가 교원 한분을 소개해드리겠으니 그 선생님의 방조를 받아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이 벌써 두번째로 하는 인사였다.

《갑시다.》

경주는 앞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 청년은 경주의 뒤를 따르면서도 책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찌나 책에 심취되었는지 결눈질조차 안했다.

그러는 청년을 바라보며 경주는 속으로 바재였다.

(어찌나?... 오후강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빨리 갈수 없을까요?》

《아,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고도 청년은 여전히 책을 정신없이 들여다보며 천천히 따라섰다.

경주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기에게 고맙게 굴어주는 처녀쪽은 거들떠볼념도 않고 글줄을 파고드느라 쏘려려튼 두눈은 지혜롭

게 번뜩였다.

(열정이 남다른 청년이로구나.)...

그날 경주는 끝내 강의에 늦어 추궁을 받았다. 하지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했다는 안도감에 마음은 즐겁기까지 했었다. 아마 오늘까지도 그의 모습을 또렷이, 아름답게 기억하게 된것은 그때문이었던지도 모른다.

풋잡이 들면서 경주는 그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어떤 행운의 출발점인듯싶어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피워올렸다. ...

이튿날 아침 경주는 홀가분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의젓하게 대대부의 출입문을 열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대대장동지, 오늘지시를 받으러 왔습니다.》

박진은 한창 혁띠고리를 닦는중이었다.

그는 피땀 결눈질해보기는 했으나 그 일에 어찌나 정신이 쏠렸는지 인차 눈을 내리깔아버렸다. 그렇게 오래동안 꼼꼼히 혁띠고리를 닦고나서야 마침내 머리를 쳐들었는데 어째서인지 그 눈빛이 뻔뻔했다.

《내 금방 러단시공과장동지와 전화했소. 동문 원래 시공과에 있게 되어있었더구만. 우리한테 필요없으니 도로 올라가시오.》

경주는 너무 놀라와 한순간 고막이 다 멍멍해졌다. 지척에서 터진 발파소리를 들은듯 한 심정이였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한것은 동안이 지나서였다.

그는 어떤 배반이라도 당한것 같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떨며 간신히 물었다.

《절... 절 쫓는겁니까? 왜요?... 무엇때문입니까?》

박진은 입을 꼭 다문채 뚜벅뚜벅 책상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습관인듯 그우에 놓여있는 라침판을 이속히 들여다보았다, 마치 라침판의 바늘이 자기가 해야 할 말이 어떤것인가를 가리켜주거라도 할것처럼.

한참만에야 그가 목직이 입을 열었다.

《첫째로, 동문 러단에 더 필요한 사람이요. 둘째로, 난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대원들을 무섭게 닥달하오. 내 손탁에선 역대우같은 사나이들도 숨가빠하오. 그리고 셋째로는... 난 원래 여자들하고는 손발이 맞지 않소. 러단장동지에게도 그렇게 제기했소. 이게 다요!》

그다음 박진은 전화기를 끌어당겨 러단시공과를 찾더니 도로시공지도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주는 피가 나게 입술을 깨물고있었다. 박진은 지금 자기를 쫓기 위해 파장된 어마어마한 말마디들을 털거하고있다. 하지만 대대에는 녀성돌격대원들이 적지 않다. 하다면 나의 무엇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아 저러는가?

마침내 경주는 오연히 고개를 쳐들고 나직하나 야멸차게 내쏘았다.

《좋아요!》

그길로 경주는 배낭도 없이 러단을 향하여 숨가빠 걷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여전히 사나웠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분함과 노여움, 반발의 회오리가 휘몰아쳤다. 그 항변이 자기도 모르게 마구 입으로 쏟아져나왔다.

《...동지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함부로 규정짓는건가요? 뭐, 필요없다구요? 제가 녀자인 까닭에요? 아니, 난 싫어요. 녀자라고 뭔가 동정하고 또 비웃기까지 하는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어요, 안 물러서요!》

그랬다, 경주는 결코 물러설수 없었다. 그가 회천발전소건설장에 탄원했을 때에도 주위사람들은 그 결심이 얼마나 굳건한지 어떤지를 갖가지 말로 타진해보았다. 무척 박식하면서도 호인인 부서의 늙은 실장이 특히 놀라와했었다.

《림기사, 건설장이란 육체로동이 기본인, 이를테면 사내다운 완력을 필요로 하는데야. 림기사같이 연약한 몸으로는 감당 못해.》

《처녀이기 전에 건설기사지요.》

그때 경주는 이렇게 단마디로 반박했다. 이미전부터 그는 수력구조물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을 품고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설현장에서 실천으로 응용해보리라 버르고있던 참이었다.

실장은 허허 웃었다.

《가봐야 시공지도나 하는게 고작이겠지. 그것도 녀자들은 힘들어.》

《바로 그래서 가겠다는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고집이 세다거나 성미가 피뻘하다거나 하고 평가한다는것을 경주는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일상생활에서 자기같은 처녀들이 때로 《나야 녀자인데 어떻게...》라든가 《녀자들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하고 이해와 동정을 바랄 때면 죽도록 싫어했다. 그것은 결코 녀성을 존중해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자인하는 행위와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경주는 바로 실장의 권고에서 자기를 그런 녀성으로 보는 일종의 너그러운 이해를 감추었던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선 박진이라는 사람이 또... 그러한 모욕을 경주는 결단코 허용할수 없었다.

온통 눈범벅이 되어 허덕거리며 방에 뛰어드는 경주를 본 러단장은 장대한 몸을 흠칫 떨기까지 했다.

《이게 누구요?》

경주는 일어서 잘 놀려지지 않는 입술을 간신히 벌렸다.

《러단장동지도... 제가 필요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안 부리부리한 눈을 뚜부럭거리던 러단장은 웃음을 제끼며 호탕하게 웃었다.

《아, 그래서?!... 내 박진 대대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소. 그 친구 엉큼하거던, 경주기사의 결심이 참나무옹이같은걸 모르고. 허허허... 겁이 나서 도피한것처럼 묘사하더라니까.》

《아닙니다, 전 너무 분해서… 억울해서…》

《아오, 아오. 내 통을 했소. 박진이 그 친구가 말하더군. 경주기사가려단에 더 필요한 처녀라고, 자기네 대대가 맡은 힘든 작업장에서 무슨 실수라도 해서 다치면 어쩌겠느냐고… 그래 눈을 꼭 감고 쫓았다누만.》

《?!…》

경주는 눈이 울롱하여 한동안 멍청히려단장을 쳐다보기만 했다. 지금껏 가슴속에서 회오리바람처럼 고래치던 억울함은 순간에 사라지고 눈곱마저 시큰해졌다. 박진을 잠시나마 오해하고 노엽게 생각한 자신이 참을수 없어졌다. 그는 거의 항변하다싶이 말했다.

《려단장동지, 절 잘못 아셨습니다. 전 결코 대대를 떠나자고 온게 아닙니다.》

《그럼?…》

《설계과에 들려 도로서공지도서를 가져가려고 왔던겁니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이미 박진이 전화로 도로서공지도서를 요구할 때 벌써 그런 결심을 했던것이였다.

《…결음은 가버렸답니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닮아보려던 저의 결심이 얼마나 옳았던지… 아름다운 사람들속에 둘러싸여있으면 나 역시 절로 아름다와지지 않을까?… 그때의 제 생각이였어요. 하지만 정작 대대에 돌아오니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속내를 뻔히 들여다보는것 같은 박진 대대장의 그 찌프린 눈길앞에 어떻게 나선담, 화를 내며 또다시 막무가내로 쫓아보내지는 않을까? 물론 죽어도 돌아서지 않으리라 버르긴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전 그와 맞설 두려운 순간을 조금이라도 미루어보려고 대대부에는 들리지 않고 대대가 닦아야 할 도로구간을 설계문건과 대조확인하는 일에 달라붙었어요. 내가 이렇게 비겁해보기는 처음이라는 억울함으로 가슴을 태우면서도 말입니다. 참, 기자동진 여전히 그 곰치녀의 사연을 알지 못해 안달아하시는것 같은데… 이제 그 이야기도 하려던 참이랍니다.》

도로가 뻗어간 현지를 밟아보고서야 경주는 박진 대대장이 실지로려단이 맡은 작업구간에서 가장 어려운 곳을 담당했다는것을 알았다. 전구간이 거의나 암반으로 뒤덮여있고 경사가 급하여 작업량이 엄청난데다 위험하기 짝없는 곳이였다. 그만큼 그 공사시공을 지도해야 할 경주자신에게도 많은 기술적문제가 제기되고있었다.

대대병실쪽을 내려다보니 대원들은 정대를 버린다, 삽과 곡괭이, 맞들이를 준비한다 분주히 오락가락하고있었다. 이미려단적으로 한주일동안에 도로를 완성할 목표를 세운 사회주의경쟁이 선포된 상태였다.

가는 한숨을 내쉬며 피곤했던 시계를 들여다본 경주

는 저으기 놀랐다. 오후 2시였던것이다.

비로소 경주는 심한 시장기를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지 않아도 눈구멍이와 바위너설들을 헤치고 넘나드느라 지칠대로 지친 그였다. (아니, 안 내려갈테야. 찾아와 사죄를 하기 전엔!)

마치 토라진 그의 말마디가 박진에게 전달되더라도 한듯 바로 그 찰나 등뒤의 돌바위코숭이에서 윤복철의 얼굴이 쑥 나타났다.

《시공참모동지! 여기 있었군요.》

윤복철이 허연 입김을 가쁘게 내뿜으며 기뻐서 경충경충 그앞으로 달려왔다.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여기 있는걸 온 산 판을 다 뒤졌네. 배고프지요? 자요!》

그가 경주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펼쳐놓은것은 아직도 파끈한 김을 피워올리는 보온밥통과 난데 없는 군밤꾸레미였다.

《아이, 군밤은 어디서?…》

《말두 말라요. 이 밤때문에 나도 참모동지처럼 대대에서 쫓겨날뻔 했는걸요.》

쫓겨날뻔 했다는 그의 표현이 경주의 가슴을 또 다시 쿵 찢었다. 결국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온 대대에 다 알려졌다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윤복철은 그의 언짢은 기분은 전혀 눈치 채지 못한듯 신이 나서 엮어댔다.

《며칠전 이 황새령에 무서운 광풍이 들이닥쳤지요. 어찌나 사납게 아우성치는지 아릅드리나무까지 뿌리채 뽑혀나간다는데… 하, 그 바람질에 넘어간 나무뿌리밑에서 겨울잠을 자던 다람쥐네 고간이 홀랑 드러난게 아니겠어요. 이크, 이게 웬 떡이나? 하고 도토리며 밤을 한배낭이나 횡재해서 지고왔지요. 헌데 그게 대대장동지의 눈에 띄워진벼락이 내려질줄이야… <다람쥐를 굶겨죽일 잡도리야?> 이러더란 말입니다.

대대장동지에게 바람에 넘어간 나무밑에서 주어진것이라는 설명을 했더니 한숨을 푹 내쉬겠지요.

《몹쓸놈의 바람, 아까운 동물들을 죽이고 아까운 나무들을 수태 못 쓰게 만들다니…》

흥미있으면서도 무엇인가 가슴에 충격을 주는 이야기였다. 자기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던 박진의 마음속에 이 숲을 위하는 그토록 따뜻한 진정이 깃들어있단 말인가. 묻지 않고도 경주는 이 점심밥그릇을 다름아닌 박진 대대장이 울려보냈다는것을 알았다. 그것이 자기가 바란 의미의 사죄는 아니었을것이다. 걸은 뻔뻔해도 속은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

느닷없이 경주의 눈앞으로 미구에 일떠서게 될 산악같은 언저며 땅속으로 뻗어갈 물길굴의 자태가 떠올랐다. 그러자면 수많은 휘틀이 필요할것이고 많은 나무가 요구될것이다. 휘틀을 적게 쓰고 시간을 앞당길 방도는 과연 없을가?

《자, 어서 들라요, 식기 전에.》

둘은 다정히 마주앉아 식사를 나누었고 밤도 잤

다. 이제는 박진이 자기를 대대의 한식솔로 받아들였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기꺼워난 경주는 제멋대로 냉큼 일어났다.

《복철동무, 어서 내려가자요.》

설계에 반영된 도로공사구간에 대한 료해확증결과를 박진에게 빨리 보고해야 했던것이다. 바로 그 순간 경주의 눈에 아름답한 구새먹은 참나무가 띄었다. 이상하게도 평 뚫린 구멍변두리에만은 유독 하얗게 성애가 불리워있었다, 마치 그 구멍이 살아서 숨이라도 쉬고있는듯이.

《왜 그래요?》

눈이 등그래서 경주의 시선을 쫓던 윤복철이 무릎을 철썩 쳤다.

《아 산꼴, 가보자요!》

성수가 나서 구새먹은 참나무앞으로 총알같이 달려간 윤복철은 발터듬을 하다가 우둘투둘한 나무껍질에 발을 붙이고 한발쯤 기여오르더니 구멍속에 손을 쭉 들이밀었다.

《아니, 그러다 벌에 쏘이면 어쩔려요?...》

《헐, 일없어요, 이 추운 날씨에...》

그러던 윤복철의 입에서 갑자기 《이크.》하는 비명이 터졌다.

미처 어쩔새도 없이 그는 나무에서 떨어져 경주의 발치까지 데굴데굴 굴러왔다. 그의 눈은 흰자위로 가득 뒤덮여있었다.

《저거... 저안에 피물이...》

경주도 한순간 머리칼이 주뻗 곤두섰다.

《설마...》

《아, 글썄 손을 넣었더니 뭉클한것이 잡히는데 털까지 부얼부얼... 예!》

윤복철은 치까지 떨었다.

한껏 좋아들었던 경주의 입에서 그제야 호-하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책에서 본 곰들의 겨울잡이 이야기가 상기된것이였다. 곰이 굴속에서 겨울을 나기도 하지만 저렇게 구새먹은 나무속에도 자기의 은신처를 정한다고 그 책에는 써여있었다. 절로 웃음이 터졌다.

《복철동무, 저건 피물이 아니라 곰일거예요, 겨울잡을 자는... 틀림없어요.》

《예? 곰이 겨울잡을?!...》

그 소문은 즉시 온 대대에 퍼졌다. 박진 대대장까지도 호기심을 누를수 없었는지 대원들과 함께 산판으로 올라왔다. 그는 제가 직접 고입돌을 고여놓고 참나무에 올라서서 구새통을 더듬질해보더니 《예키, 한 150키로는 실히 나갈 놈이군.》하며 흐뭇한 미소를 온 얼굴에 피워올렸다. 그리고는 엄숙히 선포했다.

《여긴 위수구역이요. 누구든 이 주변에 얼씬했다가는 처벌하겠소. 이젠 큰 경사란 말이요. 바로 이 곰이 우리 대대의 위훈을 직접 목격할 산 증견자가 될게거든. 그런 의미에서 대대, 더 씩씩하게 작업장으로 출발!》

경주에게는 위수구역이며 산 증견자라는 표

현들이 모두 흠뻑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콧끝해보이던 박진 대대장에게 그런 랑만적인데가 있다는것이 특히 기뻐다. 역시 존경할만 한 지휘관이였다.

마침내 경주앞으로 다가온 박진은 아침에 내렸던 추방령은 감감 잊은듯 스스럼없이 물었다.

《우리 대대 공사구간을 다 돌아보았지요?》

경주의 설명을 들으며 대대의 도로구간을 주의 깊게 살피는 박진의 눈초리는 어느사이 다시 긴장하게, 거의 욕심스럽게 번쩍거렸다. 치열한 격전을 앞에 둔 지휘관다운 투지와 승리를 확신하는 만만한 자신심이 비친 눈빛이였다. 그가 사뭇 엄격하게 말했다.

《참모동무, 시공지도를 책임적으로 해야겠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를 낼수 있도록!》

그리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윤복철을 소리쳐 찾았다.

《바위투성이인데다가 땅까지 얼어붙었으니 아무래도 폭파의 방법으로 도로를 닦아야 할것 같소. 즉시 후방참모에게 전달하시요. 끝끝한 대원 다섯명을 선발하여 오늘중으로 폭약과 퇴판, 도화선을 타올것!》

《알았습니다!》

순간 경주는 박진을 피끗 건너다보았다.

《가만!》

손세로 윤복철을 멈춰세운 경주는 박진의 앞으로 곧추 다가갔다.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박진은 이미 그런 질문을 예견한듯 거침없이 대답했다.

《알고있소. 그런데 오늘 밤 폭설이 내린다는 기상예보요. 동문 힘들거요.》

경주는 절로 가슴이 싸늘해지는것을 느꼈다. 지금 박진은 또다시 자기가 녀자라는것을 거들며 보호해주려고 하고있다. 아니, 그것은 보호라기보다 일종의 경시인것이였다.

경주는 언짢을 때면 흔히 하는 습관대로 깔끔히 눈을 내리간채 말했다.

《각자에겐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자기의 책임이 있는겁니다.》

박진의 쪼프린 눈이 자기를 유심히 뜯어본다는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다. 얼굴이 따끔거렸다. 그러나 뜻밖에도 박진은 껄껄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줄 알았소. 자기를 주장할줄 아는건 좋은 일이지. 가오. 그러되 려단에서 자고 래일 날이 밝은 다음 떠나오도록 하오.》

기상예보는 틀림없었다. 어둠이 깃들자부터 황새령은 눈이 세차게 쏟아지고 눈보라가 세차게 일며 마구 태질하기 시작했다. 려단지휘부에서 그 광경을 바라본 경주는 박진의 권고가 옳았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알수 없는 반

발심이 경주로 하여금 끝내 대대로 떠날 결심을 내리도록 꼬드겼다.

(꼭약은 래일 아침 당장 쓰지 않아도 시공지도는 내가 맡았어. 그러니 꼭 가야 해!)

령중턱에 올랐을 때에는 벌써 눈이 허리를 쳤다. 거기에 진득진득한 진눈까비를 물고 령정점에서 태풍처럼 휩쓸며 내려오는 맞바람은 눈조차 뜰 수 없게 했다.

일행은 서로 부축하고 이끌며 한결음한결음 힘겹게 전진했다.

불안이 경주의 마음을 든장질했다. 혹시 이러다 길이라도 헛갈리지 않을까? 또 대원들의 손발이라도 얼구게 되면?...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었다. 대원들은 오히려 성수가 나서 눈보라를 맞받아 웃고 떠들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처녀시공참모를 떠들썩 추어올렸다.

《시공참모동진 벌써 돌격대원이 다되었습니다. 우리하고 배짱이 딱 맞거든요.》

경주는 코마루가 찡해났다. 이 순간 그는 《자기를 주장하는건 좋은 일이지.》 하던 박진의 말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옳은 말이었다. 주장이란 자기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인 것이다.

...자정무렵이 되어서야 경주네들은 대대에 도착했다. 폭설에 전화선이 끊어졌는지 자기들이 떠났다는것을 전혀 모르고있던 박진은 너무 놀라 눈이 화동잔만큼 커졌다.

《시공참모동무, 정신나가지 않았소?》

그토록 경주네 일행은 정상이 말이 아니었다. 진눈까비에 젖어든 옷은 갑옷처럼 찝찝했고 얼어든 신발은 돌덩이 한가지였다.

《식칼!》

박진이 대바람 소리쳤다. 그는 식칼로 경주의 얼어든 신발부터 찢 찢었다. 그의 호령이 재차 떨어졌다.

《식당은돌칸으로!》

사람들이 달라붙어 복새판을 벌렸다. 얼어든 손발을 눈으로 비빈다, 콩자루를 가져온다, 옷을 갈아입힌다... 마침내 몸들이 녹은 일행은 노곤한 잠속에 빠져들었다.

경주만은 며칠째 머리속에서 굴리던 물길굴의 쿵크리트피복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방안을 찾으려고 연필을 들었다. 먼저 세갈래의 좁은 도강을 뚫은 다음 그것을 확장하여 큰 물길굴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버력이 쌓이게 된다. 그런데 그 버력을 외통길로 처리해야 하므로 결국 쿵크리트충진작업도 그만큼 더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 버력을 물길굴웃벽을 먼저 충진한 다음 버력이 처리되는 족족 나머지 밑부분을 충진한다면? 그러면 술한 버팀목을 쓰지 않고도 작업을 안전하게 할수 있고 속도도 그만큼 높일수 있을것이 아닌가. 옳다! 이것이다!

...우렁찬 대렬합창소리에 경주는 편득 눈을

떴다.

창박이 환했다.

...

아 김정일장군 따르는 길에
우리모두 영웅이 되자 영웅이 되자

(아이, 깜빡 잠들었네.)

따져보니 자기가 대대에 온것은 겨우 옹근 하루였다. 그러나 경주는 저 대렬합창곡이 박진이 직접 선정한 지정곡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 노래에는 박진자신의 지향과 목표, 그 실현을 위한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경주는 소스라쳐 뛰쳐일어났다. 도로 건설전투의 첫날 사회주의경쟁의 첫시작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현장에 달려갔을 때에는 전투시작을 위하여 작업구간의 눈을 깨끗이 친 뒤였다.

이미 어제 박진 대대장과 도로건설위치며 방향, 공사순서를 기본적으로 토의한터여서 작업은 빈틈없이 조직되어있었다.

추위가 맴쫓지만 대대장자신이 웃옷을 벗어던지고 함마를 잡고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경주는 슬그머니 그앞으로 다가가 정대를 잡았다.

《치세요.》

이번에도 그는 자기를 쏘프린 눈으로 굽어보는 박진의 눈길을 따갑게 의식했다. 단마디로 《안되오.》 하든가 하다못해 《이런 일 처음 해보지.》라고 미심쩍어할것은 뻔했다.

그러나 박진의 말은 전혀 달랐다.

《단단히 잡소.》

휘익 공기를 켜는 소리와 함께 《짱!》 함마가 벼락치듯 울부짖었다. 경주의 손에 찌릭— 고압전류같은것이 스치더니 온몸의 뼈마디가 물러앉는듯했다. 눈앞에서 별찌가 튀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기우뚱거리는 정대와 함께 비칠거렸다.

《더 해보겠소?》

머리우에서 묵직한 질문이 올랐다. 경주는 허를 깨물었다. 기겁해하고 서툴기 짝없는 자기 꼴을 보인것이 분했다.

《걱정말고 계속 쳐요.》

박진은 다시 함마를 쳐들었다. 하나, 둘... 열... 내리치는 회수가 많아질수록 팔은 떨어져나가는것 같았으나 대신 점차 자신심이 생겼다. 이것도 자기를 주장하는데서 하나의 자그마한 승리는 아닌지?

휴식참 우등불이 피어오르는 속에 오락회가 벌어졌다. 대원들이 저마다 첫 순서로 박진을 일으켜세웠고 결달아 경주도 끝어냈다. 혼성2중창을 하라는것이였다.

그런데 둘사이 있기마련인 노래제목을 고르는 의논도 없이 박진은 나직이 《따라하오.》하고

는 제 먼저 청을 뽑았다.

우리는 심산속에 우등불 지켰네
언땅에 천막치고 발전소 세워가네
묻지 말아 우리 심장 왜서 불타는지
...

따라부르면서도 경주는 속으로 웃었다. 자기의 의사라면 누구도 거역할수 없다는 배심이 노래 선정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었던것이다.

와- 합성과 함께 박수가 터지고 재청을 요구하였다.

오락회뒤끝에 기분이 좋아진 박진은 경주의 옆 자리에 허물없이 앉으며 식당근무성원들이 날라온 더운 우유고뿌를 제 먼저 권하였다.

《내 조수역을 잘한 표창이요.》

경주도 지지 않고 통을 받았다.

《표창치고는 너무 늦거리군요.》

《?...》

《제 보기엔 대대장동지의 그 라침판이 이젠 필요없을듯 한데 제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허, 탐나오? 언제 그걸 눈독들었소?》

박진의 두눈이 가느스름히 찌프러졌다. 자기 마음속을 꼴뽕히 들여다보는듯 했다.

아닐세라 그가 감회깊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실 그 라침판은 남들이 알면 좀 희뽕다고 할 물건이요. 여기 회천방으로 달려올 때 난 폭영웅이 되리라고 결심했소. 시대가 그걸 요구하거던. 하지만 누구나 쉽게 될수 없는것이 영웅이 아니겠소. 그래 생각했지. 남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일하자, 그 목표실현의 곧바른 지름길을 매일, 매 시각 가늠해보고 마음에 새기자!... 그래서 그 상징으로 라침판을 구한거요.》

경주는 숨을 죽였다. 뜻밖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자기 심장의 한귀퉁이라도 열어보인다는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박진이 돋보였다. 늘 영웅의 꿈을 안고 순간순간을 채찍질하며 무섭게 투신해가는 불같은 인간!

갑자기 박진이 왕청같은 소리를 꺼냈다.

《언제부터 하자던 소리인데... 경주동무를 어디선가 꼭 본것 같단 말이요. 암만 해도 낮이 익어.》

(끝내 날 알아보기 시작했구나!)

까닭없는 부끄러움에 낮을 붉히며 경주는 빠끔히 눈을 들었다가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어느 책에선가 사내들이 흔히 처녀에게 은밀한 속심을 내비칠 때 어디서 본것 같다는 말로 접근한다는 대목을 읽은 기억이 나서였다. 과연 그래서일가?...

《어디서 본것 같습니까?》

경주는 어찌선지 허가 말라붙어 가까스로 물었다. 박진은 눈살을 찌프리고 이마를 문지르더니 픽 웃었다.

《모르겠소. 어디서 본것만은 틀림없소.》

《전 압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오는것을 경주는 가까스로 참았다.

작업구령이 울리자 박진은 성큼 일어나며 권고했다.

《동무의 임무는 정대잡이가 아니요. 작업구간을 다시한번 돌아보면서 발파위치들을 정확히 정해주오.》

《알았습니다!》

작업장을 멀리 떠나 도로가 뻗을 구간을 더듬어 나가는 경주의 마음은 야릇하게 뒤설레었다. 고막속에서는 박진이 휘두르던 함마질소리가 쨍쨍 메아리되어 울리고있었다. 그의 얼굴도 자꾸만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경주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눈길은 어제 발견한 령중턱의 그 구새먹은 참나무에 가뭇박혔다. 겨울잠에 든 곰이 그속에 있는것이다.

재빠른 계산이 그의 머리속에서 굴렀다. 거리는 도로구간에서 200미터 될것 같았다. 매 발파구멍의 길이는, 그에 소요되는 폭약량은? 그만한 폭발력에 의하여 날려갈 버력들의 비행거리는?...

그러자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경주는 아무래도 안심치 않아 그 참나무까지의 거리를 자기 보폭으로 재어보기 시작했다. 틀림없는 200미터였다. 경주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있다가 작업장을 향하여 부리나케 뛰어갔다.

여전히 세관게 함마질을 하던 박진은 숨이 턱에 닿아 나타난 경주를 어리둥절해서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요? 참모동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발파를 중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박진의 시꺼먼 두눈썹이 미간에 모아붙었다. 무슨 낮도깨비같은 소리냐는 표정이었다.

그때에야 경주는 가쁜 숨을 겨우 진정시킬수 있었다.

《곰이... 이제 발파를 하게 되면 그 소리에 놀라 잠을 깰수도 있고... 발파들에 맞아 잘못될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대원들이 듣고 수군거리자 박진은 성이 나서 경주의 팔소매를 거칠게 나꾸쳤다.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데까지 자리를 옮긴 그는 통명스럽게 내쫓았다.

《동무 정신있소? 발파를 하지 않고 이 엄동설한에 어떻게 바위와 언땅을 까낸다고 그러오? 곰이야 깨워서 멀리 보내면 될게 아니요.》

《그러다 혹시 얼어죽기라도 하면...》

《두터운 털가죽을 뒤집어쓴 곰이 얼어죽긴 왜 죽는다고 그러오?》

《그래도 저... 댜 방도가 없을가요? 발파를 하지 않는 방도를 찾든가 좌우간 곰이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파를 안한다?》

잠시 미간을 찌프리고 생각에 잠겼던 박진이 손을 뻗 내리그었다.

《그건 안되오.》

《?!...》

《이런 참.》

박진은 어이없는듯 코를 불었다. 그의 얼굴은 노기로 하여 험하게 이지러져갔다.

《그래 우리 대원들이 정대와 함마로 도로를 닦으라는거요? 사회주의경쟁에서 꼴찌를 하게 될 것도 문제지만 우선 대원들이 견디지 못할거란 말이요. 이 박진이 대대장으로 있는 한 그건 안돼!》

꽤 돌아선 박진은 대원들쪽에 대고 소리쳐 불렀다.

《여, 복철동무!》

옷몸에서 땀김이 문문 서려오르는 윤복철이 달려오자 박진은 경주가 들으라는듯 짐짓 익살조로 말했다.

《동무에게 특별과업을 주겠소. 발파가 시작되기 전까지 잠꾸러기 꿈을 기상시켜 멀리 숲으로 쫓을것, 도중에 굶지 않게 밤배낭을 큼직하게 지워보내라구!》

기지있는 룡이였으나 경주는 웃을수 없었다. 그의 불쾌한 기분을 감촉했는지 박진이 심증하게 말을 돌렸다.

《마음쓰지 마오. 물론 꿈도 아껴야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창한 발전소를 일떠세우오. 그 창조물의 값을 꿈 한마리에 비기겠소? 쫓아버리면 돼!》

그날 밤 경주는 오래동안 뒤채기였다. 어느모로 보나 박진의 말은 사리에 맞고 충분히 리해도 되는것이였다. 희천발전소가 강성국가건설에 크게 이바지한다는것이야 사실이 아닌가. 그러니 그 의의를 잘 아는 박진의 눈에 꿈 한마리가 피해보는 것은 너무도 보잘것없고 또 불가피한것일수도 있다. 멀리 쫓아버리면 될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쑥 2년전의 그 빠스표 한장이 되살아났다.

빠스표를 준비 못하고 차에 오른 그를 속도전청년돌격대체복을 입고 큰일을 한다고 하여 소소하게나마 원심을 써서 도와주었던 자기, 그렇게 이 희천발전소건설이 거대한 국가적의의를 가진다고 꿈 한마리쯤을 외면하는것도 리해해줘야 할가?...

경주는 그저 리해하고 지나칠수가 없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오가산지구를 비롯하여 여러 곳을 현지도하시면서 희귀한 동식물들을 적극 보호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지 않았던가. 그 꿈도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품에 안겨있는 내 나라의 소중한 재부가 아니겠는가. ...

(아니, 꿈이 괜히 겨울잠을 자는게 아닐거야. 엄혹한 겨울환경을 견디기 힘들어 할수없이 겨울잠을 자는게 아니겠는가.)

끝내 경주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의 눈앞에 대대를 찾아오던 첫날 만났던 산림감독원아바이의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아무래도 그 산림감독원아바이를 찾아가 방조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래일 아침부터 발파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으니 어떻게든 이 밤중으로 찾아가 만나야 했다.

밖에 나서니 사위는 이미 어둠에 짙 짓눌려있었다. 이런 밤길을 혼자서 가낸다는것은 엄두도 못할 일이었다.

망설이던 경주의 머리속에 윤복철이 떠올랐다. 자기를 누이처럼 믿고 따르는 그라면 이런 밤길도 기꺼이 동무해줄것이다.

그러나 정작 직일병을 시켜 그를 깨우려던 경주는 입이 굳어졌다. 종일 힘에 겨운 작업을 하고 정신없이 뿜아떨어졌을 그를 깨우기가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래선 안돼. 혼자 가자. 난... 갈수 있어!)

산골짜기의 밤은 몹시도 무시무시했다. 전날 밤에 내린 진눈까비의 무게에 짓눌려 사방에서 우지끈우지끈!... 나무아지들이 부러지는 아찔로운 괴성, 숲우듬지를 뒤흔들며 우우— 몸부림치는 바람소리, 등골을 서늘케 하며 멀고 가까운 곳에서 무시로 짓어대는 여우들의 캥캥거리는 울음소리, 칠혹같은 어둠...

경주는 공포로 하여 온몸이 한줌만큼 줄어들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울리는 눈뽕히는 소리마저 어떤 괴물이 자기를 덮치려고 따라오는것처럼 느껴져 소름이 쭉 돋군 했다. 윤복철과 함께 떠나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그러나 경주는 이를 악물었다.

나라의 귀한 재부라고 할수 있는 꿈과 관련된 이 걸음을 어찌 중도에서 포기할수 있단 말인가.

아닌 새벽에 백곰마냥 하얗게 눈을 뒤집어쓴 경주가 뛰어들자 산림감독원아바이는 일이 빠진듯 한동안 멍청히 쳐다보기만 하다가 마침내 그를 알아보고 펄쩍 뛰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어서 들어오라구, 어서!》

온몸이 뽕뽕 얼어가지고도 무언가 다급히 설명하려드는 경주를 아바이는 뜨끈한 방아래목에 잡아끌어왔기부터 했다. 사연을 듣고는 감심하여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허, 과시 희천돌격대원이 다르군, 달라.》

경주는 그만 눈물이 쑥 나왔다. 아바이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기가 이 무시무시한 밤길을 달려온 것이 옳았다는것을 명백히 깨달았던것이다.

꿈은 사방 100여리에 달하는 숲, 다시말하여 그만한 면적의 생태환경이 보장되어야 목숨을 유지하는 활동적인 동물이라고 한다. 특히 겨울잠에 대한 요구가 매우 까다로운데 완전겨울잠은 아니더라도 따뜻한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긴잠을 자는 것으로써 먹이가 없는 겨울에 순응하는 과정에 그만 겨울에 대한 저항력이 심히 감퇴되였다는것이였다. 그러므로 이 추위속에 밖으로 내쫓는다는것은 죽으라고 버리는것과 같았다. 좋은 경우라도 꿈은 구실 못하는 부실한 늑으로 되기 십상일것이다.

《안되네, 안돼. 이 랑림산줄기는 저 오가산

자연보호구와 잇당은 곳일세. 그 귀한 꿈을 잘못 되게 하면 우리가 톱톱땅의 주인이라고 할수 있겠나. 체네, 정말 기특하이.》

《아버님, 고맙습니다!》

죽도록 피곤했지만 경주는 곧 되돌아섰다. 아버지가 황황히 따라나서며 날이 밝은 다음 떠나라고, 정 그렇게 우기면 자기와 함께 가자고 부득부득 만류했으나 그는 방긋 웃는것으로 인사했다.

《아버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희천 돌격대원이라고요. 걱정마세요.》

정말 경주는 자기 발걸음에 나래라도 달린것 같았다. 그래서 행복에 겨우면 피곤도 공포도 가뭇있게 된다고 말들 하는지 몰랐다.

...경주는 날이 희붉히 밝아서야 대대에 도착했다. 대대는 벌써 작업장에 진출해있었다.

박진은 시퍼렇게 성난 얼굴로 경주를 맞았다.

《동문 시공참모요?》

그의 거친 고함소리가 차갑게 언 아침대기를 찢으며 메아리쳤다. 그렇게 사납고 무서운 얼굴을 경주는 여태 마주해보지 못했다.

《당장 폭약창고열쇠를 내놓소!》

그 고함소리에 대원들의 눈길은 일시에 두사람에게 쏠려졌다.

《대대장동지, 조용히 할말이 있습니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경주는 앞서걸기 시작했다. 불가피한 충돌을 그는 예감했다.

어느 으스스한 바위너설뒤에 이르러 경주는 걸음을 멈추었다.

놀랍게도 박진은 순순히 따라왔다. 그 역시 대원들앞에서 큰소리치면 실례라는것을 깨달은듯 했다. 하지만 그의 눈썹은 여전히 사나웠고 목소리도 거칠었다.

《용서하십시오, 대대장동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유주의를 한 저를...》

《하자는 말이 뭐요?》

박진은 경주의 말허리를 무뎡뎡하게 잘랐다.

《발파를 중지해야겠습니다. 전 그걸 확인하러 갔다오는 길입니다.》

경주가 산림감독원아바이를 통해 꿈이 최소한 부실해질수 있다는것을 알았다고 설명하자 박진은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장하구만. 그러니 동무 혼자 애국자이고 이 박진인 자연의 파괴자나 다름없다. ... 여보시오 톱톱땅경주동지, 꿈 한마리때문에 심장이 참새처럼 팔딱거리면서 어떻게 돌격대재복을 입었소? 사람들이 그만한것도 이해하지 못할것 같소?》

경주는 심장이 싸늘하게 얼어드는것 같았다. 그는 박진이 자기의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하리라고 믿었다. 윤복철을 통하여 알게 된 다람쥐네 고간이야기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했었다. 이 나라의 재부를 소중히 여기는 심장의 박동이 그속에서 얼마나 세차게 감촉되었던것인가. ... 경주는 다시 한번 사정해보았다.

《그렇더라도 려단과 토의해보면 무슨 방도가 나지않겠습니까? 예?》

《방도? 경쟁에서 1등을 못하는 방도란 우리에게 필요없소!》

비로소 경주는 실망으로 가슴이 허물어지는것 같았다.

《그랬군요.》

《뭐가 그렇다는거요?》

눈을 내리칸 경주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전 언젠가... 뺨스칸에서 웬 청년이 뺨스표를 준비하지 못해 안타까와하는것을 본적이 있었어요. 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이더군요. 나라를 위해 큰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그쯤은 허용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전 이해했어요. 그래서 뺨스표를 내주었지요.》

보지 않고도 경주는 박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시퍼렇게 질려가고있으리라는것을 톱톡히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본새로 차갑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였어요. 누구든 일을 하면서 이쯤한 잘못된 사람들이 이해해주겠거니 생각한다면 결국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우에 실리기마련인거예요. 만약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잘못에 대한 이해를 구하게 된다면 그 집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만하요!》

팔내 자체력을 잃었는지 박진이 소리쳤다. 수직감과 모욕으로 하여 그의 두눈은 향방없이 허덕거리고있었다.

《아니, 계속해야겠어요. 물론 거창한 발전소에 비해볼 때 꿈 한마리쯤이야 하고 생각할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줄수도 있을거예요. 하지만 그 꿈 한마리도 우리 조국의 귀한 재부란 말이예요. 그 꿈에게 피해를 주고서도 우리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참다운 공민의 자각이 없는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설사 영웅이 될수는 있어도 마음은 편할수 없을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꿈 한마리쯤이야 하고 이해를 바라야 할가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말예요.》

《날... 날 모욕하는거요?》

박진이 또다시 큰소리를 쳤으나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박진의 얼굴은 고통으로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그때였다. 그들의 등뒤에서 느닷없이 《어흠!》 하는 군기침소리가 들렸다. 놀래여 돌아보던 경주는 어느사이 따라왔는지 모를 산림감독원아바이가 곱처럼 웅크리고앉은채 대통을 뺨금뺨금 뺨는것을 보았다.

아바이는 그 대통을 탁탁 털더니 움쭉 일어서며 근엄하게 말했다.

《여보게 대대장, 시공참모 말이 옳네. 이 땅에 뿌리내린 풀 한포기, 날아다니는 새 한마리에도 다 우리 선렬들의 사랑이 깃들어있네. 그걸 잊지 말라구.》

경주는 가슴이 뜨거워났다. 밤길을 홀로 가는 처녀를 넘려하여 여기까지 따라와준 고마운 로인, 그러고도 자기를 지지하여 박진을 엄하게 꾸짖기까지 한것이다. 그것이 경주의 용기를 더욱 불려 일으켰다.

《아바이말씀을 명심하길 바래요.》

더는 돌아보지도 않고 경주는 대대부를 향하여 걸어갔다.

그러나 등뒤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필경 호된 타격을 받고 돌덩이처럼 굳어져있는 모양이었다.

경주는 러단에 전화를 걸었다.

한시간도 못되어 러단장과 러단정치부장이 대대로 달려왔다. 그들은 경주와 박진을 앞세우고 곰이 겨울잠에 든 구새먹은 참나무가 있는 곳까지 발파각도며 그 위력까지도 꼼꼼히 따져본 다음 경주의 우려가 옳다는것을 긍정했다.

러단장은 경주를 흥미있게 들여다보며 웃음섞인 룡까지 던졌다.

《우리 경주기사가 엉큼하거던. 회초리같은 몸이 쑥스러우니까 제각 곰처녀로 둔갑했던 말이요.》

러단장과 정치부장은 오래동안 의논한 끝에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을 그대로 내밀되 박진의 대대에는 력량을 증강해주고 발파없는 함마전을 벌리기로 결정했다.

《3대대장, 헐치 않은 전투야. 자신있나?》

박진의 얼굴은 컴컴하게 질려있었다. 경주는 자기가 너무 모질게 군것 같은 가책까지 들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그를 믿고싶었다. 그것 역시 피이 짙은 감정이었다.

박진은 양다문 이새로 신음처럼 대답했다.

《러단장동지, 이 기회에... 자신을 검토하겠습니다.》

물음과는 좀 동당지 않는 대답이었다.

《해보오. 동무야 영웅이 목표가 아닌가.》

그다음 경주를 의미있게 돌아보았다.

《참, 내 대대부에 들렀다가 동무의 설계초안을 보았소. 아주 대단한거더구만.》

《...한주일후 우리 대대는 끝내 함마전으로 도로구간을 열고 사회주의경쟁에서도 1등을 했어요. 그사이 박진 대대장이 얼마나 무섭게 일하던지... 눈이 폭 꺼지고 이마엔 난데없는 주름살까지 패이지 않았겠어요. 가슴이 저렸습시다.》

그해의 첫 봄비가 내리는 날 우리에게겐 경사에 경사가 겹쳤답니다. 발전소언제와 물길굴건설착공식이 진행되었고 그를 경축이나 하듯 곰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던거예요. 지금껏 매일이다싶이 찾아와 곰을 지켜보던 산림감독원아바이가 그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온 대대가 곰을 구경하러 뿔쳐나섰어요. 정말 희한하게 크고 멋진 곰이었어요. 그놈은 밖으로

나오자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더니 마치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나 하듯이 고개를 주억거리며 똥짓 똥짓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대원들은 헐치 않은 함마전으로 터갈라진 손에 봉대들을 감고있었으나 그 아픔은 감감 잊고 열심히 손을 저으며 곰을 바래워주었답니다. 산림감독원아바이가 소리쳤어요.

〈반달곰아, 너의 겨울잠을 바로 저 희천처녀가 지켜주었다는것을 잊지 말거라.〉

정말 감회도 새로운 풍경이었어요. 온 러단이 저를 곰처녀로 불러주고있는데 로인은 글썽 희천처녀라고 높이 사주는것이 아니겠어요. 마음에 흠뻑 드는 부름이었어요. 희천의 돌격대원들을 제가 다 대변한듯 쑥스럽고도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곰이 사라진 숲을 점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창 푸르른 새움을 열정적으로 틈우고있는 풍성한 숲, 그 숲이 품어주는 물이 이제 우리가 쌓을 언저리에 가득 고일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던지... 거기엔 저의 차그마한 지혜의 덕도 깃들어있었으니까요. 반대로 박진 대대장에겐 쓰러린 회오의 순간이었던가봐요. 대대장동진 오래동안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섰더니 느닷없이 품속에서 라침판을 꺼내어 제게 내밀겠지요.

〈경주동무, 아무래도 이 라침판의 주인은 동무가 되어야 할가보오.〉

〈그럼 동진 그 영웅의 지름길을 어떻게 찾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에게 던진 룡이었어요. 말해놓고보니 너무 뽐족했다는 후회가 들더군요. 그런데도 박진동진 선선히 받아주었어요.

〈아니요, 위훈에로의 지름길은 자기의 리기를 깨끗이 버린 애국의 심장만이 가리켜주는거요. 그걸 동무가 내게 심어줬지.〉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이상하게 이글이글 불타더군요. 마치 절 통채로 빨아들이기라도 할듯 말예요....

우리는 하늘을 찌를듯 아찔하게 치솟은 언저미에 서있었다. 나의 눈에 그 언저벽에 새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구호가 심장을 파고들며 안겨왔다.

《제가 자기 자랑을 굉장히 했지요?》

처녀의 수집은듯 한 말이였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동무는 여기 희천발전소돌격대원들이 무엇을 가슴에 안고 싸우는가를 이야기했소.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와질 조국의 패일을 굳게 확신하고 거기에 온넛을 바치는 돌격대원들의 애국의 마음만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다는것을... 그래서 저 언저가 굳건히 일떠선게 아니요.》

처녀는 대답이 없었다. 그의 눈길 역시 언저우의 그 구호에 그윽히 못박혀있었다.

2012년의 별이다

리진협

밟고 선 이랑
바라보는 저 논배미
조국과 인민앞에
참으로 풍요한 가을을 맹세한
2012년의 별이다

공동구호의 불같은 호소가
공동시설의 뜨거운 글줄들이
농민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준다
긴긴 비료차량을 끌고가는
기관차의 기적소리도 별에로 우릴 부른다

온몸에 활활 불이 당기누나
보름이나 앞당겨 별에 실어낸
두엄더미들이 어쩐지 낮아만 보여오고
별도 그 별이건만 어쩐지 작아만 보여
일욕심 땅보다 더 두터워진 우리다

웃동을 벗어내친 몸들에선
봄아지랑이마냥 흰김 피어나니
겨울철이 없어진 이해 이 별이다
두엄무지밀에서 서둘러 잠을 깬 봄이
어서 씨앗을 뿌려달라 우리를 부른다

이해엔 뿌려가는 씨앗들도

그저 짝이 되고 잎새퍼지 않으려니
그 싹들을 움틔울 봄을 준비하는 이해
반갑게도 짹짹 오는 우리 비료가
단비가 되어 내릴 그 봄을 꿈꾸는 이 별

아, 우리모두의 가슴가슴에
온 나라에 타번지는 함남의 불길
그 불길로 계절보다 먼저
마음속에 봄싹을 틔우고
풍요한 가을에로 달리는 우리다

어찌 불이 일지 않으랴
장군님령전에서 뜨거운 눈물 흘리며
우리 다진 그 맹세
불이 되어 불길이 되어
우리 심장을 달구어주고 피를 끓이거늘

장군님 생전의 녀원 강성부흥구상을
쌀로써 만들어야 할 우리는 농민
이 별에 높이 쌓은 로적가리
강성국가의 솟을대문으로 세워놓고
승리의 문패를 보란듯이 우리 달려니
아, 2012년의 별이다
불같은 2012년이다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2호 (루게 제772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인	쇄	주	체	101(2012)	년	2월	1일	
발	행	주	체	101(2012)	년	2월	5일	

ㄱ-26046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